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

DRAMA BEYOND FRONTIERS : GENRE, BORDER, PLATFORMS

결과보고서

2017.10.30(Mon.)~11. 2(Thur.)

PARADISE CITY Incheon, Korea

Presen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l ways INCHEON Organized by 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INCHEON FILM COMMISSION Supported by PARADISE CITY posco E&C KRCN Korea Film Commissions & Industry Netwo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KOFIC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Ⅰ. KOFICE :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ATDC)

1. 사업 목적
2. 역대 주요성과 및 성장로드맵

Ⅱ. 2017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ATDC) 결과보고

1. 사업 개요
2. 사업 상세내용
3. 사업 추진성과
4. 개선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Ⅰ. KOFICE :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ATDC)

1 사업 목적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ATDC)]
아시아의 작가-제작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드라마 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한국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각 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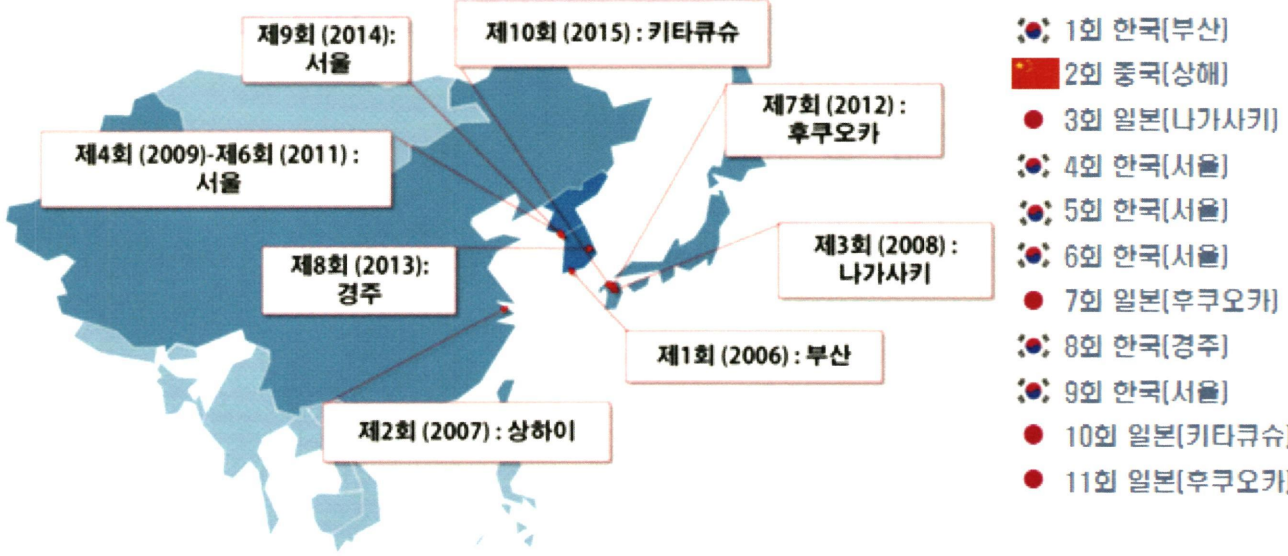
□ 아시아 고유의 정체성과 창작 문화의 공감대를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시아 發 콘텐츠 공동 제작의 기반을 구축**

□ **아시아 전역의 유력 작가·제작자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하여 아시아 드라마의 다양성 제고와 상생 발전을 도모

□ 멀티 플랫폼의 성장,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급변하는 드라마 제작 환경에 조응하는 업계 동향 교류와 이슈 논의를 선도**하여 아시아 방송 영상산업발전에 기여

2 역대 주요 성과 및 성장 로드맵(~2016년)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개최지 현황]



□ (도약준비) '06년 1회 ~ '08년 3회 : 동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 동아시아 방송작가 간의 교류 증진과 상호호혜 작품 모색을 기반으로 한 공동선언문 발표 및 참여국 순회개최 협의

◇ 한일 합작 영화 <꽃그림자> : 야마모토 미라이, 김래원 주연
- 제1회 컨퍼런스 계기, 개최지인 부산을 배경으로 제작 및 촬영 된 일본 영화

◇ 한중 합작 드라마 <미로> : 이종원, 신애 주연
- 제2회 컨퍼런스 계기, 한국 삼화네트웍스와 중국 상해미디어그룹(SMG)가 공동제작

□ (도약단계) '09년 4회 ~ '10년 5회 : 아시아 방송작가 컨퍼런스

❍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확장 된 방송작가 컨퍼런스

❍ 실질적 공동 제작 논의 진행성과 발표

◇ 한일 합작 텔레시네마 <천국의 우편배달부> 등 7편 : 김재중, 한효주 외 주연
- 제3회 컨퍼런스 계기 한국감독 연출 - 일본작가 집필/ 제4회 컨퍼런스에서 제작발표 진행

□ (성장단계) '10년 6회 ~ '15년 10회 :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 작가뿐만 아니라, 제작자 참여를 통한 전문 컨퍼런스로의 변화

❍ B2B 매칭 신설을 통한 해외 작가-제작자 공동제작 기반 마련

❍ '15년 10주년 기념,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 표창 시상식' 제정

◇ '11년 일본 작가 발표작 <파견의 품격> - 한국 KBS 미디어 리메이크 결정
◇ '12년 한국 KBS - 중국 SMG(상해미디어그룹) 공동제작 논의
◇ '12년 컨퍼런스 계기, 한국 <해를 품은 달> - 대만 (코믹국제영시) 판권 구매
◇ '14년 한국 작가 - 일본 TBS 공동제작 리메이크작품 논의

□ (성숙단계) '16년 11회 ~ 향후 :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 초청권역 및 글로벌 접점 확대로 아시아 드라마 글로벌 시장 진출

❍ 네트워크 강화를 기반으로 국제 공동 제작 본격 활성화

❍ 드라마 산업 관계자를 아우르는 '글로벌 컨퍼런스' 로의 외연 확대

◇ 태국-일본 합작드라마 <KOI KIMONO (きもの秘伝)>
- 제7회 컨퍼런스계기, 키타큐슈 및 시가를 배경으로 제작된 태-일 합작 드라마
- '15년 태국 방영 후 기타큐슈지역 태국관광객 급증으로 일본관광청 특별상 수상

◇ 태국-일본 합작드라마 <Once upon a time>
- 제10회 컨퍼런스계기, 키타큐슈를 배경으로 제작된 태-일 합작 드라마
- '16년 여름 태국에서 방영되어 계속적인 관광객 인바운드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II. 2017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ATDC) 결과보고

1 사업 개요

□ 행사명 :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 일 시 : 2017. 10. 30.(월) ~ 11. 2.(목)

□ 장 소 : 인천광역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그랜드볼룸 외

□ 주 최 :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 주 관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인천영상위원회

□ 후 원 : 파라다이스 시티, 포스코건설, 한국영상위원회

□ 참 가 : 총 11개국 유력 작가, 제작자 등 드라마 관계자 약 200명

* 드라마 작가 및 제작자 지망생, 관련학과 학생 등 일반인 참관 100여명

[17년도 참가단체]

◇ 한 국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25사)

◇ 일 본 : (사)일본방송작가협회, (사)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 (15사), AIE (지역기업연합회큐슈연계기구)

◇ 중 국 :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베이징영상예술학회, YOUKU TUDOU INC., 동양삼상미디어주식유한공사, 텐센트, 베이징윈라이우문화미디어, PCCW Media Group (홍콩)

◇ 동남아 : Mediacorp(싱가폴), VTV TVAd(베트남), Broadcast Thai Television(태국), Abs-Cbn Corp(필리핀), MNC Media Group(인도네시아), Astro(말레이시아)

◇ 기 타 : Rakuten VIKI(미국), Eccho Rights(스웨덴)

구분	작가	제작자	기타	인원수
한국	29	50	-	79
일본	12	15	6	33
중국	7	16	-	23
동남아	-	-	12	12
기타 (비아시아권)	-	-	6	6
프레스 및 시상식 관계자	-	-	47	47
참관인	-	-	100	100
합계	48	81	171	300

* 참가자 상세 명단은 [별첨2] 참조

□ 주요 프로그램





▌드라마를 통한 문화교류 공헌 표창 ATDC Awards 시상식 및 환영만찬

매년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 교류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각국의 유력 작가-제작자와 우수 배우 간 교류 기회를 확대

* 2017년도 수상자 : 배우 임윤아(한국), 뤄진(중국) / 축하공연 : 크로스진(CROSS GENE)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 발전 방안 논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본회의

각 국 드라마 시장 현황과 제작 기법 공유, 매년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논의를 통해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육성에 기여

* 한중일 작가-제작자 총 10개 세션 진행 / 2017년 특별초청세션 : 미국, 인도네시아



▌드라마산업네트워크구축 B2B 및 교류회

B2B, 교류회, 상영회, 콘텐츠 전시관 운영으로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 제작 활성화

* 2017년 신설 : 작가-제작자교류회, 상영회



▌신규촬영후보지 제안 팸투어 및 상담회

개최지의 관광인프라를 소개하여 촬영후보지를 제시하고 신규 프로젝트 구상의 기회 제공

* 인천광역시 팸투어, 로케이션지원상담회 운영

□ 행사 일정

<table>
<tr><th>시간</th><th colspan="4">10.30. (월)</th><th>10.31. (화)</th><th>11.1. (수)</th><th>11.2. (목)</th></tr>
<tr><td>09:00-09:30</td><td colspan="2" rowspan="4">부스 및
무대 설치
(10/29-)</td><td colspan="2" rowspan="9">체크인데스크
참가자 도착 및
체크인</td><td>Grand Ballroom
참가자 등록</td><td rowspan="2">조식 /
한국 측
체크아웃</td><td rowspan="19">체크아웃 및
참가자 귀국</td></tr>
<tr><td>09:30-10:00</td><td>개회 및 참가자 소개</td></tr>
<tr><td>10:00-10:40</td><td>Session 1
한국 제작자</td><td rowspan="17">인천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팸투어</td></tr>
<tr><td>10:40-11:30</td><td>Session 2
일본 제작자 (2팀)</td></tr>
<tr><td>11:30-12:20</td><td>Session 3
중국 제작자 (2팀)</td></tr>
<tr><td>12:20-13:40</td><td colspan="2" rowspan="3">Grand Ballroom
리허설
(13:00-18:00)</td><td>Sapphire
중식</td></tr>
<tr><td>13:40-14:00</td><td>인천 촬영지원 소개
파라다이스시티 소개</td></tr>
<tr><td>14:00-14:40</td><td>특별세션 Session 4
영미권</td></tr>
<tr><td>14:40-15:20</td><td rowspan="3">Meeting
Room A

상영회

(15:00-
17:00)</td><td rowspan="3">Meeting
Room
B+C

B2B

(15:00-
17:00)</td><td rowspan="3">Meeting
Room D

한국촬영
지원상담
(15:00-
17:00)</td><td rowspan="3">Meeting
Room 로비

작가
제작자
교류회
(15:00-
17:00)</td><td>특별세션 Session 5
동남아권</td></tr>
<tr><td>15:20-16:00</td><td>Coffee Break</td></tr>
<tr><td>16:00-16:40</td><td>Session 6
중국 작가</td></tr>
<tr><td>16:40-17:20</td><td colspan="2">참가자 휴식
(17:00-18:00)</td><td colspan="2">Meeting room E
VIP 접견
(17:20-17:50)</td><td>Session 7
일본작가</td></tr>
<tr><td>17:20-18:00</td><td colspan="2" rowspan="5">Grand Ballroom
A+B
시상식 및
환영만찬</td><td colspan="2" rowspan="5">Grand Ballroom C
장비/프레스룸</td><td>Session 8
한국작가</td></tr>
<tr><td>18:00-18:30</td><td>전체총평</td></tr>
<tr><td>18:30-19:00</td><td>휴식</td></tr>
<tr><td>19:00-19:30</td><td rowspan="2">Sapphire
환송만찬</td><td rowspan="2">석식/
한국 측 귀가
(21:00-)</td></tr>
<tr><td>19:30-20:00</td></tr>
<tr><td>20:00-21:00</td><td colspan="5"></td></tr>
</table>

* 일자별 상세 일정 및 내용은 [2] 사업 상세 내용 참조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17. 1.-3.	· **개최지 및 공동주최 기관 확정**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및 인천영상위원회와 공동개최 협의 (17.1.-2.) - 인천광역시 내부 보고 및 공동개최 확정 (17.3.)
2017. 4.-6.	· **2017년도 본회의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기획** - 한국방송작가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 배석 사전회의 진행 (17.4.) - 본회의 주제 및 프로그램 확정 (17.5.) - 행사장 후보 답사 및 최종 선정 :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17.6)
2017. 7.-8.	· **컨퍼런스 참가자 및 시상식 관계자 초청** - 초청자 확정 및 공식 초청장 발송, 발표자・토론자・좌장 선정 (17.7.-8.) - 수상자 및 축하공연 팀 선정, 섭외 진행 (17.7.-8.) · **공동개최 협약 및 전문 업체 선정** - 인천광역시 예산 매칭 금액 확정, 공동개최 협약 체결 (17.8.) - 운영연출대행 및 동시통역 업체 선정, 계약 체결 (17.8.-9.)
2017. 9.	· **자료 번역, 디자인, 제작물, 숙소 및 차량 배치 등 세부 행사준비** - 자료집 번역 및 인쇄, 발표영상 및 상영회 영상 자막 작업 (17.7.9.-10.) - 참가자 항공 및 비자관련 업무, 숙소, 차량 배치 진행 (17.9.-10.) - 행사장 전체 디자인 및 설치물 제작 (17.9.-10.) - B2B(개별 비즈니스 미팅) 희망자 접수 및 배치 (17.7.9.-10.)
2017. 10.	· **행사장 최종 계약 및 후원사 확정** - 파라다이스시티 후원 확정 및 계약체결, 포스코건설 후원 확정 (17.10.) · **세부 프로그램 최종 확정 및 운영 인력 교육** - 통역 서포터즈 선발 및 교육 (17.10.) - 큐시트 및 시나리오, 운영매뉴얼, 업무분장 확정 (17.10.) · **보도자료 배포 및 프레스 신청 접수** - 사전 보도자료 배포 (재단, 문체부, 인천시) (17.10.)
2017. 10. 30 - 11. 2	·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개최** - 10. 30. : 참가자입국 / B2B, 상영회, 한국촬영상담회 / 시상식 및 환영만찬 - 10. 31. : 컨퍼런스 본회의 / 환송만찬 - 11. 1. : 인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 11. 2. : 해외 참가자 출국
2017. 11.-12	· **행사 종료 : 정산 및 결과보고** - 참가자 감사 서한 발송 및 만족도 조사 진행 (17.11.) - 컨퍼런스 녹취록 작성 및 전체 영상, 사진, 보도 내용 취합 (17.11) - 행사 비용 정산 및 결과보고 (17.11.-12.)

2 사업 상세 내용

1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및 환영만찬

❍ 일 시 : 2017. 10. 30(월) 18:00-21:00

❍ 장 소 :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1F, 그랜드볼룸

-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 교류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각국의 유력 작가-제작자와 우수 배우 간 교류 기회를 확대

시간	내용
18:00-18:55	[Grand Ballroom] **제 12 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및 환영만찬** - 개회사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곽영진 이사장 - 축 사 : 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 쿠라우치 히토시 이사장 - 환영사 :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전성수 부시장 대독) **[제 12 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시상식 수상자 및 축하공연]**  **여자 배우 부문 : 임윤아 (한국)** • <왕은사랑한다>(2017), <THE K2>(2016), <무신조자룡>(2016) <총리와 나>(2014), <사랑비>(2012), <신데렐라맨>(2009) 외 •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자 인기상(2017) •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아시아 스타상(2016)  **남자 배우 부문 : 뤄진 (중국)** • <금수미앙>(2016), <다이아몬드러버>(2015), <파파부친다>(2015) <왕의여인>(2012), <미인심계>(2010), <삼국>(2010) 외 • 제2회 웨이보영화의밤 가장 기대되는 남자배우상(2017) • 중국TV 우수 배우 페스티벌 남자배우상(2015)  **축하공연 : 크로스진 (CROSS GENE)** • 신(보컬), 타쿠야(보컬), 용석(보컬), 상민(랩), 세영(보컬) • 소속사 : 아뮤즈, 아뮤즈 코리아 • 데뷔 : 2012년 미니 앨범 [TIMELESS : BEGINS] • 제21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신인가수상 (2013)
18:55-21:00	**[환영만찬]** - 건배사 : 인천영상위원회 임순례 운영위원장 - 프레스 이동 / 참가자 석식

[시상식 및 환영만찬 주요사진]



▲ 시상식 및 환영만찬 회장 전경 : 그랜드볼룸



▲포토월 남자배우부문 수상자 : 뤄진



▲포토월 여자배우부문 수상자 : 임윤아



▲포토월 축하공연팀 : 크로스진



▲개회사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곽영진 이사장



▲환영사 : 인천광역시 전성수 부시장



▲오프닝 공연 : 사물놀이 풍연 · 비보이 필올라잇



▲수상자 및 참가자

2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본회의

❍ 일 시 : 2017. 10. 31(화) 18:00-21:00

❍ 장 소 :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1F, 그랜드볼룸

- 각 국 드라마 시장 현황과 제작 기법 공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한 선제적 논의를 통해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육성에 기여

시간	내용
09:00-09:30	[Grand Ballroom] **제 12 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본회의** - 컨퍼런스 참가자 등록
09:30-09:35	- 전 참가자 사진촬영
09:35-10:00	**컨퍼런스 개회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 - 컨퍼런스 소개 영상 - 참여 작가 및 제작자 소개 - 컨퍼런스 모더레이터 소개 (성균관대학교 백선기 교수)
10:00-10:40 (40')	**세션 1 : 한국 제작자 –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김연성 / 스타콜라보 미디어 사업본부 이사** • KBS 미니시리즈 <성균관 스캔들> • SBS 미니시리즈 <별에서 온 그대>, <펀치>, <용팔이> 등 15개 작품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참여
10:40-11:30 (50')	**세션 2-1 : 일본 제작자 – 일본의 콘텐츠 비즈니스 현황**  **쿠보타 사토시 / ㈜후지TV 제작자** • <데릴사위> (2003), <이혼변호사> (2005), <위험한 아네키>, <의룡> (2006), <도쿄타워> (2007) 등 • 2006 더 텔레비전 감독상 <의룡>, 2014 IQIYI 어워즈 <이상한 여름> **세션 2-2 : 일본 제작자 – 드라마'정령의 수호자' : 국경은 넘되, 예산은 넘지 않게**  **카타오카 히로시 / NHK엔터프라이즈 디렉터** • 대하 판타지 <정령의 수호자> 시즌1, 3 (기획 겸 감독) • 대하 드라마 <천지인>, <겐로쿠 요란> 등 • ABU 최우수상 <천지인>, ATP상 총무대신상 <정령의 수호자> 시즌1
11:30-12:20 (50')	**세션 3-1 : 중국 제작자 – <진혼가> : 웹툰 원작드라마의 새로운 도전**  **류링 / YOUKU 제작자** • <스타의 기억 - 중생지명류거성> CP • <진혼가> 시즌1, <역광지련>, <아위궁광>, <주삼계> 제작 **세션 3-2 : 중국 제작자 – 웹드라마 '무증지죄 (无证之罪)'**  **루싱 / 동양삼상미디어 감독** • 베이징영화대학 감독박사 • 드라마 <봉신> 조감독 • 드라마 <무증지죄> 감독

시간	내용
12:20-13:40 (80')	[Sapphire] **중식 및 휴식**
13:40-14:00 (20')	[Grand Ballroom] **한국 촬영 지원 소개 / 파라다이스시티 촬영 지원 소개**
14:00-14:40 (40')	**세션 4 : 특별초청세션 비아시아 (미국)** * 2017 년도 신설  **코트니 맥라클란 / 라쿠텐 비키 영업부장** • <UP10TION, Please!> • 숨피 X JYP 오디션 프로그램 <Rising Legends> • 숨피 어워즈
14:40-15:20 (40')	**세션 5 : 특별초청세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티탄 헤르마완 / MNC Pictures 전무이사** • TV 시리즈 <오토바이 펭콜란> (2015), <은퇴한 깡패들> 시즌 1-3, <세상이 바뀌다> (2017), 영화 <98년의 뒷이야기> (2015), <3 Dara> (2015), <7/24> (2014)
15:20-16:00	Coffee Break
16:00-16:40 (40')	**세션 6 : 중국 작가 – 드라마'국민대생활': 드라마의 기본은 스토리, 감정, 인물이다**  **루치 /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국가 3급 작가** • 드라마 <생활계시록>, <국민대생활>, <아적붕우진백로소저> • 마이크로 무비 <마을동화>
16:40-17:20 (40')	**세션 7 : 일본 작가 – 드라마'결혼 못하는 남자': 일본판, 한국판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자키 마사야 /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 <결혼 못하는 남자>, <우메짱 선생>, <하얀 봄>, <특명계장 타다노 히토시>, <저승사자입니다> • 1992 제5회 후지TV 영 시나리오 대상, 2013 제21회 하시다상
17:20-18:00 (40')	**세션 8 : 한국 작가 – 드라마'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박재범 /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 OCN <신의퀴즈> 시즌1(2010), 시즌2(2011), 시즌3(2012), 시즌4(2014) KBS2 <김과장> (2017), <굿닥터> (2013), <블러드> (2015) • 2013년 제6회 코리아드라마 어워즈 작가상
18:00-18:30	**총평 및 폐회**
18:30-19:00	휴식
19:00-21:00	[Sapphire] **석식**

* 컨퍼런스 본회의 녹취록은 [별첨4] 참조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본회의 주요사진]



▲ 컨퍼런스 참가자 및 참관인 입장



▲ 컨퍼런스 참가자 및 참관인 입장



▲ 컨퍼런스 참가자 단체사진



▲ 컨퍼런스 회장 전경



▲ 모더레이터 : 성균관대학교 백선기 교수



▲ 무대 전경 : 제작자 세션 발표자 및 토론자



▲ 한국제작자세션 발표 : 김연성



▲ 일본제작자세션 발표 : 쿠보타사토시, 카타오카히로시



▲ 중국제작자세션 발표 : 류링



▲ 중국제작자세션 발표 : 루싱



▲ 경청하는 참가자



▲ 질문하는 취재진



▲ 특별초청세션 미국 발표 : 코트니맥라클란



▲특별초청세션 토론 : 에스테파니아아르테아가



▲ 일본작가세션 발표 : 오자키마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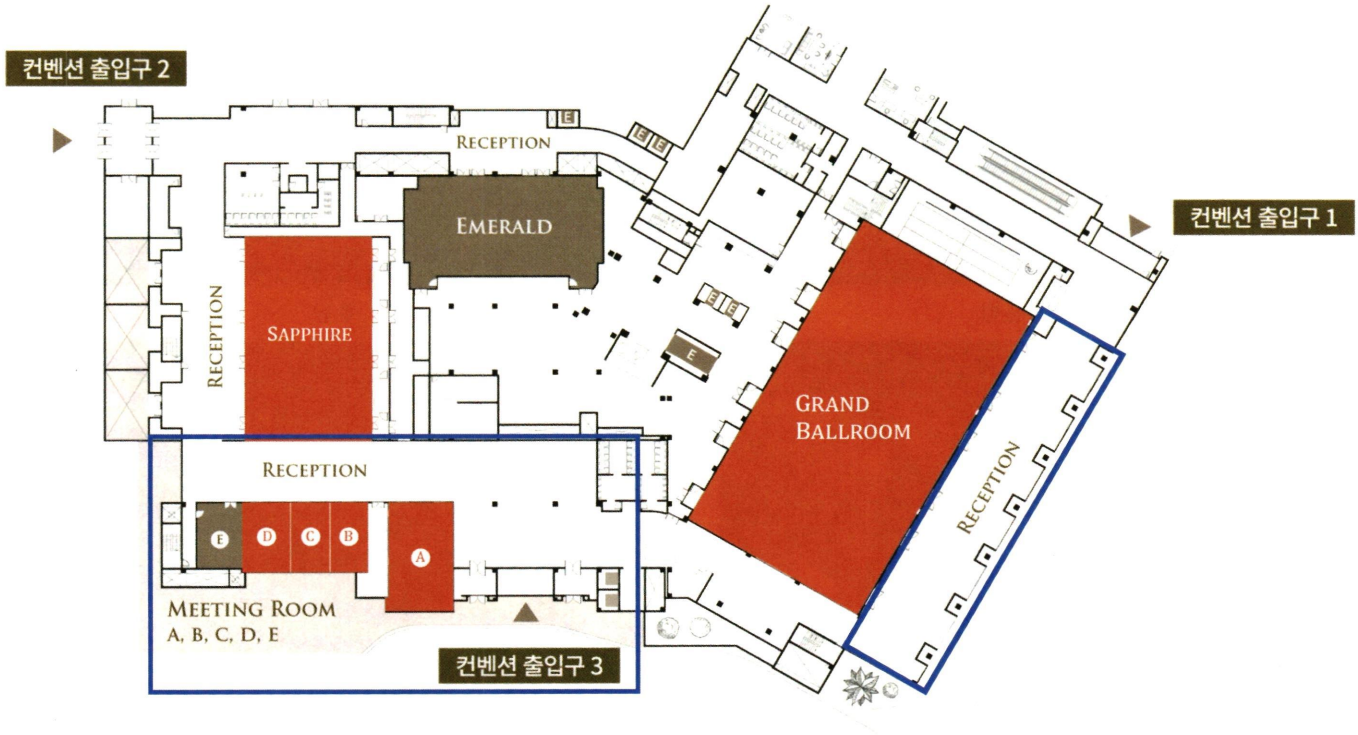


▲ 한국작가세션 발표 : 박재범

3 사전부대행사 (B2B / 특별상영회 / 작가·제작자 교류회 / 드라마콘텐츠전시)

❍ 일　시 : 2017. 10. 30(월) 15:00-17:00

❍ 장　소 :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1F Meeting Room 및 로비



시간	내용
09:00-15:00	참가자 도착 및 HOTEL Check In
15:00-17:00	[Meeting Room A] **수상자 출연작 특별상영회**
	 15:00, 16:00 왕은 사랑한다 (여자배우부문 수상자 임윤아 출연작)
	 15:30, 16:30 금수미앙 (남자배우부문 수상자 뤄진 출연작)
	[Meeting Room B-C] B2B (**개별 비즈니스 미팅**) - ※참가자 상세 (1) 참조
	[Meeting Room **앞 로비**] **작가 제작자 교류회** - 컨퍼런스 참가 작가 및 제작자 간 자유롭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교류회
	[Grand Ballroom **앞 로비**] **드라마 콘텐츠 전시** - 참가국 대표 작품 포스터 및 드라마콘텐츠(DVD, 출연배우 친필사인, 포토북등)를 전시

(1) 개별비즈니스미팅 (B2B)

- 각 국 참가자 대상 미팅 희망자를 사전 매칭 후 장소와 통역을 제공하여 신규 비즈니스 활로 개척 및 국제 공동제작 논의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

* 희망자 매칭 및 해당 언어 통역 인원 배치 / 총 2시간 19건 진행

[15:00-15:40]

NO	회사명	참가자	주요논의내용
1	베이징윈라이우문화미디어	판지에팅	극본제작 협력 및 작가교류 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정윤정	
2	동양삼상미디어	양샤오쥔	<굿닥터> 중국저작권 구매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재범	
3	유스토리나인	조은영, 김홍섭	공동 제작 및 교류 협의
	당덕 TV/영상 프로그램	류팡	
4	삼화네트웍스	윤은정	공동 제작 및 교류 협의
	PCCW Media Group	샌디 궉, 멕 리, 헨리 펑	
5	Mediacorp	리웅만총, 춘화리	공동제작 및 교류 협의
	JTBC	조준형, 송원섭	
6	Abs-Cbn	루엘 바야니, 마크 앤서니 가일	극본제작 협력 및 작가교류 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은희, 윤은경	

[15:40-16:20]

NO	회사명	참가자	주요논의내용
1	베이징윈라이우문화미디어	판지에팅	극본제작 협력 및 작가교류 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재범	
2	동양삼상미디어	양샤오쥔	<미생> 중국판 제작 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정윤정	
3	당덕 TV/영상 프로그램	류팡	공동 제작 및 교류 협의
	팬엔터테인먼트	김희열, 전산	
4	Eccho Rights	윤정연	한국드라마 유럽지역 방영논의
	제리보이스콘텐츠	김옥수	
5	삼화네트웍스	윤은정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제작 협의
	MNC Pictures	티탄 헤르마완, 필리아디 쿠스마라	
6	미디어코프	리웅만총, 춘화리	중국-싱가폴 공동제작 협의
	베이징 영상예술학회	장롄성	
7	Broadcast TV Thai	아루노샤 바누판	태국판 <별에서 온 그대> 제작 협의
	HB엔터테인먼트	오남석	
8	Abs-Cbn	루엘 바야니, 마크 앤서니 가일	필리핀-일본 공동제작 협의
	NHK엔터프라이즈	오치 아츠시, 카타오카 히로시	

[16:20-17:00]

NO	회사명	참가자	주요논의내용
1	당덕 TV/영상 프로그램	류팡	극본제작 협력 및 교류 논의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재범	
2	Eccho Rights	윤정연	한국드라마 유럽지역 방영논의
	콘텐츠케이	마정훈	
3	유스토리나인	조은영, 김홍섭	<왕은 사랑한다> 일본 방영 논의
	NHK엔터프라이즈	오치 아츠시, 카타오카 히로시	
4	Broadcast TV Thai	아루노샤 바누판	한국드라마 태국 리메이크 협의
	팬엔터테인먼트	김희열, 전산	
5	Abs-Cbn	루엘 바야니, 마크 앤서니 가일	한국드라마 필리핀 방영 협의
	삼화네트웍스	윤은정	

[개별비즈니스미팅(B2B) 주요사진]



▲ 출입구 안내 배너



▲ 테이블 안내 번호표



▲ 개별미팅 : 유스토리나인 - NHK엔터프라이즈



▲ 개별비즈니스미팅(B2B) 회장 전경



▲ 개별미팅 : MediaCorp - JTBC



▲ 개별비즈니스미팅(B2B) 회장 전경



▲ 개별미팅 : Broadcast TV Thai - HB엔터테인먼트



▲ 개별미팅 : 팬엔터테인먼트 - 당덕 TV/영상 프로그램

(2) 수상자 출연작 특별상영회 [2017년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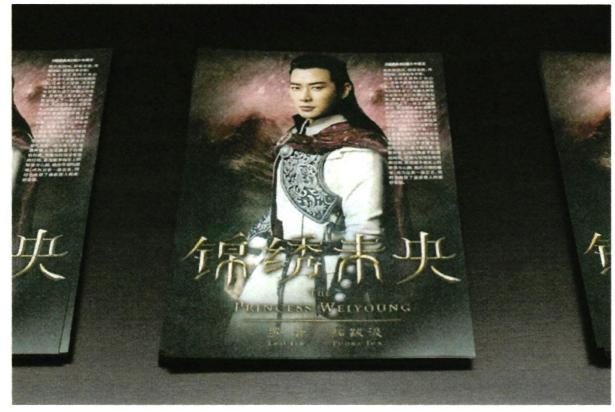
- 해당연도 특별표창 수상자의 대표작을 4개국어 자막과 함께 상영하여 관계자에 다양한 국가의 작품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작품의 해외 진출을 모색

시간	상영작품
15:00, 16:00	**여자배우부문 수상자 임윤아 출연작 : 왕은 사랑한다(한국)** • 연출 : 김상협 / 극본: 송지나 / 제작사 : ㈜유스토리나인 / 방송 : MBC • 출연 : 임시완, 임윤아, 홍종현 외 • 방송 : 2017 년 7 월 17 일 - 2017 년 9 월 19 일 • 매혹적인 아름다움 이면에 뜨거운 욕망과 정복욕을 품은 세자 왕원과 강직한 품성, 사랑의 열정을 지닌 왕족 린의 브로맨스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산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15:30, 16:30	**남자배우부문 수상자 뤄진 출연작 : 금수미앙(锦绣未央, 중국)** • 연출 : 이혜주 / 프로듀서 : 왕영 / 방송 : 동방위성텔레비전, 중화 TV(한국) • 출연 : 탕옌, 뤄진, 우젠하오, 마오샤오퉁, 리신아이 외 • 방송 : 2016 년 11 월 11 일 - 2016 년 12 월 9 일 • 중국 남북조 시대, 나라를 잃고 온갖 고초를 겪어가며 다른 신분으로 복수와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수상자 출연작 특별상영회 주요사진]



▲ 출입구 안내 배너



▲ 상영작 소개 팜플랫



▲ 관람하는 참가자



▲ 관람하는 참가자

(3) 작가・제작자 교류회 [2017년도 신설]

- 본 회의 외 시간에 각 국 작가와 제작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과 통역을 제공, 관계자 간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16년도 설문결과 토대로 신설 → 17년도 설문 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행사'(25.8%)로 선정
* 17년도 참가자 설문 응답 중 : "한국 작가들과 일본 작가들은 1일 차의 교류회를 계기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친목 교류를 하게 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작가·제작자 교류회 주요사진]



▲ 테이블 안내 POP



▲ 교류하는 참가자와 통역 서포터즈



▲ 참가자 프로필 자료집을 보며 교류하는 참가자



▲ 교류하는 참가자와 통역 서포터즈



▲ 교류하는 참가자와 통역 서포터즈



▲ 교류하는 참가자들

(4) 드라마 콘텐츠 전시

- 참가국의 대표 작품 포스터 및 드라마 콘텐츠*를 전시하여 각 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국가 별 현 트렌드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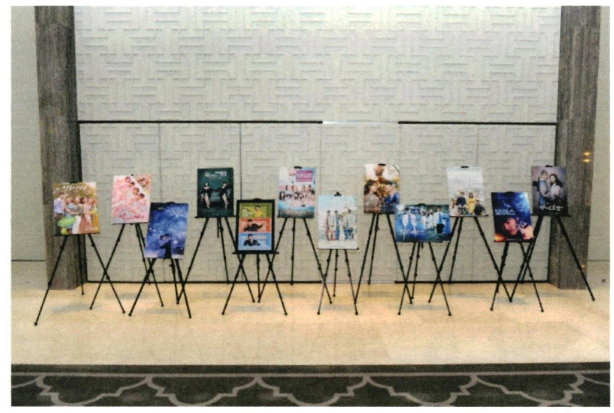
* 전시 드라마 콘텐츠 : DVD, 출연배우 친필사인, 대본, OST, 포토북, 기념상품 등

* '품위있는 그녀', '왕은 사랑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국내 화제작 43개 작품 및 일본, 중국,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참가자 대표 드라마 다수 참여

[드라마콘텐츠전시 주요사진]



▲ 드라마 콘텐츠 전시 부스



▲ 드라마 포스터 전시



▲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 관람하는 참가자들



▲ 관람하는 참가자들



▲ 관람하는 참가자들

4 지역 로케이션 소개 [상담회 및 부스 / 로케이션 사진전 / 촬영지원 안내세션]

❍ 일 시 : 2017. 10. 30(월) 15:00-17:00 외

- 개최지인 인천 및 서울, 부산 영상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참가자에게 지역로케이션 진행 시 지원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촬영유치를 도모

[2017년도 신설 : 한국로케이션 상담회, 인천시 촬영지원 안내 세션]

* 17년도 참가자 설문 응답 중 : "로케이션상담회가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 지속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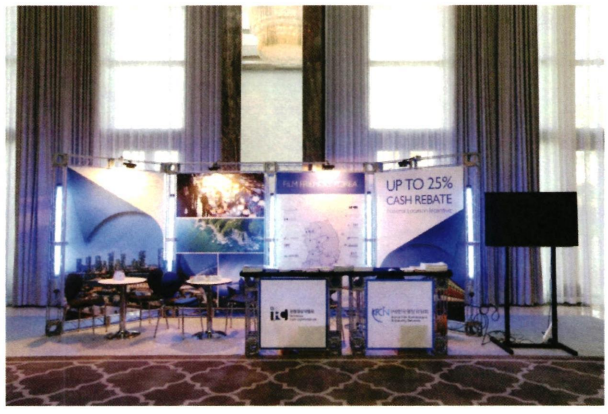
[지역로케이션소개 주요사진]



▲ 인천, 서울, 부산 로케이션 상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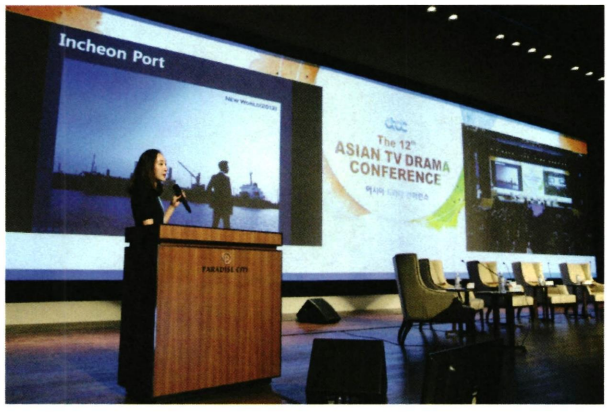
▲ 인천, 서울, 부산 로케이션 상담회



▲ 인천, 한국영상위원회 안내 부스



▲ 인천 로케이션 사진전



▲ 인천시 촬영지원 안내 세션



▲ 인천시 주최 지역 홍보 및 환송만찬

5 인천광역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 일 시 : 2017. 11. 1(수) 09:00-21:00

-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신규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고, 참가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17년도 공동 주관기관인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운영

[인천 드라마 촬영후보지 투어 일정]

	1호차	2호차	3호차
09:30	집합		
10:00-10:30	파라다이스 세트장		
10:30-11:10	이동		
11:10-11:40	호수공원/ 청라 커널웨이		
11:40-12:20	이동		
12:20-13:30	중식		
13:30-15:00	차이나타운/자유공원/아트플렛폼		
15:00-15:30	이동		
15:30-15:50	수상택시	G타워	북성포구
15:50-16:20	트라이볼→G타워 이동	트라이볼→수상택시 이동	이동
16:20-16:50	G타워	수상택시	센트럴파크 이스트 보트하우스 (G타워까지)
16:50-17:20	NC큐브		수상택시
17:20-17:30	이동		
17:30-19:00	석식		
19:00-19:10	이동		
19:10-21:30	트리플 스트릿 / 자유시간		숙소 복귀
21:30-	숙소 복귀		-

[드라마 촬영후보지 투어 주요사진]



▲ 투어하는 참가자들 : 촬영스튜디오



▲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방문



▲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방문



▲ 교류하는 한일 작가들



▲ 투어하는 참가자들 : 인천 차이나타운



▲ 투어하는 참가자들 : 인천 차이나타운



▲ 팸투어 참가자 기념촬영 : 중국 및 동남아



▲ 투어하는 참가자들 : 송도 ifez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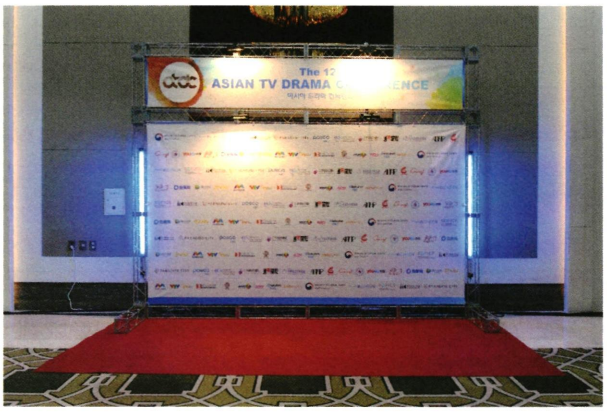
[행사 제작물 주요사진]



▲ 행사장 전경 및 현수막



▲ 무대



▲ 포토월



▲ 참가자 ID카드



▲ 부스 및 사진전 설치



▲수상자 상패 디자인



▲ 발표작품영상 (자막 삽입 등 후반편집)



▲ 자료집 및 참가자 기념품, 단체티 등

3 사업 추진 성과

3-1 초청 · 홍보 : 글로벌 컨퍼런스로의 성장발판 마련 및 신시장 활로 개척

□ (역대 최다국가 · 최다인원 참가유치)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신규 초청 국 발굴로 총 11개국 관계자 200명 초청 달성 및 컨퍼런스 최초로 비아시아권역(미국, 스웨덴) 초청 실현

* 17년도 참가국 : 한국, 일본, 중국(*홍콩포함), 싱가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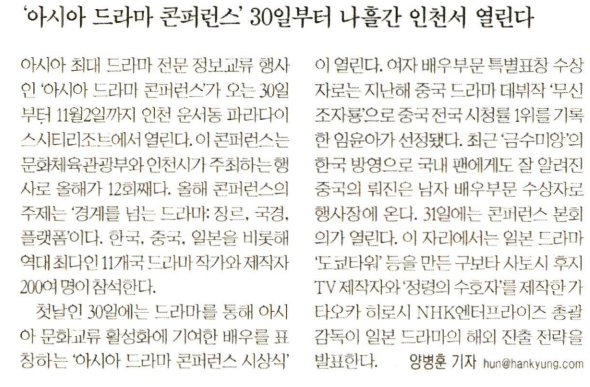
* 사드 갈등으로 금년도 유사 행사에 중국 측 참여가 매우 저조했음에도 불구, Youku, 텐센트, 베이징영상예술학회 등 중국 대표 단체 7사에서 23명이 참여

□ (영미권 · 동남아 특별세션 신설) 미국 대표 온라인플랫폼 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 Media Group이 발표를 진행, 신규 시장 모색 및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Rakuten VIKI	• 전세계 유저들이 시청하는 미국의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영상 콘텐츠를 200 여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중 • 2016년 한류 드라마를 소재로 한 <드라마 월드> 자체 제작
MNC PICTURES	• 1997년 설립된 인도네시아의 대표 미디어 그룹 • 공중파 방송 송출, 콘텐츠 제작, 라디오, 인쇄사업 등을 전개하며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가장 큰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 • RCTI, MNCTV, GTV, INEWS등 인기 방송 채널 보유

* MNC Media Group의 경우 컨퍼런스 참가를 계기로 삼화네트웍스등 한국 유수 제작사와 공동 제작 협의 달성

□ (컨퍼런스 대외인지도 향상) 국내 언론 보도 79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언론보도 약 26여 건 등 총 96건의 보도성과로 국내외 컨퍼런스 인지도 및 관심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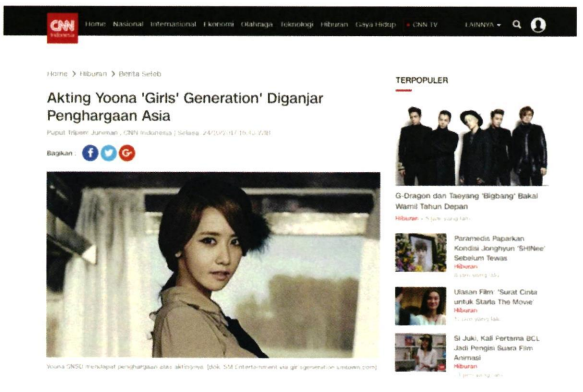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부터 나흘간 인천서 열린다

아시아 최대 드라마 전문 정보교류 행사인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12회째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열린다. 여자 배우부문 특별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임윤아가 선정됐다. 최근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은 남자 배우부문 수상자로 행사장에 온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만든 구보타 시노시 후지TV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가타오카 히로시 NHK엔터프라이즈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한국경제에 보도된 컨퍼런스 관련 지면기사



▲ CNN Indonesia에 보도된 컨퍼런스 관련 온라인기사

3-2 주제 · 내용 : 산업 현황을 반영한 선제적 논의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 **(업계 최신동향 및 이슈 반영)** 16년도 사업 종료 후 참가자 설문조사 및 협업사 간담회를 통해 최신 업계 동향과 현업인의 니즈(needs)를 반영한 사업 방향 및 본회의 주제를 설정

*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사업기획 및 본회의 주제 선정과정

(1차) 16년도 참가자 설문조사를 통해 차년도 희망주제 취합 (16.11.30-12.7)
(2차) 참가자 희망주제, 업계최신이슈 등을 종합하여 17년도 본회의기본방향 수립 (17.2.-3.)
(3차) 일본방송작가협회, 전일본TV방송제작사연맹 측 내부회의를 통한 주제제안 취합 (17.4)
(4차)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 배석 사전추진간담회를 통한 17년도 사업기획 및 주제 선정 (17.4.24)

□ **(창작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미국ABC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굿닥터>의 원작자 박재범 작가를 비롯, 아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제작자, 글로벌플랫폼의 발표와 토론을 구성하여 최신 지식 공유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배양의 토대 마련

[17년도 컨퍼런스 본회의 주제 -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

- 아시아드라마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김연성 / 한국 스타콜라보 이사)
- 국경은 넘되, 예산은 넘지 않게 (카타오카 히로시 / 일본 NHK엔터프라이즈 디렉터)
- 웹툰 원작드라마의 새로운 도전 (류링 / 중국 YOUKU 제작자)
-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일본판, 한국판의 비교 (오자키 마사야 / 일본 작가)
- 드라마 <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박재범 / 한국 작가) 등

□ **(드라마산업 인재 양성)** 관련 분야 지망생 및 미디어 학과 재학생 등의 참여 기회를 넓혀 전문가 중심의 컨퍼런스에서 인재 양성의 장으로 역할을 확장

* 드라마프로듀서스쿨 수강생 30명,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수강생 30명, 그외 관련학과 재학생 및 미디어산업 분야 지망생 40여 명 참여



▲ 컨퍼런스 본회의 중 토론하는 참가자



▲ 연사에게 질문하는 학생

3-3 기획 · 운영 : 교류 기회 확대로 업계 네트워크 형성의 장 역할을 수행

□ **(통역 및 교류프로그램 강화)** 공식 서포터즈 도입으로 통역 인원을 확충하고 '작가-제작자 교류회'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행사의 기본 목적인 업계 네트워킹의 장 역할을 강화

*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통역 서포터즈 운영

(모집) 공고 및 접수 (17.9.29-10.11), 면접 (17.10.13), 발표 (17.10.16)
(교육) 팸투어 관련 1차교육 (17.10.28), 행사 전체 교육 및 통역 배치 (17.10.29)
(활동)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행사 진행 (17.10.30-11.2)
(종료) 서포터즈 해단 및 활동비 지급, 활동증명서 발급 (17.11.)

* 17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응답 중 : "수년 간 참가 해 왔는데 특히 올해는 각 나라 간 교류의 장이 전례 없이 많고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다" "한국 작가들과 일본작가들은 교류회를 계기로 개별적으로 친목교류를 하는 등 매우 유익했다", "개별교류 시간에도 통역의 협력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 "통역을 다수 배치해주어 더욱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등



▲ 교류하는 참가자들



▲ 통역 서포터즈의 도움으로 교류하는 참가자들

□ **(국제공동제작 도모)** 사전 희망자 매칭을 통해 약 20건의 개별 비즈니스 미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시장 다각화 및 국제공동제작 기획의 시작점을 마련

[17년도 개별비즈니스미팅(B2B) 주요 성과]

- <굿닥터> 중국저작권 구매 논의(동양삼상미디어-박재범 작가)
- <미생> 중국판 제작 논의(동양삼상미디어-정윤정작가)
- 한국드라마 유럽지역 방영논의 (Eccho Rights-제리보이콘텐츠, 콘텐츠케이)
- 한국-인도네시아 공동제작 협의 (삼화네트웍스-MNC미디어)
- 중국-싱가폴 공동제작 협의(미디어코프-베이징 영상예술학회)
- 필리핀-일본 공동제작 협의(Abs-Cbn- NHK엔터프라이즈)
- 한국-태국 리메이크 협의(Broadcast TV Thai-팬엔터테인먼트, HB엔터테인먼트) 등

□ **(현장의견수렴 및 이행)** 전년도 참가자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참가자 설문 시 행사 운영 평가가 역대 최고 만족도 점수인 평균 4.3점를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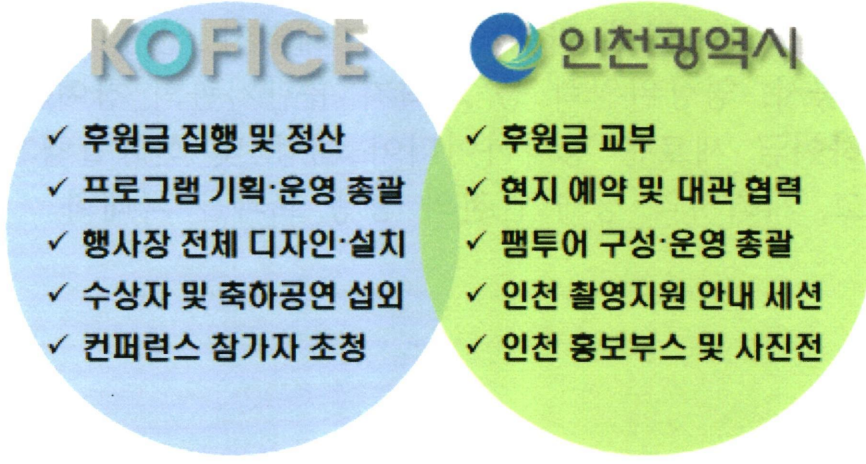
* 4.0:만족, 5.0:매우만족, '향후 컨퍼런스에 꼭 참가하겠다'=4.8점 달성

* 17년도 신설프로그램 : '작가-제작자 교류회', '수상자 출연작 특별상영회', '지역로케이션 상담회', '인천시 촬영지원 안내세션' 등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개선 게획 및 이행 여부]

기 존('16년)	개 선('17년)	이 행
✓ 프로그램 - 한·중·일 작가제작자중심 발표 및 토론 위주 - 동일국 간 소극적 교류 - B2B 외 한일토론회 시도	✓ 참가자 간 네트워크 강화 (형식) : 다국적 참가자 소그룹교류기회 확대 (진행) : 통역인원 강화로 언어 장벽 해소 (내용) : 공동제작 관련 구체적 논의 유도	- 교류프로그램신설 - 통역서포터즈 도입 - B2B 약20건 운영
✓ 초청 및 홍보 - 8개국 17단체 135명 - 국내 보도자료 일괄배포 - 동남아 특별 세션	✓ 글로벌 접점의 증대 (형식) : 참가국확대로 글로벌컨퍼런스 도약 (진행) : 해외언론초청 등 다국적 홍보 강화 (내용) : 영미권 등 非아시아 특별세션 신설	- 11개국200여명 참가 - 해외언론보도26여건 - 미국 특별세션 진행
✓ 드라마 촬영지 매칭 - 개최국 주요 관광지 및 드라마 촬영 후보 지역 탐방	✓ 개최지-콘텐츠제작 유기적 연결 (형식) : 개최지역 유관기관 연계 강화 (진행) : 작품구상에 연결되는 팸투어 구성 (내용) : 촬영 제작 지원 안내 세션 신설	- 인천광역시공동개최 - 촬영지팸투어진행 - 지역촬영지원상담회, 지원안내세션 신설

□ **(유관기관협업 및 지역상생)** 신흥영상문화도시인 인천광역시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개최지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는 촬영지 매칭 투어를 진행, 지역 경제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실현



5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타 권역 국가 참여확대)** 17년도 미주 특별초청에 이어 오세아니아, 유럽 등 타 권역 국가의 참가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확장된 협업 모델을 창출

□ **(실질적 비즈니스매칭 실적축적)** 향후 B2B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사 피칭 및 홍보 부스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연결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파생 비즈니스 실적 축적을 체계화

* 17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중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의 향후 과제 및 방향' : '관계자 간 교류'(4.7점),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4.6점) '

* 17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중 '건의 및 요구사항' : 'B2B 시간을 더 확대 했으면 함', '국가 간 협력프로젝트의 성공사례나 문제점등에 대한 정보를 희망' 등

□ **(교류대상과 기회의 확대)** 다양한 국가의 시장 관계자, 현장스탭, 학술자 등 교류 대상을 다양화하고 개별 교류 시간을 더욱 확충

* 17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중 '건의 및 요구사항' : ' 타국 작가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을 희망', '미국 시장과의 교류를 희망', '현장 스탭 간 교류의 장을 희망'.'각국의 드라마 관련 학술자들과 교류를 희망', '개별교류 시간 확대를 희망' 등

□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일정재정비)** 다양한 신규프로그램 확충에 따른 일자별 프로그램 재배치와 컨퍼런스 각 세션의 내용을 충실히 다룰 수 있는 본회의 일정의 재고

* 17년도 참가자 설문조사 중 '건의 및 요구사항' : ' 본회의를 하루에 끝내기에는 아쉬우므로 일정 추가를 희망', '유익한 세션이 많은 만큼 시간여유가 더욱 있었으면 함'.'세션 별 발표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함', '1일차 프로그램의 확대와 2,3일차 일정의 재고'등

□ **(개최지역 유관기관 협력 확대)** 차년도 개최지 선정 과정을 체계화하고 지역 관광 공사, 영상위원회 등 개최지 유관기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참가자로 하여금 새로운 창작아이디어 배양 및 신규촬영지 구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최지역 경제 발전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 참고 자료

1.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2. 컨퍼런스 참가자 상세 명단
3.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결과
4. 컨퍼런스 본회의 녹취록

별첨1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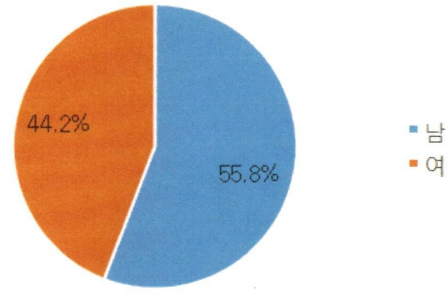
□ 일시: 2017. 11. 7(화) - 11.30(목)
□ 설문인원: 컨퍼런스 참가자 약 200여 명 중 43명 (약 25%)
□ 설문방법: 컨퍼런스 기간 종료 후 온라인 설문조사 (구글서베이 이용)

1 설문조사 참가자 통계 결과

(1) 성별

<표 1>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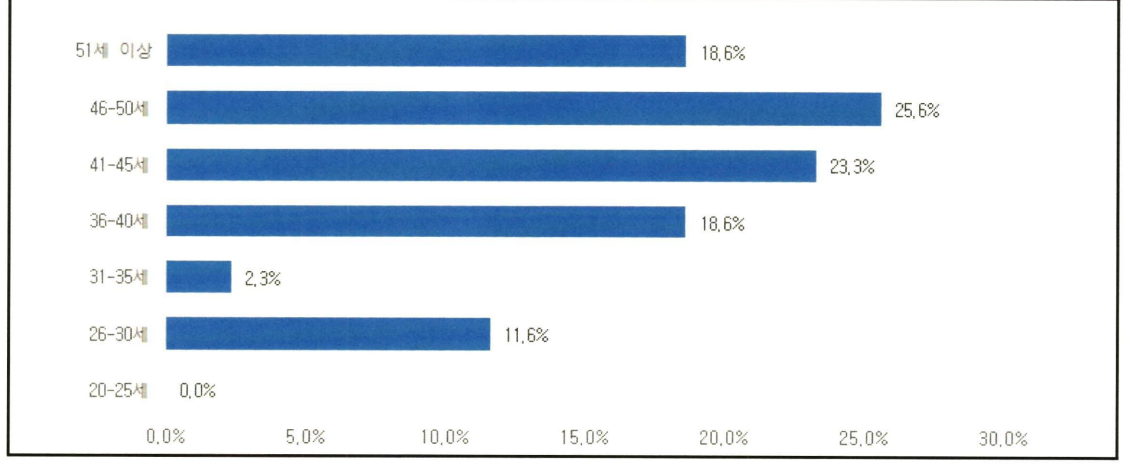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남	24	55.8
여	19	44.2
합계	**43**	**100**



(2) 나이

<표2> 응답자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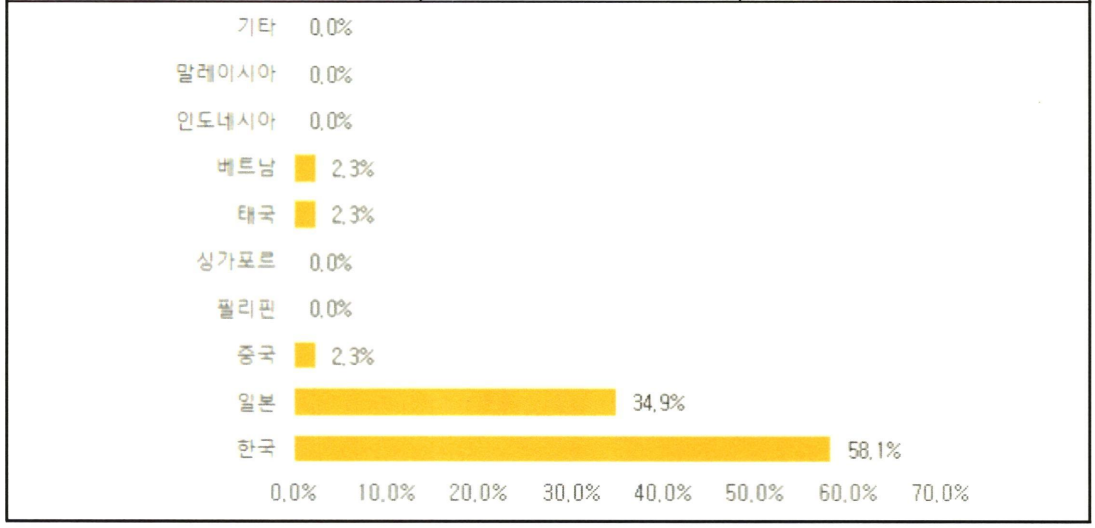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20-25세	0	0.0
26-30세	5	11.6
31-35세	1	2.3
36-40세	8	18.6
41-45세	10	23.3
46-50세	11	25.6
51세 이상	8	18.6
합계	**43**	**100**



(3) 국적

<표 3> 응답자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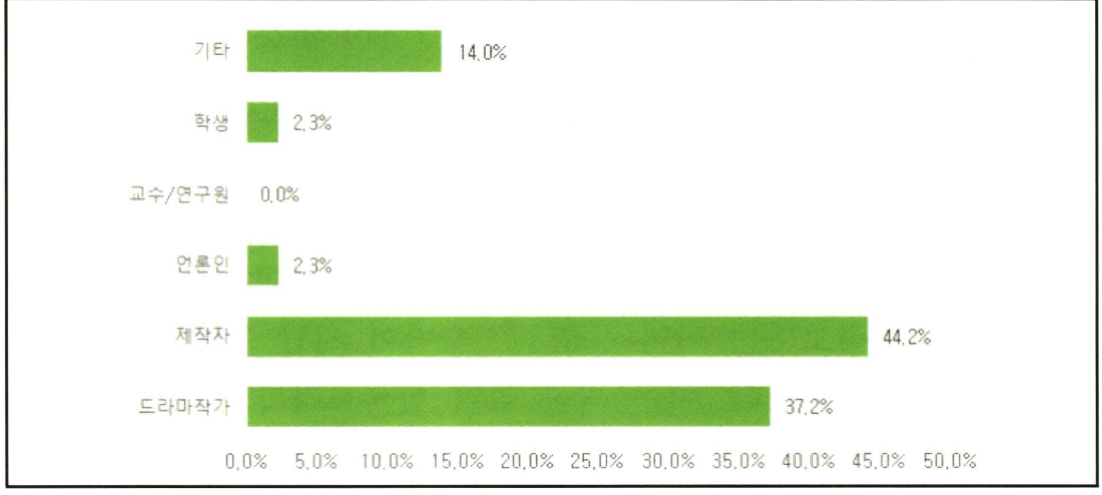
	빈도(명)	퍼센트(%)
한국	25	58.1
일본	15	34.9
중국	1	2.3
태국	1	2.3
베트남	1	2.3
합계	**43**	**100**



(4) 직업

<표 4> 응답자 직업

	빈도(명)	퍼센트(%)
드라마작가	16	37.2
제작자	19	44.2
언론인	1	2.3
교수/연구원	0	0
학생	1	2.3
기타	6	14.0
합계	**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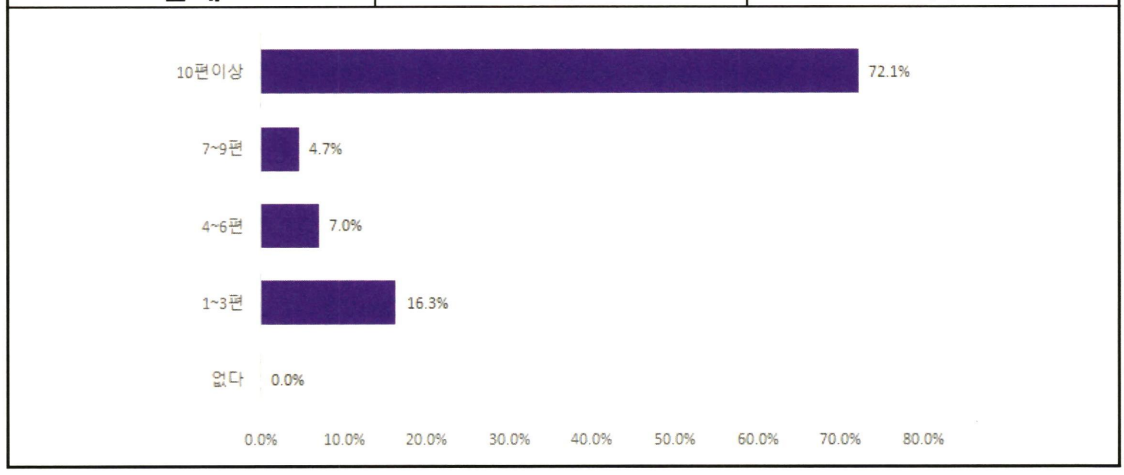
2 한국드라마에 대한 평가결과

(1) 한국 드라마 시청 경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으로 한국 드라마의 시청 경험과 좋아하는 드라마, 남녀 배우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전에 드라마를 시청했던 경험이 **10편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1명(72%)의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1-3편이 7명(16.3%), 4-6편이 3명(7.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 드라마 시청 경험

	빈도(명)	퍼센트(%)
없다	0	0.0
1-3편	7	16.3
4-6편	3	7.0
7-9편	2	4.7
10편이상	31	72
합계	**4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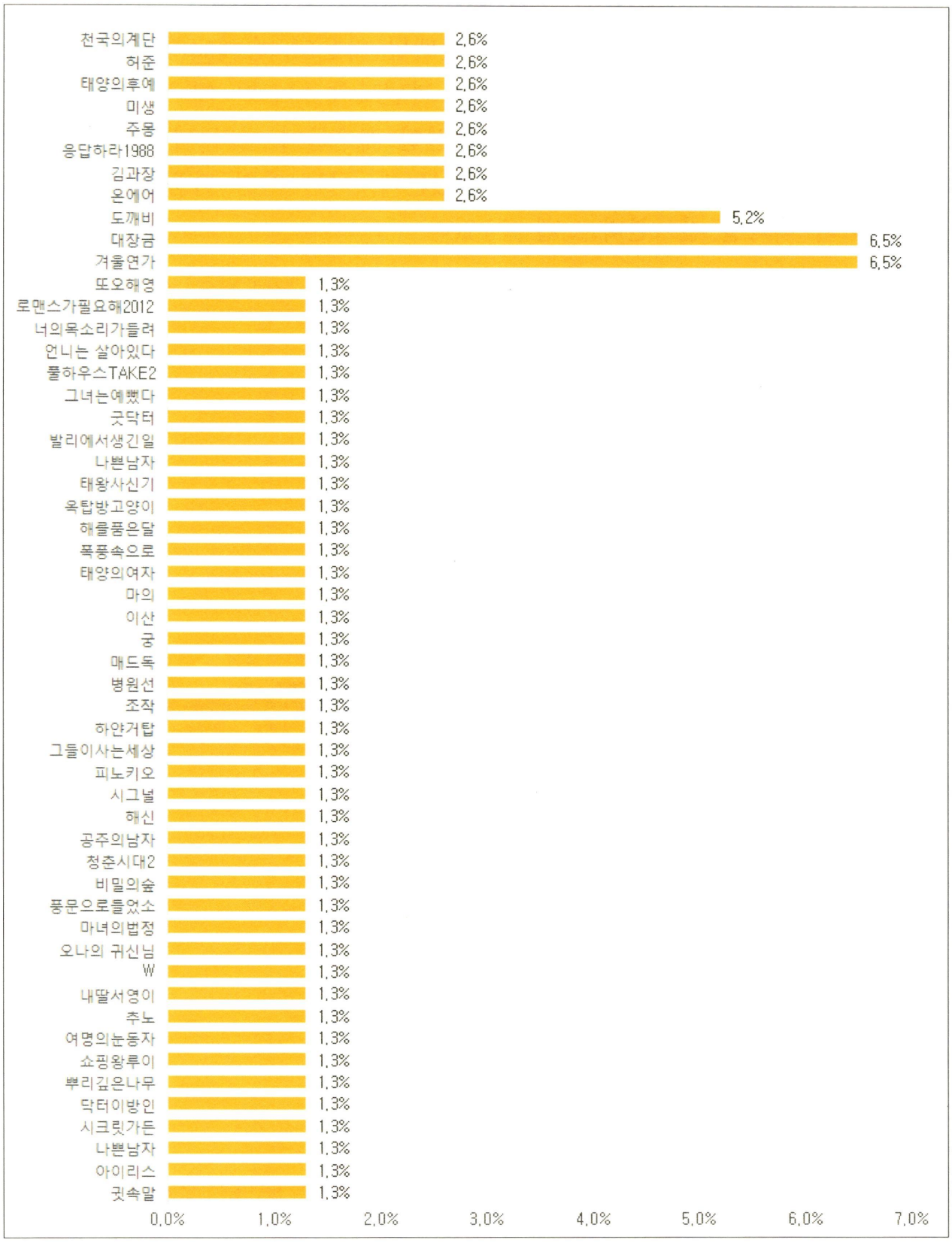
(2) 즐겨본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결과

이전에 시청했던 드라마 중 가장 즐겨보았던 한국 드라마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각각 대표 한류 드라마라 할 수 있는 **대장금**과 **겨울연가**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많은 득표(6.5%)를 얻었고**, 그 외 신작 중에서는 올해 화제작 **도깨비**가 **5.2%를 차지하며 뚜렷한 인기를 반증**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해외 국적의 응답자들과 비교하여 **일본 국적의 응답자들의 경우 신작보다는 이미 종영 후 수년이 지난 고전 작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들어 **한국드라마 시청이 OTT플랫폼을 이용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타 국가들과 달리, 아직도 종래와**

같은 지상파 혹은 케이블 TV를 이용한 시청이 주를 이루어 시차가 발생하는 일본 현지상황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표 6> 가장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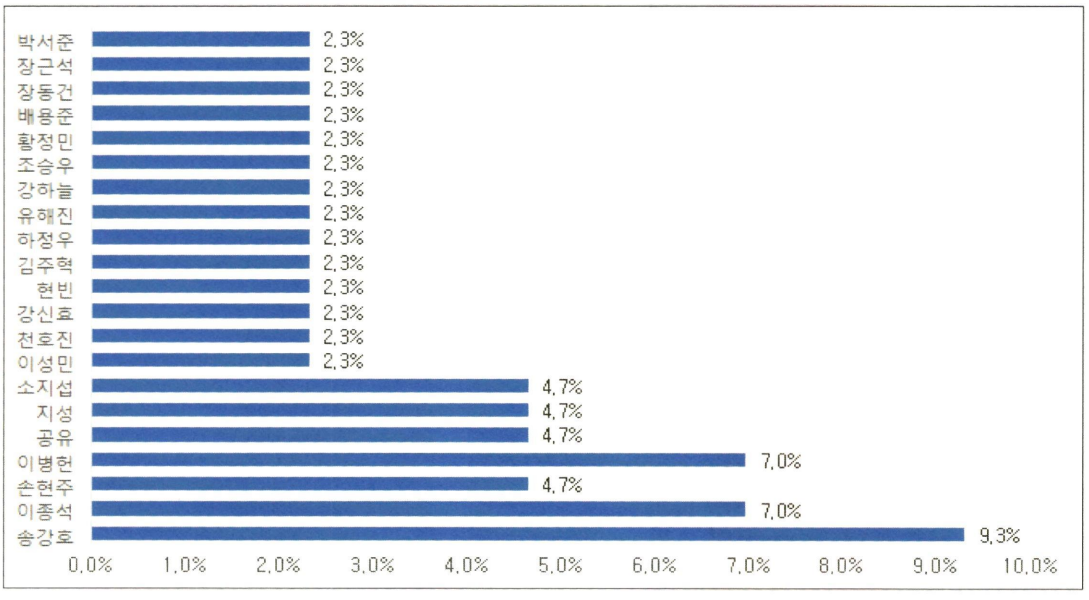
(3) 좋아하는 한국 남녀 배우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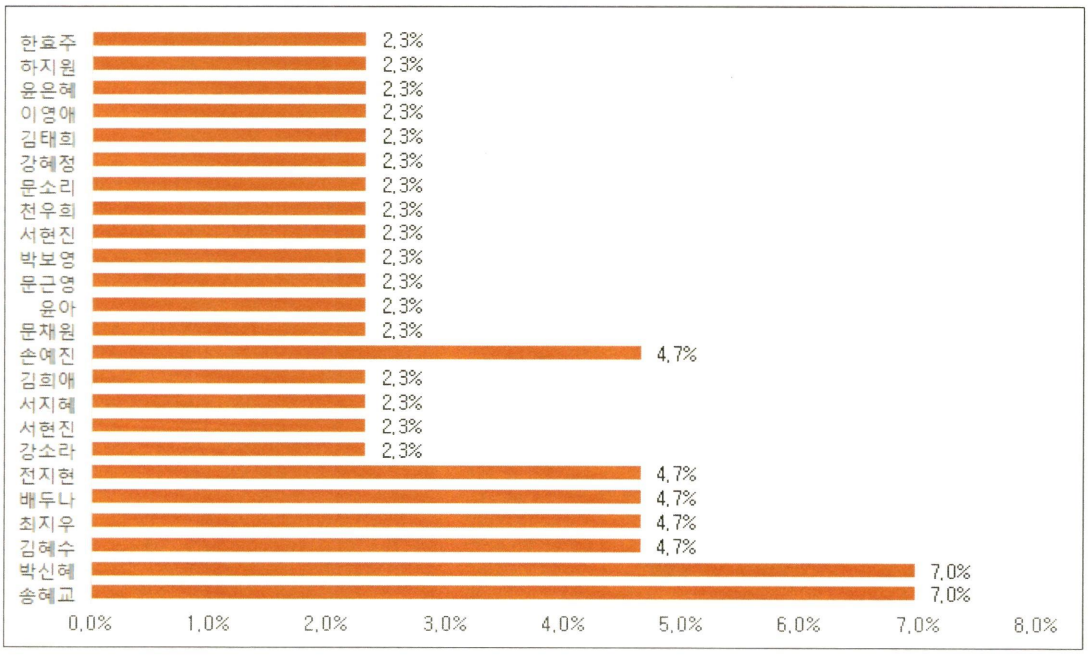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자 배우로는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다 득표자로는 9.3%를 차지한 배우 **송강호**가, 차순위에는 지난해 1위를 차지한 **이병헌**과 **이종석**이 7.0%의 득표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여자배우는 총 24명이 선택된 가운데, **송혜교**과 **박신혜**가 각 7.0%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과년도와 비교할 때 작년에 이어 배용준 등 기존의 유명 한류 스타보다는 **신인 배우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는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청 작품 및 선호도의 다양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가장 좋아하는 한국 남녀 배우





3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행사 관련 평가 결과

(1)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취지에 대한 인식과 평가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 취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참가자들에게 본 행사는 드라마 관계자 간 상호 교류와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취지에 대한 평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4.5점의 높은 동의율 (4점: 동의, 5점: 매우동의)을 얻어, 금년도 컨퍼런스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역할 수행 면에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8>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취지에 대한 결과

측정 항목	평균
드라마 관계자들이 상호교류 할 수 있는 자리로 적절	**4.5**
드라마 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에 적절	**4.5**
드라마 관계자 간 정보공유 기회제공	**4.4**
아시아문화 동질성 느낄 수 있는 정보제공	4.0
향후 작품 활동에 아이디어 제공	4.1
다른 국가드라마 이해/공감형성	4.1
국가 간 문화차이 이해	4.1



(2)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인식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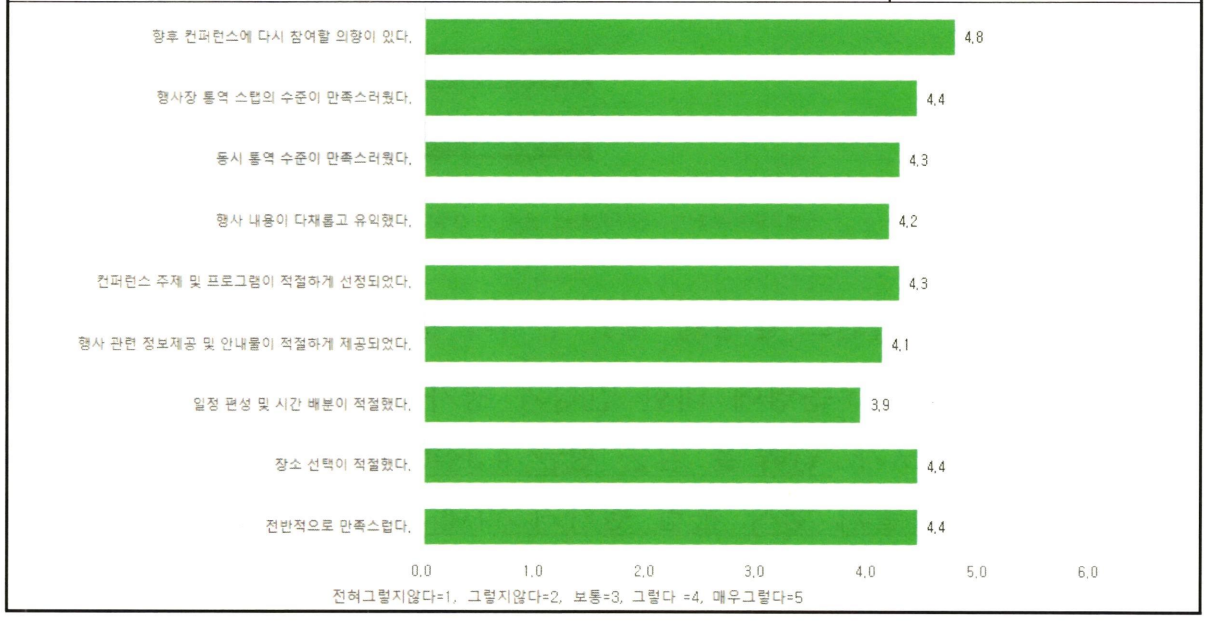
이번 컨퍼런스의 운영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을 넘는 평균 4.3점(4점: 만족, 5점: 매우 만족)을 기록하여 참가자들의 행사 운영 평가가 역대 행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사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장소 선정에 대한 만족도**'(4.4점)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작년도 설문조사에서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던 '**통역에 대한 만족도**'가 올해는 가장 높은 4.4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기획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수렴 및 이행 노력이 실제 행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이 가시적인 수치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컨퍼런스 참가**' 의사를 묻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전원이 '매우 동의'(5.0)에 가까운 4.8점을 기록한 점도 금년도 행사의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겠다.

그 외 '컨퍼런스 주제와 프로그램', '행사 내용'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나, 컨퍼런스 본회의가 1일에 진행되며 장시간 다수의 발표 세션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및 시간 배분**' 항목이 유일하게 '만족'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평가(3.9)를 받아, 추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9>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개최에 대한 인식과 평가

측정 항목	평균
전반적으로 만족	**4.4**
행사 장소 선택이 적절함	**4.4**
일정 편성 및 시간 배분이 적절함	3.9
행사 관련 정보제공 및 안내물 배분이 적절함	4.1
컨퍼런스 주제 및 프로그램 선정이 적절함	4.3
행사 내용이 다채롭고 유익함	4.2
동시통역 수준에 만족	4.3
행사장 통역스탭의 수준에 만족	**4.4**
향후 컨퍼런스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음	**4.8**
평균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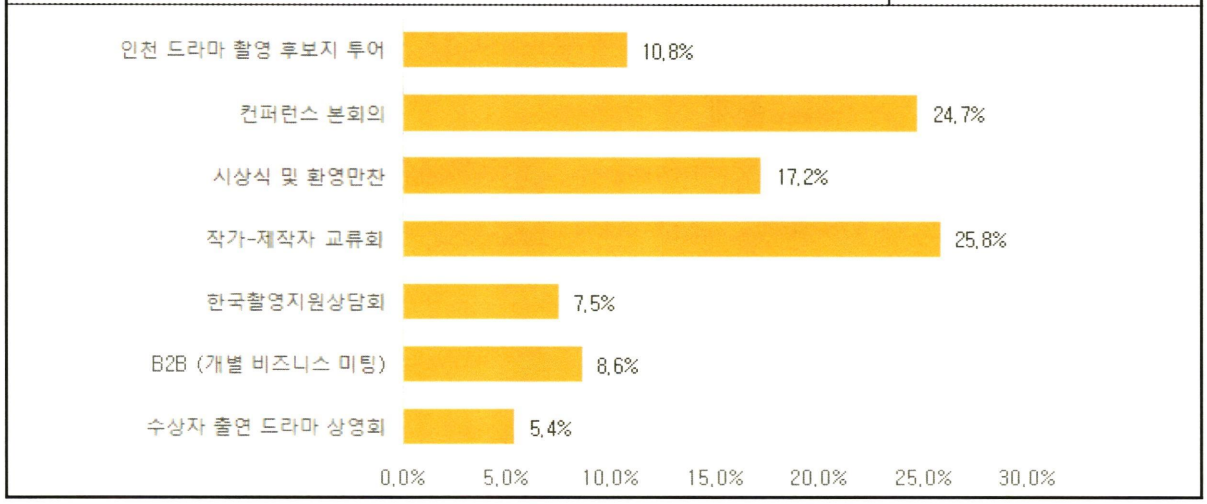


(3) 컨퍼런스 기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중복응답)

올해 컨퍼런스에는 새롭게 시도된 부대행사가 많았던 만큼, 각 세부 행사별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참가자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를 복수 선택하게 한 결과, 금년도에 신설된 **'작가-제작자 교류회'가 전체 선택 중 25.8%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메인행사인 **'컨퍼런스 본회의'와 '시상식 및 환영만찬'이 각각** 24.7%, 17.2%의 비율로 선택되었다. 16년도 설문조사 시 '타국 참가자와의 교류'와 '소모임 확대'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처음 시도된 '작가-제작자 교류회'는, **이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 간 개별 모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업계 네트워크 강화'라는 컨퍼런스의 목적에 크게 부합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표 10> 컨퍼런스 기간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행사

측정 항목	퍼센트(%)
수상자 출연작 상영회 *17년도 신설	5.4
B2B (개별비즈니스미팅)	8.6
한국촬영지원상담회 *17년도 신설	7.5
작가-제작자 교류회 *17년도 신설	**25.8**
시상식 및 환영만찬	17.2
컨퍼런스 본회의	**24.7**
인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10.8
합계	**100**



(4) 가장 인상 깊은 세션에 대한 결과(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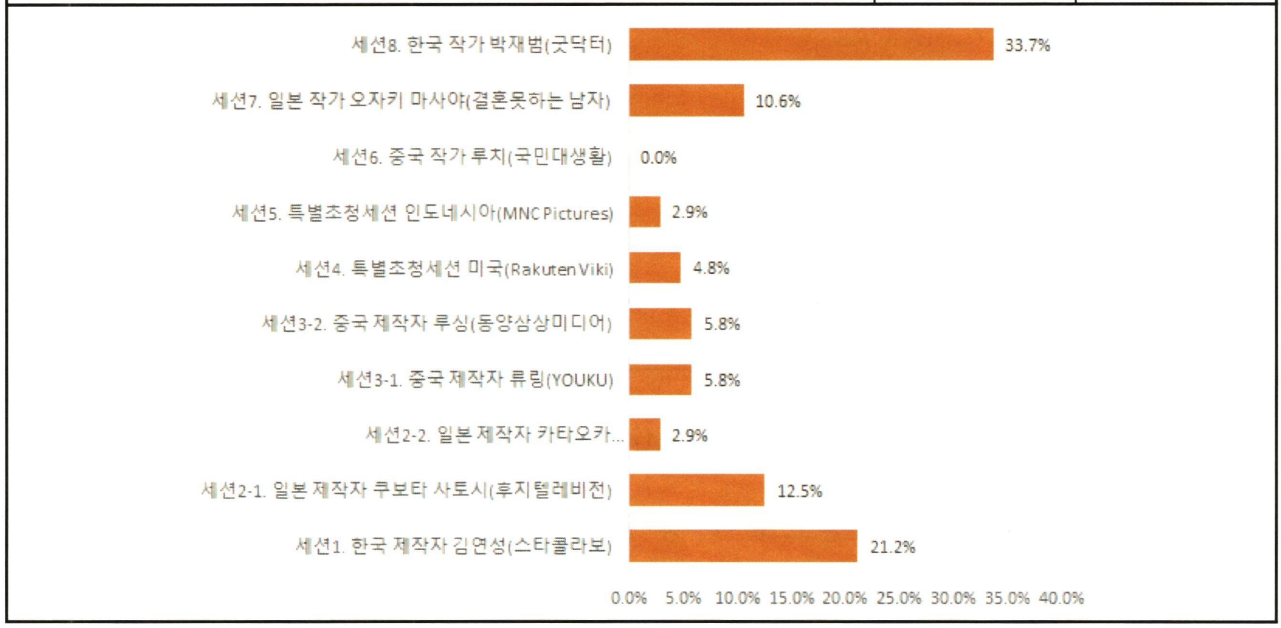
설문 참가자를 대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세션을 조사 한 결과, **<드라마 '굿 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

행한 한국 작가세션의 박재범 작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33.7%)를 얻었다.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굿닥터>의 원작자라는 점에서 행사 전부터 참가자 및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박재범 작가는, 발표를 통해 '드라마 기획의 본질은 작가의 의도와 주제의식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 당시 고집했던 작품의 세계관과 미국에서의 리메이크 과정 등을 상세히 풀어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포맷바이블에 의한 현지화 작업'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답으로 제시하여 첫 세션부터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낸 **한국 제작자 세션 김연성 이사의 발표를 응답자의 22.1%가 인상 깊은 세션으로 선택**하였다.

<표 11> 가장 인상 깊은 세션

세션	빈도(표)	퍼센트(%)
세션1. 한국 제작자 김연성(스타콜라보)	**22**	**21.2**
세션2-1. 일본 제작자 쿠보타 사토시(후지텔레비전)	13	12.5
세션2-2. 일본 제작자 카타오카 히로시(NHK엔터프라이즈)	3	2.9
세션3-1. 중국 제작자 류링(YOUKU)	6	5.8
세션3-2. 중국 제작자 루싱(동양삼상미디어)	6	5.8
세션4. 특별초청세션 미국(Rakuten Viki)	5	4.8
세션5. 특별초청세션 인도네시아(MNC Pictures)	3	2.9
세션6. 중국 작가 루치(국민대생활)	0	0
세션7. 일본 작가 오자키 마사야(결혼못하는 남자)	11	10.6
세션8. 한국 작가 박재범(굿닥터)	**35**	**33.7**
합계	**104**	**100**



4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향후 과제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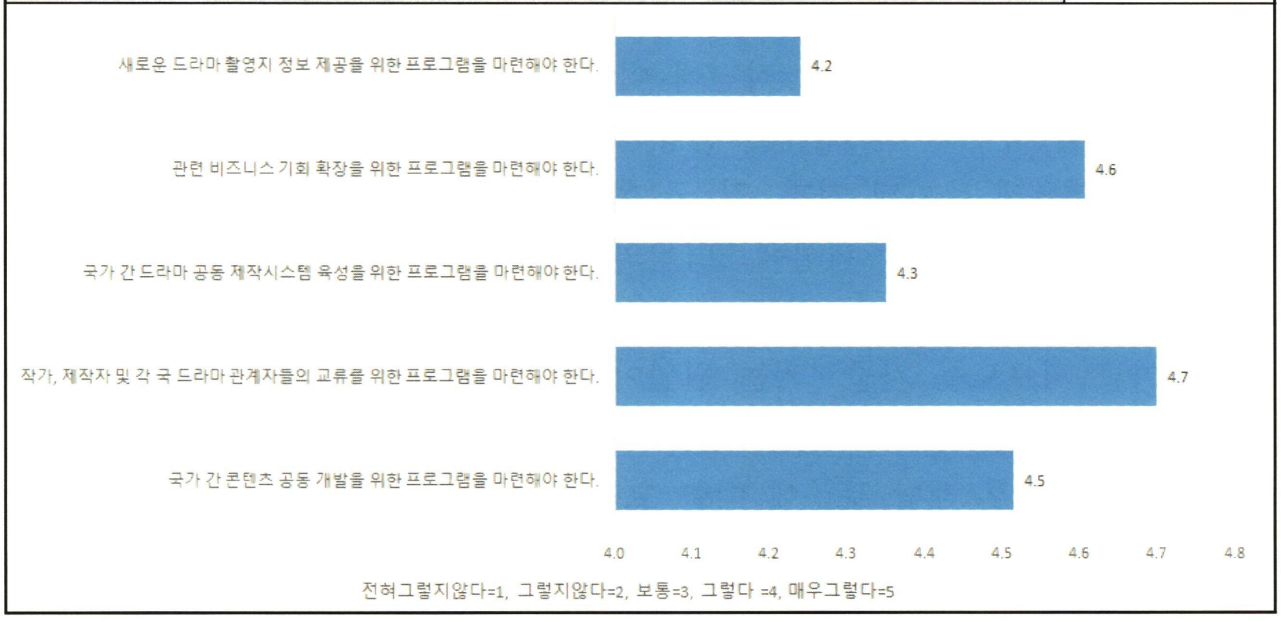
(1) 향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방향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의 향후 과제 및 방향에 관해서는, **행사의 본래 취지라 할 수 있는 '관계자 간 교류'와 '콘텐츠의 공동개발'을 앞으로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그 외에도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의견이 다수의 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향후 개별비즈니스 미팅(B2B) 혹은 관련사 피칭 기회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에 연결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정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12>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향후 과제 및 방향에 대한 결과

측정 항목	평균
국가 간 콘텐츠 공동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4.5**
작가, 제작자 및 각 국 드라마 관계자들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4.7**
국가 간 공동제작 시스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4.3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4.6**
새로운 드라마 촬영지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4.2



(2)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과제와 요구사항

올해 컨퍼런스 참가자들에게 주최 측에의 코멘트를 자유롭게 기재하게 한 결과, 행사 운영 중 특히 '참가자 간 교류의 활성화', '통역 배치의 적절성','자료집과 프로필집의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등에 참가자 들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전달해 왔다.

이어 참가자들이 컨퍼런스에 바라는 요구사항 및 향후의 과제를 묻는 설문에 관한 응답은 크게 '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프로그램 구성', '행사 일정 조정'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참가자들의 희망사항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참가자 간 교류 강화'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크게 '교류 대상의 확대'와 '교류 기회의 확대'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더욱 다양한 국가의 작가, 미국시장 관계자, 현장스탭, 학술자들 등 교류 대상의 다양화를 요청하는 의견과, 그 외에 개별 교류 시간을 더욱 확충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올해 교류 기회의 증대 노력이 큰 호평을 받았던 것을 발판으로 향후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해서는, 'B2B 시간의 확대'와 '촬영 상담회 운영 지속' 등 1일차에 배치되어있는 부대행사를 강화할 것에 대한 요청이 다수 제기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그 외 '한국 드라마 촬영 현장 견학' 등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동안 촬영 후보지 혹은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팸투어 프로그램 보완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컨퍼런스 본회의의 일정 재고'에 관한 내용이 일부 참가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3박 4일의 기간 중 본회의를 2일차 하루에 전 세션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특히 '비아시아 특별세션'(미국)이 새롭게 추가된 점과, 각 국 협회의 요청으로 일본제작자세션과 중국 제작자세션의 경우 각 세션에 2명씩의 발표자가 배치되어 실제 발표 수가 늘어났던 점이 논의의 다양화와 풍부한 프로그램 구성에는 기여했으나 참가자로 하여금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익한 내용을 충실히 다룰 수 있도록 여유 있는 본회의 일정에 대한 요청이 반복되어 지적된 만큼,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13>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향후 과제 및 방향에 대한 결과

구분	내용
평가 및 코멘트	- 그동안 수년간 참가해왔는데 올해는 나라 간 교류의 장이 전례 없이 많고 매우 알차게 진행되었다 - 한국작가들과 일본작가들은 교류회를 계기로 개별적으로 친목교류를 하는 등 매우 유익했다 - 컨퍼런스 안내와 참가자소개 책자가 분리되어 매우 편리했다. - 참가자 소개책자가 휴대 가능하도록 작고 가벼워져 커뮤니케이션에 유용했다

		- 통역이 많고 의욕적이어서 좋았다. - 개별교류 시간에도 통역의 협력이 있어 큰 도움을 받았다 - 통역을 다수 배치해주어, 더욱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 한국 로케이션 상담회가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 섬세한 프로그램에 감사한다. 일본제작자 모두 보람을 얻고 기쁘게 귀국했다 - 통역 배치와 활동이 훌륭했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제공으로 주최 측에 감사한다.
과제 및 건의	교류확대	- 타국 작가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 미국 시장과의 교류를 희망한다. - 현장 스탭 간 교류의 장을 희망한다. - 개별교류 시간 확대를 희망한다. - 각국의 드라마 관련 학술자들과 함께 학술적 교류를 희망한다. - 내빈인사를 더 생략하고 참가자 간 교류시간을 늘리는 것을 제안한다. - 자국 참가자들끼리 사전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회의 이외에 자연스러운 교류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및기타	- 국가 간 협력프로젝트의 성공사례나 문제점등에 대한 정보를 희망한다. - 한국드라마 촬영 편집 현장을 견학해보았으면 한다. - 소그룹으로 공식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희망한다. - B2B 시간을 더 확대 했으면 한다. - 향후에도 개최지 촬영상담회를 지속해주기를 희망한다. - 환송만찬에도 동시통역을 희망한다 - 1일차 프로그램의 확대와 2,3일차 일정의 재고
	일정관련	- 본회의를 하루에 끝내기에는 아쉬우므로 일정 추가를 희망한다. - 유익한 세션이 많은 만큼 시간여유가 더욱 있었으면 한다. - 본회의 스케쥴이 다소 빠듯하다. - 아카데믹한 진행보다 창작자를 고려한 편안한 진행을 희망한다. - 본회의 세션이 많아 집중도가 저하되므로 조정을 바란다. - 세션 별 발표 시간이 더 길었으면 한다.

(3) 2018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희망 주제

마지막으로, 차년도 컨퍼런스 진행 시 논의 되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추후 논의를 희망하는 주제는 크게 '**드라마 콘텐츠 공동제작**'과 '**글로벌 마켓 진출**', '**OTT 등 신규 플랫폼**' 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제작 진행 시, 혹은 경험 후의 과제**', '**공동제작의 한계와 가능성**' 등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 공동제작에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에 관한 의견의 경우 '**저작권 및 수익분배, 투자**' 등 콘텐츠 수출 시 당면하게 되는 이슈들과 '**어떠한 작품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작품전략을 논의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다.

그 외에도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OTT등 플랫폼에 대한 전략 및 전망 등을 논의할 필요성 ('**플랫폼 별 콘텐츠 기획**', '**OTT와 함께 변화하는 드라마의 전망**')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아시아 각국 드라마의 특수성과 보편성**'과, '**각 국 히트 드라마 성공 요인 분석**' 등이 희망 주제로 언급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2018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희망 주제

구분		내용
희망 주제	공동제작	- 아시아 드라마 공동제작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 (한계vs기회) - 아시아 드라마 공동제작의 사례와 개선점 - 합작 프로젝트 진행시 염두해야 할 문제 - 각국을 대표하는 제작자들에 의한 아시아공동제작드라마 혹은 콘텐츠의 가능성 - 공동제작을 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구체적인 내용 - 타국 촬영 현장을 경험 한 후의, 탁상 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점 발표(각본가도 포함)

	해외진출	- 해외 방영 드라마의 저작권 및 적절한 수익 분배 - 미국 시장 진출과 공동 작업 및 투자 방향 교류 - 전 세계에 유통되는 드라마의 개척 - 미국이나 유럽의 제작자 측(방송국 등)에서 바라본 아시아 각국 드라마의 매력과 단점 - 해외 원작 드라마의 현지화
	플랫폼	- 경계를 넘어선 플랫폼에 아시아 드라마 작가들이 어떻게 적응해나갈 것인가 - 상식을 깨는 드라마의 미래 - 다양한 플랫폼, 포맷 등 - 플랫폼 별 콘텐츠 기획방법 - 웹 드라마의 과제와 전망 - 공동제작, OTT와 함께 변화하는 드라마의 전망
	기타	- 각국의 신인드라마 작가 발굴에 대한 거시적인 정책 - 문화가 국경의 벽을 넘다 - 아시아 각 국의 드라마가 지닌 특수성과 보편성 - 각 나라 정서에 따른 드라마의 차이점과 공통점 - 각국의 메가 히트 드라마 3편의 성공요인 분석

별첨2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참가자 명단

1 한 국 (79명)

	국가	단체	성명		회사명	직책
			한글	영어/중국어/일어	한글	한글
1	한국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	박창식	Changsik PARK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2			안제현	Je hyun AHN	삼화네트웍스	대표
3			유수열	Sooyol YOO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고문
4			손기원	Kiwon SON	김종학프로덕션	대표
5			신상윤	Sangyoon SHIN	삼화네트웍스	대표
6			오성민	Sungmin OH	지앤지프로덕션	대표이사
7			김희열	Heeyeol KIM	팬엔터테인먼트	부사장
8			전산	San JEON	팬엔터테인먼트	부사장
9			이미지	Leemee JEE	아폴로픽쳐스	대표
10			김운호	Uno KIM	도레미엔터테인먼트	본부장
11			황기용	Kiyong HWANG	아이에이치큐	본부장
12			곽홍석	Hongsuk KWAK	지앤지프로덕션	이사
13			마정훈	Junghoon MA	콘텐츠케이	본부장
14			오남석	Namseok OH	HB엔터테인먼트	이사
15			조한숙	Hansook CHO	지담	본부장
16			김옥수	Oksoo KIM	제리보이스콘텐츠	이사
17			김지우	Jiwoo KIM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본부장
18			양세진	Sejin YANG	그룹에이트	PD
19			최정복	Jeongbok CHOI	김종학프로덕션	PD
20			윤은정	Eunjung YUN	삼화네트웍스	부장
21			김민	Min KIM	삼화네트웍스	팀장
22			박현지	Hyeonji PARK	삼화네트웍스	팀장
23			최순규	Soongyu CHOI	삼화네트웍스	PD
24			김경규	Kyungkyu KIM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팀장
25			이해인	Haein LEE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PD
26			김지훈	Jihoon KIM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PD
27			정성국	Seong-guk JEONG	아이에이치큐	팀장
28			황보람	Bolam HWANG	아이에이치큐	PD
29			신선주	Sunju SHIN	지담	팀장
30			권은비	Eunbi KWON	지앤지프로덕션	PD
31			최선우	Sunwoo CHOI	아폴로픽쳐스	PD
32			조인요	Inyo CHO	아폴로픽쳐스	PD
33			김호준	Hojun KIM	MBC 문화방송	팀장
34			이월연	Yuejuan LI	MBC 문화방송	PD
35			윤홍미	Hongmi YOON	MBC 문화방송	PD
36			송원섭	Weonseop SONG	JTBC	CP
37			조준형	Junhyoung CHO	JTBC	CP

38			김연성	Younsung KIM	스타콜라보	이사
39			박태영	Taeyoung PARK	이매진아시아	콘텐츠 사업 총괄
			성희석	Heeseok SUNG	이매진아시아	이사
40			서영록	Yeonglok SEO	숨은그림미디어	총괄프로듀서
41						
42			박영민	Youngmin PARK	SBS콘텐츠허브	차장
43			진해동	Jinhae Dong	SBS콘텐츠허브	팀장
44			김홍섭	Hongseob KIM	유스토리나인	제작팀장
45			조은영	Eunyoung CHO	유스토리나인	대표이사
46			박상주	Sangju PARK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47			최해영	Haeyoung CHOI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팀장
48			이혜리	Hyeri LEE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PD
49			김민아	Minah KIM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PD
50			하정함	Hejing HAN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PD
51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운경	Woonkyung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52			고선희	Sunhee KO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3			권도희	Dohee KWON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4			김윤영	Yunyeong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상임이사
55			김재은	Jae-eun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6			박영숙	Youngsook PARK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7			박재범	Jaebeom PARK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8			박지현	Jihyun PARK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59			박진우	Jinwoo PARK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0			손근주	Keunju SON	태원엔터테인먼트	작가
61			송정림	Jungrim SONG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2			오지영	Jiyoung OH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3			우소연	Soyoun WOO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4			전호성	Hosung CHEON	내러티스트	작가
65			정윤정	Jungyoon JUNG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6			정형수	Hyungsoo JUNG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7			조윤영	Yoonyoung CHO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8			주찬옥	Chanock JOO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69			허성희	Sunghee HEO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70			김은희	Eunhee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71			윤은경	Eunkyoung YOON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72			김지숙	Jisook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사무국장
73			유원영	Wonyoung RYU	한국방송작가협회	차장
74			김상균	Sangykyoon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사원
75			김영인	Youngin KIM	한국방송작가협회	사원
76			윤선미	Sunmi YOON	한국방송작가협회	과장
77			차은비	Eunbi Cha	한국방송작가협회	사원
78			이혜선	Hyesun LEE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생
79			이현정	Hyeonjung LEE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생

2 일 본 (33명)

	국가	단체	성명		회사명	직책
			한글	영어/중국어/일어	한글	한글
80	일본	전일본 TV방송 제작사 연맹 (ATP)	쿠라우치 히토시	倉內均	ATP	이사장
81			야마모토 타카시	山本高志	월드넷	대표이사
82			가와사카 미유키	川坂實由貴	MK2	대표이사
83			오치 아츠시	越智篤志	NHK 엔터프라이즈	드라마부 부장
84			카타오카 히로시	片岡敬司	NHK 엔터프라이즈	드라마프로그램부 총디렉터
85			이치노 나오치카	市野直親	토카이 텔레비전 브로드캐스팅	방송담당부장
86			나가오 아키라	長生啓	TBS 텔레비전	사장실 국제부 담당부장
87			스즈키 요시카즈	鈴木嘉一	-	방송평론가, 저널리스트
88			쿠보타 사토시	久保田哲史	후지텔레비전 네트워크	제작자
89			토쿠라 료지	戶倉亮爾	악손	디렉터
90			고토 요스케	後藤庸介	교도 텔레비전	주사
91			타치바나 야스히토	橘 康仁	드리맥스 텔레비전	제작자
92			사노 나오코	佐野奈緖子	다이에이 티비	제작자/프로듀서
93			우치마루 세츠코	內丸攝子	토한 키카쿠	책임 프로듀서
94			이치카와 미호코	市川美保子	유메노토모	대표이사
95		일본 방송 작가 협회	후지모리 이즈미	藤森いずみ	일본방송작가협회	상무이사
96			요시무라 유	吉村 ゆう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연출가
97			오자키 마사야	尾崎將也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98			히사마츠 신이치	久松 眞一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99			아라이 슈코	荒井修子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0			카시와바라 히로시	柏原寬司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1			나카마치 아야코	中町綾子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2			사에키 베니오	佐伯紅緖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3			카지모토 에미	梶本惠美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4			이시바시 에리	石橋映里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5			이토 나노하	いとう菜のは	일본방송작가협회	작가
106			반 카즈히코	伴一彦	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작가
107		지역 기업 연합회 큐슈 연계기구 (AIE)	코바야카와 아키노리	小早川 明德	AIE	회장
108			원 미화	元美和	AIE	직원
109			오사코 후미요	大迫章代	AIE	직원
110			니쿠라 토시야	新鞍トシヤ	저널 엔터테인먼트 트리뷰트	대표
111			와카바야시 무네오	若林 宗男	와카바야시 비즈니스 서포트	대표
112			이시바시 코이치	石橋晃一	다이렉트 네트워크 시스템즈	대표

3 기 타 [중국 23명, 동남아 12명, 비아시아 6명]

	국가	단체	성명		회사명	직책
			한글	영어/중국어/일어	한글	한글
113	중국	상해 관일 문화 미디어	왕리핑	王麗萍	상해관일문화미디어	국가 1급 작가
114			장잉	張穎		드라마 제작
115			루치	魯琦		국가3급 작가
116			창한	强菡		문학작품 각색 감수 및 극본 편집 등 담당
117			유유	尤优		홍보 책임
118			진수령	陳秀玲		작가 및 각본가
119			로우 카이카이	婁開開		문학 총감독
120		베이징 영상 예술학회	위보	于博	베이징 리췬 영화문화발전	대표
121			류팡	劉芳	당덕 TV/영상 프로그램	부회장
122			런샤오펑	任曉峰	베이징 성광국운문화 유한회사	대표
123			장싱쿤	張興坤	사천지우미디어	부사장
124			천원구이	陳文貴	베이징 영상예술학회	극본 창작
125			쉬춘옌	徐春彦	이먼(베이징) 영상미디어	
126			왕리췬	王利群	베이징 리췬 문화발전	이사장
127			장롄성	張連生	베이징영상예술학회	제작관리
128		동양삼상 미디어	루싱	呂行	동양삼상미디어	감독
129			양샤오쥔	楊曉軍		제작 및 배급
130		요우쿠 (YOUKU)	류링	劉羚	요우쿠(YOUKU)	자체제작 드라마, 웹드라마 제작관리
131			관용	關咏		해외판권 및 공동제작 담당
132			쑨양	孫揚		판권 협력
133		베이징 윈라이우 문화미디어	우요우	吳又	베이징윈라이우문화미디어	CEO
134			판지에팅	潘洁婷		프로그램 개발 총감독
135	홍콩	PCCW Media Group	헨리 펑	Henry FUNG	PCCW Media Group	AVP
136	태국	Broadcast TV Thai	아루노샤 바누판	Arunosha BHANUPAN	Broadcast TV Thai	본부장
137			카니타 신보른	Kanita SINOVORN	Broadcast TV Thai	수석 프로듀서
138	싱가폴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춘화 리	Choon Hua LEE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제작지원부 부국장
139			리웅 만 총	Liung Man CHONG	Mediacorp TV Singapore Pte Ltd	부국장
140	베트남	VTV TVAd	비흐 반 판	Bich Van PHAN	VTV TVAd	투자 및 사업 개발부 영업 이사
141			티 반 안 풍	Thi Van Anh PHUNG	VTV TVAd	회계 직원
142	인도네시아	MNC Pictures	티탄 헤르마완	Titan HERMAWAN	MNC Pictures	전무이사
143			필리아디 쿠스마라	Filriady KUSMARA	MNC Pictures	제작 담당 상무이사
144	말레이시아	Astro	이본 리	Ey-Von LEE	Astro	AVP
145			쿤완 림	Koon Wan LIM	Astro	AVP
146	필리핀	Abs-Cbn Corp	루엘 바야니	Ruel BAYANI	Abs-Cbn Corp	영업팀장
147			마크 앤서니 가일	Mark Anthony GILE	Abs-Cbn Corp	제작관리
148	미국	Rakuten VIKI	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Arteaga ESTEFANIA	Rakuten VIKI	이사
149			코트니 맥라클란	Courtney MCLACHLAN	Rakuten VIKI	영업부장
150			김사라	Sarah KIM	Rakuten VIKI	TV 드라마 프로덕션 & 지역 투자 책임자
151			문경민	Gyeong-Min MOON	Rakuten VIKI	상무이사
152			김재원	Jaewon KIM	Rakuten VIKI	전략적 제휴 담당자
153	스웨덴	Eccho Rights	윤정연	Deborah YOUN	Eccho Rights	한국사업 총괄

별첨3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결과

1 보도자료 배포 : 총 4회 (재단웹진 게재 1회)

	배포날짜	배포처	제목
1	2017.10.23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2	2017.10.26	문화체육관광부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3	2017.10.27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로 인천에 모이다
4	2017.10.31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수상 '감사하고 행복'
5	2017.12.07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웨진 한류스토리12월호) 경계를 넘는 드라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KOFICE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년 10월 23일(월) 배포즉시 가능
담당부서	문화교류팀
담 당	박종섭 팀장(02-3153-1781 / jong@kofice.or.kr)
배 포	최유리 대리(02-3153-1777 / yurichoi@kofice.or.kr)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
- 임윤아·뤄진,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기여로 특별 표창 수상 – 크로스진 축하공연
- 한, 중, 일 및 11개 국 유명 드라마 작가-제작자 200여명 참가, 아시아 드라마 발전 방안 논의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월)에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화)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교류팀
최유리 대리(☎ 02-3153-17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평창 알다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0. 26.(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김기홍(044-203-2462)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 10. 30.~11. 2. 한·중·일 등 11개국 유명 드라마 작가·제작자 200여 명 참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羅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홍보 포스터
2. 행사 개요
3. 주요 일자별 상세일정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김기홍(☎ 044-203-2462) 또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교류팀 최유리 대리(☎ 02-3153-17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FICE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년 10월 27일(금) 배포즉시 가능
담당부서	문화교류팀
담 당	박종섭 팀장(02-3153-1781 / jong@kofice.or.kr)
배 포	최유리 대리(02-3153-1777 / yurichoi@kofice.or.kr)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로 인천에 모이다

-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
- 임윤아·뤄진,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기여로 특별 표창 수상 – 크로스진 축하공연
- 한, 중, 일 및 11개 국 유명 드라마 작가-제작자 200여명 참가, 아시아 드라마 발전 방안 논의

〈굿닥터〉, 〈품위있는 그녀〉, 〈왕은 사랑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2017년을 빛낸 최고 드라마의 주역들이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해 '아시아의 허브' 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 역대 최다인 11개 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ATDC) >

아시아의 작가 – 제작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 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한국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 이다. 이에 따라 본 회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총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 아이디어와 공동제작,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 비결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31일(화)에는 본격적인 컨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라는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의룡〉,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 엔

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디렉터가 '일본 드라마 콘텐츠 비즈니스' 라는 주제로 일본 드라마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장르를 불문하는 최근의 드라마 제작을 반영하여 각각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 화에 관해 소개할 중국 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눈길을 끈다.

작가 세션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루치 작가의 최신작 <국민대생활> 소개에 이어, 일본 원작 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 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 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굿닥터>의 원작자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초청세션으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 Media Group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들의 아시아 드라마 시청 현황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지닌 콘텐츠 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의 드라마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드라마의 신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발표자 프로필 및 세부 주제는 별첨자료 참고)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 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 '아시아 영상문화도시' 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곽영진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기존의 아시아 중심을 넘어 미국과 스웨덴 등 비 아시아권역까지 참가국이 크게 확대되면서,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그 어느 때보다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이라며, " '경계를 넘는 드라마' 라는 주제처럼,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드라마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별첨] 1.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홍보 포스터
2.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행사 개요
3.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일자 별 상세 일정표
4.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프레스 신청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교류팀
최유리 대리(☎ 02-3153-17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OFICE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년 10월 31일(화) 배포즉시 가능
담당부서	문화교류팀
담 당	박종섭 팀장(02-3153-1781 / jong@kofice.or.kr)
배 포	최유리 대리(02-3153-1777 / yurichoi@kofice.or.kr)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수상 '감사하고 행복'

-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기여로 특별 표창 수상, '더 좋은 작품들로 보답하겠다'
- 31일(화) 한, 중, 일 및 11개 국 유명 드라마 작가-제작자 200여명 참가 컨퍼런스 개최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수상자 및 시상자
(왼쪽부터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박창식회장, 뤄진, 임윤아, 한국방송작가협회 김운경 이사장)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다.

10월 30일(월)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했다고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밝혔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ATDC) >

아시아의 작가 - 제작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 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한국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지난 10여 년 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행복하다' 고 소감을 밝힌 윤아는, '늘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게 정말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한국과 해외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는 포부를 전했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

는 임윤아의 국내 첫 사극 출연작인 '왕은 사랑한다'가 수상자 출연작 특별 상영회를 통해 방영되며, 해외 각 국에서 참가한 작가 및 제작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남자배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 배우 뤄진은, '아시아 문화교류에 공헌했다는 말은 저에게 과찬' 이라 겸손을 표하며, '오늘 이 상은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로 보답하겠다' 라며 뜻 깊은 소감을 남겼다. '자신은 단지 대중들의 진심과 마주하려 노력할 뿐' 이라며, 드라마 업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몄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뽐냈다.

한편 31일(화)에 이어지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한다. 일본 드라마 <의룡>,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 등 해외 유명 드라마 관계자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굿닥터>의 원작자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교류팀
최유리 대리(☎ 02-3153-17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류 스토리

2017/12

외국인이 본 한류
'한국 드라마의 세계화'에 관한 단상

세계 파워콘텐츠
아이돌 굿즈 열풍의 진원지, 일본

HALLYU FOCUS
경계를 넘는 드라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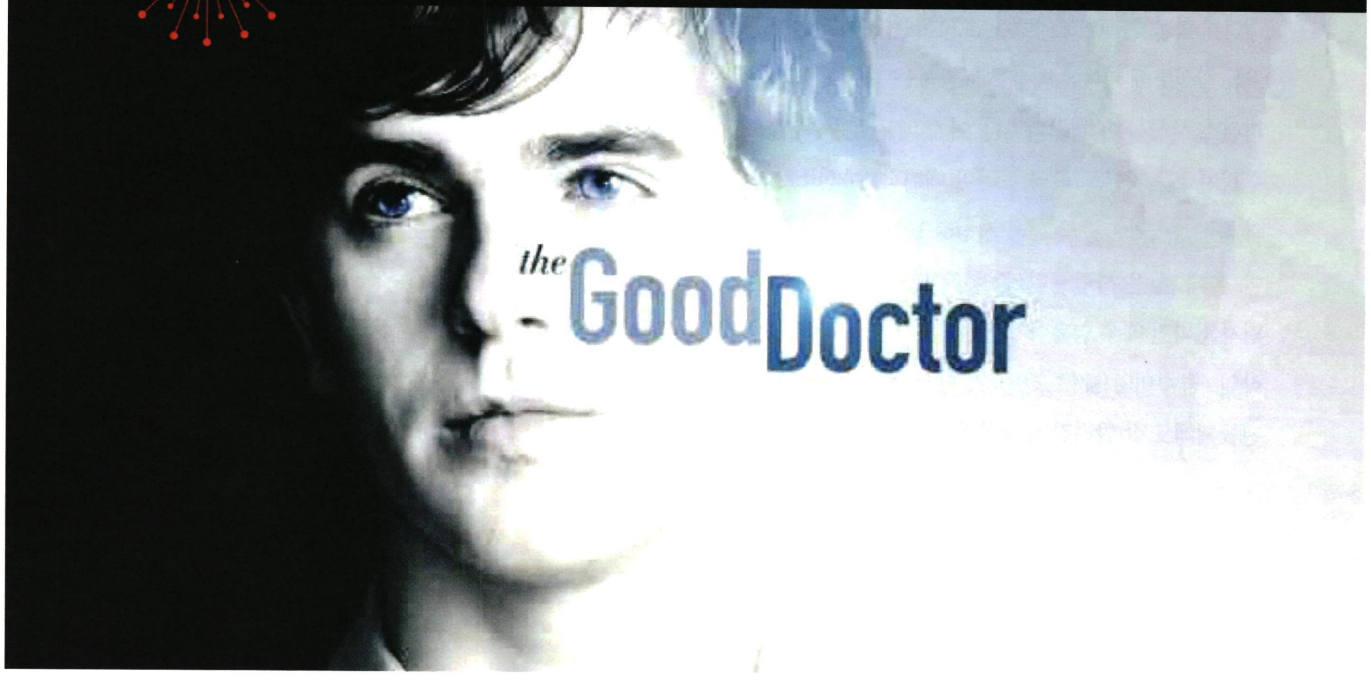
KOFIC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VOL 44



경계를 넘는 드라마, 그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글 최유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문화교류팀



〈굿 닥터〉, 〈품위있는 그녀〉, 〈왕은 사랑한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2017년을 빛낸 최고 드라마의 주역들이 '아시아의 허브' 인천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한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 아이디어와
공동제작,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 비결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논의를 펼쳤다.
성큼 다가온 겨울의 추위를 잊을 만큼 진지하고 뜨거웠던
3박 4일간의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아시아의 작가와 제작자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 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한국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지난 12년 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하며,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곽영진 이사장의 개회사로 성대하게 막을 연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武神赵子龙)〉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왕은 사랑한다〉를 통해 대표 한류 여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锦绣未央)〉이 한국에서 방영되며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멋진 상을 주셔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힌 임윤아는, "늘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해외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임윤아의 국내 첫 사극 출연작인 〈왕은 사랑한다〉가 수상자 출연작 특별 상영회를 통해 소개되어, 해외 각 국에서 참가한 작가 및 제작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한편 남자배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 배우 뤄진



은, "아시아 문화교류에 공헌했다는 말은 저에게 과찬"이라고 겸손을 표하며, "오늘 이 상은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로 보답하겠다"고 뜻 깊은 소감을 남겼다. 자신은 단지 "대중들의 진심과 마주하려 노력할 뿐"이라며, 드라마 업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몄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최근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팝의 매력을 뽐냈다.

이튿날인 31일(화)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본격적인 컨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제작자 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의룡(医龍)〉, 〈도쿄타워(東京タワー)〉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精霊の守り人)〉를 제작한 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디렉터가 일본 드라마의 해외진출 전략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장르를 불문하는 최근의 드라마 제작을 반영하여 웹툰의 드라마 화에 관해 소개한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 YOUKU의 류링 제작자, 〈무증지죄(无证之罪)〉로 중국 웹드라마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루싱 감독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김연성 스타콜라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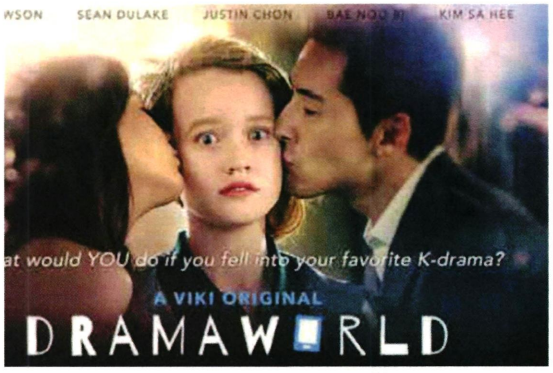
"지금까지 아시아 오리지널 드라마들은 미국 시장에서 OTT, 즉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방송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선물〉이나 〈굿 닥터〉등이 미국 지상파인 ABC에서 방송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 콘텐츠 수출액 중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지만, 대다수가 자막이나 더빙을 입힌 완성본 수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에는 현지화 과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기준과 포맷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그 지역의 문화를 반영한 제작이 가능하게 하는'포맷 바이블'이 필요합니다."

"포맷 산업은 특정 지역에서 성공한 포맷을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개선함으로써 문화적 할인을 극복하고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최근 미디어 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분야이며, 2000년대 이후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바꾼 4대 수퍼 포맷의 경우 연간 수익이 약 3조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스크립트 판매에서 벗어나 포맷 바이블에 의한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초 기획-제작 단계부터 폭 넓은 세계관과 캐릭터가 살아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여, 이를 포맷 바이블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는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 Media Group의 특별 초청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플랫폼 비키의 미래전략과 영미권 이용자들의 아시아 드라마 시청 현황,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의 드라마 산업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드라마의 신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MNC Media Group은 본 컨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유명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협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기도 했다.







특별초청세션–미국

코트니 맥라클란

Rakuten VIKI 영업부장

"비키는 넷플릭스 등 여타 플랫폼과 달리 아시아에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틈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알고, 느끼고 싶다면 비키가 바로 그 답이 되는 것이죠. 또, 전 세계 유저들이 200여개의 언어로 직접 자막을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곳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저희는 오리지널 창작물을 글로벌 팬들에게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콘텐츠의 소비자인 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 통계학적 정보 뿐 아니라 어떤 장르를 좋아하며, 무엇을 보고자하고 경험하고자 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즉 '그들이 사랑하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비키의 오리지널 콘텐츠 〈DRAMAWORLD〉도, 주인공이 한국 드라마의 세계에 빠져든다는 독창적인 설정으로 많은 드라마 팬들을 매료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인기 드라마 〈워킹데드(The Walking Dead)〉의 제작자가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인 〈5years〉를 비키와 함께 제작하여 내년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를 넘는다'는 오늘의 주제처럼 한국 드라마 고유의 느낌과 글로벌한 감각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비키는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작가 세션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루치 작가가 최신작 〈국민대생활(国民大生活)〉을 중심으로 '드라마의 기본은 스토리, 감정, 인물이다'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여 많은 작가들의 공감을 산 데 이어,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 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는 원작과 리메이크 판을 영상과 함께 분석하여 흥미를 더했다. 특히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굿 닥터〉의 원작자 박재범 작가는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하며, 드라마 기획의 본질은 작가의 의도와 주제의식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 작가는 〈굿 닥터〉가 설정만 존재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확실한 메시지가 존재하는 드라마가 되게끔 노력했고 인물 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점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낸 요인이라 분석하여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드라마 '국민대생활'
: 드라마의 기본은
스토리, 감정, 인물이다
루치 작가

"창의와 혁신은 바로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음수사원, '물을 마시며 원천을 생각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TV드라마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인물과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 전체 정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물을 영혼으로, 스토리를 핵심으로, 그리고 정서를 추진력으로 하여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려내는 인물들을 사랑해야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 작품 속의 악역이 아무리 나쁜 역할이더라도 그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애환이나 고충들을 보여줘야 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희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포용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는 장르 융합과 더불어 플랫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우리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대생활〉이 16억 회에 달하는 인터넷 시청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애정을 그리는 스토리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극작가로서 창작의 원칙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 스토리를 통해 사람이 가진 선량함과 희망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 이외에도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개별 비즈니스 미팅', '작가-제작자 교류회'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사전 신청을 통해 약 20건의 B2B 미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필리핀-일본 공동제작, 한국드라마의 중국 및 태국 리메이크와 터키-유럽지역 방영 등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성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에서는, 최근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배경으로 각광받는 인천광역시의 명소를 찾아 각 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은 컨퍼런스 공식일정 이외에도 개별 모임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언어의 장벽을 잊고 돈독한 우애를 다지기도 했다.

본 행사에 12년 째 한 해도 빠짐없이 참석 중이라는 중국의 국민 작가 왕리핑은 총평을 통해 '이번 회의가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하며, "제작자, 작가를 넘어 플랫폼 관계자까지 사상 최대의 인원이 참여, 웹드라마와 해외 리메이크 뿐 아니라 드라마 집필의 본질까지 폭넓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곽영진 이사장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발전하는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 드라마의 가능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국경과 장르 간 경계 또한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각국의 사례와 토론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 평하며, "그 흐름 안에서도 시청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이야기'이며, 그것이 시대의 생각과 형식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때 박수를 받는 것이라는 드라마의 본질을 곱씹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로 폐회의 소감을 전했다.

디지털 혁명과 국경을 넘나드는 공동제작 등 드라마 콘텐츠를 둘러싼 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아시아'라는 동질성을 기반으로 우리 드라마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온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컨퍼런스'로서 그 논의의 장을 넓혀가기 위한 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전 세계의 작가-제작자들이 다채로운 협력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교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앞으로도 꾸준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K



드라마 '굿 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박재범 작가

"〈굿 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요약하자면 [특이한 주인공 설정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무언가를 통해 관객들이 보게 만드는 것을 '차별화'라 할 때, 저는 좀 더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는 의학드라마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인간의 이야기에서 두 세 발자국 더 들어가 다른 내면과 상황을 바라보고자 했고, 오랜 구상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자폐성향을 가진 청년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차별점은 주인공이 의료행위의 주체인 의사임과 동시에 객체인 환자라는 점입니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주인공은 [인간애], [치료의 본질], [사랑] 그리고 [진정한 의사에 대한 정의]를 깨닫고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가 아니라 '그가 처해있는 상황'과,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스토리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즉 주인공을 연민을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은 〈굿 닥터〉가 의료 행위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다이내믹한 수술이나 특이한 치료법, 거기서 전해지는 희열



이 의학드라마의 본질처럼 여겨지는데, 의학드라마는 액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설정들이 주요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환자와 의사의 소통에 의한 치료, 또 의사와 의사, 사람 간의 소통에 의한 화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려 했죠."

"세 번째 차별점은 '자폐'라는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보통의 의학드라마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치료와 예방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굿 닥터〉의 경우 '질병을 가진 자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치료의 대상이자 동시에 공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치료법임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굿 닥터〉 리메이크를 통해 느낀 중요한 포인트는, '보편타당한 인간의 감정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기획할 때, 바다 건너 미국에서 제작될 거라곤 꿈에도 예상 못 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접근해 보자, 즉 휴머니즘에 집중했고, 그것이 타국에서도 공감을 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류는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체계화해서 잘 펼쳐놓는 것이 국내외 관객들에게 가장 좋은 작품을 선사하는 길이 아닐까요."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ASIAN TV DRAMA CONFERENCE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ATP


ATP

2 보도 성과 : 총 96건

* 국내 총 70 건 보도

	보도날짜	보도매체	헤드라인
1	2017.04.18	인천일보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인천 유치 확정
2	2017.04.25	경인일보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송도서 열린다
3	2017.05.11	기호일보	3박자 영상산업' 전진기지로 뜨는 인천시
4	2017.06.18	경인일보	영상산업 국제행사 '대통합'… 해외에 인천 각인 프로젝트
5	2017.10.10	동아일보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개막
6	2017.10.23	헤럴드POP	임윤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수상
7		노컷뉴스	임윤아, '아시아 문화교류' 공로…특별 표창
8		뉴스엔	임윤아·뤄진, 제12회 亞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표창
9		국민TV	배우 임윤아·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 표창
10		경인투데이뉴스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11		뉴스인	임윤아·뤄진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서 특별표창 받아
12		국제뉴스	배우 임윤아·뤄진, '특별 표창' 받는다
13	2017.10.24	서울신문	임윤아 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표창 수상
14		아주경제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15		선데이뉴스신문	임윤아-뤄진,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 표창
16	2017.10.26	정책브리핑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17		M이코노미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30일 인천에 모인다
18		Queen	11개국 드라마 거장이 모이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19		경인투데이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20		브릿지경제신문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21		중부일보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들, 인천에 모인다
22		조이뉴스24	윤아, '亞드라마컨퍼런스' 특별 표창…한류배우 자리매김
23		매일일보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24		내외뉴스통신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
25		내외뉴스통신	11개국 드라마 거장 모이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에서 개최
26		엑스포츠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27		뉴시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개막…윤아, 특별표창
28		연합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한자리에…영종도서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29		데일리투머로우	드라마 거장들 한국행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열린다
30		조이뉴스24	윤아, '亞드라마컨퍼런스' 특별 표창…한류배우 자리매김
31		한국경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부터 나흘간 인천서 열린다
32		세계타임즈	[세계로컬핫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33		뉴스에이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34	2017.10.27	엔디엔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35		미디어인천신문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
36		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37		아시아일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서 개막
38		소비자를 위한 신문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상륙
39		중부일보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들, 인천에 모인다
40		국제뉴스	인천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모여
41		인터뷰365	11개국 인기드라마 거장 200여명, 인천에 모인다.
42		쿠키뉴스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 인천에 모인다
43	2017.10.29	주간인물위클리피플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44		서울경제	[뉴스터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영종도서 개막
45		아시아경제	"11개국 드라마 거장이 온다"…'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인천서 개막
46		국제뉴스	문체부-인천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47	2017.10.30	데일리연합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48		스타데일리뉴스	[S영상] 소녀시대 윤아-크로스진-뤄진, '우리가 아시아의 얼굴들'
49		뉴스엔	[포토엔HD]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남자배우 부분 수상'
50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여자배우 부분 수상'
51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
52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꽃보다 아름다운 너'
53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빈틈없는 아름다움'
54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옆모습도 여신이네'
55		뉴스엔	[포토엔HD]크로스진 용석 '부드러운 카리스마'
56		뉴스엔	[포토엔HD]크로스진 '훈훈한 다섯남자'
57		뉴스엔	[포토엔HD]뤄진 '대륙의 대표 미남'
58		뉴스엔	[포토엔HD]뤄진 '여심 사로잡는 완벽한 수트핏'
59		뉴스엔	[포토엔HD]크로스진 신원호 '심쿵 아이컨택'
60		뉴스엔	[포토엔HD]크로스진 타구야 '점점 더 잘생겨져'
61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예뻐도 너무 예뻐'
62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이렇게 예쁘면 반칙'
63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청순의 대명사'
64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빛나는 꽃사슴 미모'
65		뉴스엔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청초함이란 이런 것'
66	2017.10.31	중부일보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상 수상
67		선데이뉴스신문	소녀시대 임윤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특별 표창상 시상
68		뉴스엔	[포토엔화보]'아이돌에서 여배우로' 임윤아 '아름다운 美의 여신'
69		경인일보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내달 2일까지 영종도에서
70	2017.11	월간방송작가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굿닥터><김과장>의 박재범 작가 등 아시아 각국의 대표 드라마작가 참석

* 해외 총 26건 보도

	보도날짜	보도매체	헤드라인
71	2017.10.23	Soompi (영미권/글로벌)	Girls' Generation's YoonA To Receive Special Commendation At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72	2017.10.24	Korea Portal (미국)	Yoona to Receive a Special Award at 12th Asia Drama Conference
73		wowkeren.com (인도네시아)	윤아, 중국 배우와 함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상 수상!
74		CNN Indonesia (인도네시아)	아시아 컨퍼런스 상으로 '소녀시대' 윤아의 연기력이 보상받았다
75		kanal247.com (인도네시아)	축하합니다! 소녀시대 윤아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어워즈'에서 특별상 수상!
76		asiangrup.com(인도네시아)	소녀시대' 윤아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어워즈'에서 특별상 수상!
77		hariansib.co(인도네시아)	SNSD 윤아 와 뤄진, 2017년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에서 수상
78		mystylemyanmar.com(미얀마)	소녀시대 멤버 윤아, 특별 표창 수상한다
79	2017.10.25	TRIBUNJATIM.COM (인도네시아)	자랑스럽다, 소녀시대 윤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상 수상
80		VTV NEWS (베트남)	SNSD 윤아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
81	2017.10.27	KBS World (일본)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30일 영종도에서 개막
82	2017.10.28	Korea Joonang Daily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to begin
83	2017.10.28	매일두조 (중국)	뤄진,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시상식 참석
84	2017.10.30	Baidu (중국)	뤄진, 점퍼와 롱다리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완벽한 공항패션 공개
85	2017.10.30	Hancinema (영미권/글로벌)	[HanCinema's Live Report]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 Korean drama and the world
86		iyaa.com (인도네시아)	멋지다! "Dunia terbalik (뒤바뀐 세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참가
87		dienanh.net (베트남)	아시아의 위대한 상을 받은 윤아의 미모
88	2017.10.31	Sohu오락 (중국)	중국드라마<국민대생활> 아시아 드라마컨퍼런스 참여
89		Baidu (중국)	뤄진, 시상식 슈트패션 네티즌 화제 : 남신강림, 멋짐폭발
90	201711.01	sina오락 (중국)	왕리핑 작품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 컨퍼런스 참여
91		봉황망 (중국)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참여
92		E도시 (중국)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참여
93		대중망 (중국)	왕리핑 작품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 컨퍼런스 참여
94	2017.11.01	koreabanget.com (인도네시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소녀시대 윤아 특별상 수상
95	2017.11.06	Sohu오락 (중국)	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공헌상 수상 : 윤아, 왕리핑 작가와 함께 사진촬영
96	2017.11.07	北辰資訊 (중국)	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공헌상 수상 : 윤아, 왕리핑 작가와 함께 사진촬영

1	Date	2017.04.18		
	Media	인천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인천 유치 확정		

열 두 번째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ATDC)' 유치 도시로 인천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10월30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콘퍼런스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아시아 드라마의 공동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작가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아시아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다.

개최지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4번, 부산과 경주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했다. 인천에서 열리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일을 비롯한 싱가폴, 베트남 등 8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방송작가협회, 드라마 제작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함께한다.

심사를 거쳐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에게 상을 수여하며 드라마와 관련된 주제를 정해 국가별 발표와 토론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의 주요 촬영지 등을 소개하는 관광 일정도 잡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촬영했던 드라마의 흥행이 개최지 선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면서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인천이 영상산업의 날개를 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	Date	2017.04.25		
	Media	경인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송도서 열린다		

인천시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권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배우,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국제행사를 유치했다.

인천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송도국제도시 쉐라톤호텔에서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KOFICE)이 공동 주최한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아시아권 국가의 드라마 제작 관련 인사들이 추후 드라마 기획·제작방향, 온라인 등 플랫폼 변화 등을 논의하고,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2006년 부산에서 제1회 콘퍼런스를 개최한 이래 서울, 경주, 중국 상하이, 일본 나가사키, 기타큐슈 등에서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일본 후쿠오카에서 가진 제11회 콘퍼런스에는 한·중·일 유명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방문했다. 또 아시아 드라마 시상식이 마련돼 유명 배우들이 수상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올해 콘퍼런스는 최근의 드라마 제작환경 관련 주제를 정한 세션별 본회의, 국가간 드라마 제작사업을 연계하는 'B2B'(Business to Business), 소규모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각국 드라마 콘텐츠 전시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콘퍼런스에서 인천 배경 드라마 촬영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아시아권 드라마 제작자를 대상으로 촬영 후보지 팸투어(사전답사여행)를 추진하기로 했다. 팸투어 예정지는 송도국제도시, 중구 개항장 일대, 강화도 등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드라마 촬영뿐 아니라 해외 드라마 제작·촬영까지 유치한다는 게 인천시의 목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스튜디오를 건립하는 등 영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영상 콘텐츠 제작·촬영을 유치해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구상"이라며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효과가 클 경우 인천시에서 매년 행사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	Date	2017.05.11		
	Media	기호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3박자 영상산업' 전진기지로 뜨는 인천시		



인천이 '영상문화도시'로 우뚝 선다. 각종 영화 및 드라마 촬영은 물론 국제 행사까지 연이어 열려 영상 분야의 신흥도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송도국제도시 쉐라톤 호텔 등에서 '제12회 아시아드라마 콘퍼런스'가 열린다. 행사에는 아시아 각국 및 비아시아권 드라마 관계자 300명과 국내 드라마 작가 및 제작자 지망생과 학생 등 150명이 참관할 예정이다. 한중일 등 3개국을 돌아가며 열리는 이 행사는 향후 한국 개최 시 인천에서 고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도깨비'와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촬영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인천은 개항장과 송도국제도시, 유적지가 많은 강화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드라마 촬영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시는 이달 26~30일까지 5일간 중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제5회 디아스포라영화제'를 연다. '환대의 시작'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는 인종·계급·민족·성별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정체성을 담은 33개국 50편의 예술·독립·다큐멘터리 영화 등이 상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국제다큐멘터리마켓' 선정도 유력하다. 이는 한국 다큐멘터리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행사다. 문체부는 이달 중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인천이 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에도 인천에서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가 속속 방영 및 개봉돼 지역의 영상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도깨비'와 영화 '공조'를 시작으로 올해 4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가 상영된다. 강동원 주연의 영화 '골든 슬럼버', 한석규 주연의 '아버지의 전쟁', 조승우·배두나 주연의 드라마 '비밀의 숲' 등이다. 인천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는 지난 3~5월까지 3개월간 강화 오픈 로케이션과 세트 촬영을 하고 있다. 임시완과 윤아 등이 출연하는 이 드라마는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인삼과 순무, 약쑥 등 강화 특산품과 연미정·전등사·보문사 등 이곳 역사유적지가 소개된다. 드라마 '써클(Circle)'은 지난 4~6월까지 3개월간 송도에서 촬영 중에 있다. 2037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드라마는 송도 투모로우시티·트라이볼·G타워·센트럴파크 등에서 촬영돼 미래의 첨단도시로서의 인천 이미지를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영화와 드라마 촬영에 이어 각종 국제행사까지 열려 영상문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며 "영상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	Date	2017.06.18		
	Media	경인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영상산업 국제행사 '대통합'... 해외에 인천 각인 프로젝트		

인천시가 국내에서 열리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행사들을 통합해 매년 인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국제방송영상견본시'를 비롯한 영상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통합해 내년 하반기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국제영상콘텐츠페어'(가칭)를 개최할 구상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사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영상 콘텐츠별 국제행사의 일정과 장소를 집약해 행사 효과를 높이고, 인천을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해외 영상업계에 각인시킨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영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다큐멘터리포트'는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마켓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지난해 23개국 130개사가 참가해 콘텐츠 수출과 공동 제작매칭을 성사시켰다.

문광부 산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는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는 올해 10월 말 인천에서 12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권 국가의 드라마 제작 관련 인사들이 드라마 기획·제작방향, 온라인 등 플랫폼 변화 등을 논의하고,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다. 한·중·일 유명 드라마 제작자, 작가, 배우들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국제방송영상견본시'는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해외 방송제작·유통단체 간 교류 프로그램과 콘텐츠 마켓이 열린다. 지난해 행사에는 44개국 242개사가 참가했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영상 콘텐츠 거래가 이뤄지는 국제행사를 통합해 유치하면 지역 영상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영화나 드라마 로케이션 유치, 야외·실내 스튜디오 조성을 비롯해 영상산업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사를 주최하는 각 기관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국제영상콘텐츠페어를 유치한다면 영상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국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Date	2017.10.10		
	Media	동아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개막		

아시아권 드라마 공동제작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회의가 인천에서 처음 열린다.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ATDC)다.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 드라마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과 미국 스웨덴 드라마 전문가들이 세계 드라마시장 흐름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한다.

올 ATDC에서는 아시아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펼친 배우를 선정하고 방송작가 교류를 통해 아시아 대중문화산업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인천의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는 팸투어도 진행된다.

방송작가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뿐만 아니라 작가 및 제작 지망생이나 학생도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ifc.or.kr)에서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6	Date	2017.10.23		
	Media	헤럴드POP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임윤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수상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월)에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화)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7	Date	2017.10.23		
	Media	노컷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임윤아, '아시아 문화교류' 공로...특별 표창		



배우 임윤아가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가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임윤아 외에 중국 배우 뤄진(罗晋)이 함께 수상한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1일에는 컨퍼런스 본회의가 열린다.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8	Date	2017.10.23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임윤아・뤄진, 제12회 쬬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표창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10월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뤘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9	Date	2017.10.23		
	Media	국민TV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배우 임윤아·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 표창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3일 오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해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해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오는 30일에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31일)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0	Date	2017.10.23		
	Media	경인투데이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월)에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화)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1	Date	2017.10.23		
	Media	뉴스인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임윤아·뤄진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서 특별표창 받아		



[뉴스인] 민경찬 기자 =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특별 표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 데뷔작 '무신 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100억 뷰를 돌파하며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최근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오가며 열연을 펼치면서,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 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은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에 가수 비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펼치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무대를 펼친다.

올해 12회째인 이번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의 첫 개최 이래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의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다.

30일의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31일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국경·플랫폼'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려 한·중·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 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12	Date	2017.10.23		
	Media	국제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배우 임윤아·뤄진, '특별 표창' 받는다		





배우 임윤아와 뤄진(罗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특별 표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중국 데뷔작 '무신 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100억 뷰를 돌파하며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최근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오가며 열연을 펼치면서,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 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은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에 가수 비와 함께 출연해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종횡무진 활동을 펼치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무대를 펼친다.

올해 12회째인 이번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의 첫 개최 이래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의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다.

30일의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31일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국경·플랫폼'을 주제로 콘퍼런스가 열려 한·중·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 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모색한다.

13	Date	2017.10.24		
	Media	서울신문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임윤아 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표창 수상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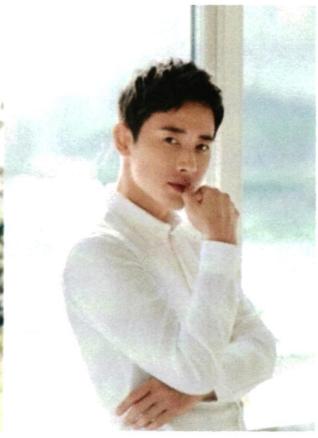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뤘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 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해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4	Date	2017.10.24		
	Media	아주경제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배우 임윤아·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서 특별 표창		

배우 임윤아와 뤄진(?晋)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다.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에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에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하여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5	Date	2017.10.24		
	Media	선데이뉴스신문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임윤아-뤄진,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 표창		




인천영상위원회와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오는 10월 30일부터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배우 임윤아와 뤄진이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 1인 2역을 완벽 소화하여 호평을 받은 임윤아는, 해당 작품이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는 물론 온라인 누적 수 100억 뷰를 돌파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또 얼마 전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 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면서 작품이 방영 전부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 등에 선 수출 되는 쾌거를 이뤘다.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500만 명을 거느리며 중국 전역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뤄진도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드라마 '다이아몬드러버'에 가수 비 와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주연 작인 '금수미앙'이 국내에서 방영되며 한국 팬들에게 또 한 번 강렬한 눈도장을 찍은 뤄진은, 중국을 넘어 해외 드라마 팬들에게도 점차 이름을 알리며 차세대 글로벌 배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상식에는 일본,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각국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조 아이돌 그룹 크로스진(CROSS GENE)이 축하 공연 무대를 꾸민다. '비정상회담'에서 활약한 일본인 멤버 타쿠야를 시작으로 '푸른바다의 전설', '20세기 소년소녀' 등에서 배우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신원호 등 각자가 바쁜 스케쥴을 소화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섯 멤버가 의기투합하여 해외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K-pop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12회를 맞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중국, 일본 등지에서 개최를 이어오며 각국 드라마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 간 교류의 장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이다. 30일 열리는 특별 표창 시상식에 이어 다음날 31일 진행되는 컨퍼런스 본회의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 아래 한, 중, 일을 비롯해 총 11개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해 해외진출과 공동제작 등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한 협력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6	Date	2017.10.26		
	Media	정책브리핑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7	Date	2017.10.26		
	Media	M이코노미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30일 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콘퍼런스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8	Date	2017.10.26		
	Media	Queen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이 모이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윤아가 선정되었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 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 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19	Date	2017.10.26		
	Media	경인투데이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	Date	2017.10.26		
	Media	브릿지경제신문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올해 12회를 맞은 콘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특히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콘퍼런스 본회의에서 열린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한다.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해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한다.

21	Date	2017.10.26		
	Media	중부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들, 인천에 모인다		

2017년을 빛낸 최고 드라마의 주역들이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해 '아시아의 허브'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총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 아이디어와 공동제작,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 비결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초청세션으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 Media Group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들의 아시아 드라마 시청 현황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지닌 콘텐츠 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의 드라마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드라마의 신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은 11월1일 출국 전 인천지역을 돌아보며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에 나선다.

22	Date	2017.10.26		
	Media	조이뉴스24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윤아, '꼬드라마컨퍼런스' 특별 표창...한류배우 자리매김		



첫날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수상자는 윤아와 뤄진이다. 두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로 인정받았다.

윤아는 지난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뤄진은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천500만명을 거느리며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한편, 12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총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31일 제작자 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고, 일본 드라마 '의룡'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디렉터가 '일본 드라마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일본 드라마의 해외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작가 세션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루치 작가의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하고,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 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한다. 특히 올해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돼 화제를 모은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23	Date	2017.10.26		
	Media	매일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한편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에서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특히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에 있어서는 오는 31일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

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 '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도 크다.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4	Date	2017.10.26		
	Media	내외뉴스통신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 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 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 '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5	Date	2017.10.26		
	Media	내외뉴스통신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모이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에서 개최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거장들이 모이는 문화 교류 행사가 인천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제작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장르·국경·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아시아 11개국 200명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참여한다.

또한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 △일본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 등이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시상식도 열린다. 소녀시대 윤아와 중국 배우 뤄진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 시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	Date	2017.10.26		
	Media	엑스포츠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지난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후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해 올해로 12회 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오는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이어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

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7	Date	2017.10.26		
	Media	뉴시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개막...윤아, 특별표창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 주제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소녀시대 멤버인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한다.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돼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8	Date	2017.10.26		
	Media	연합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한자리에...영종도서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TV 드라마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최대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인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구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 엔터프라이즈의 가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유쿠의 드라마 제작자 류링이 최근 드라마 제작 환경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 동양삼상미디어의 루싱 감독도 발표자로 나선다.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을 분석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라쿠텐 비키의 코트니 맥카틀란 영업부장과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기업인 MNC미디어그룹의 티탄 헤르마완 전문이사도 발표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에선 드라마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

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 ABC 방송에서 리메이크해 주목받은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도 발표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진행된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는 드라마 '무신조자룡'을 통해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임윤아와 최근 주연작 '금수미앙'으로 한국에도 알려진 중국 인기 배우 뤄진이 남녀 배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스웨덴 등 비아시아 국가들까지 참여해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를 더욱 넓은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후 각국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들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29	Date	2017.10.26		
	Media	데일리투머로우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드라마 거장들 한국행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ABC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드라마 연관 산업 성장 견인 플랫폼 역할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0	Date	2017.10.26		
	Media	조이뉴스24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윤아, '꾜드라마컨퍼런스' 특별 표창...한류배우 자리매김		



소녀시대 윤아와 중국배우 뤄진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특별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 역대 최다인 11개 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수상자는 윤아와 뤄진이다. 두 사람은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로 인정받았다.

윤아는 지난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신을 불사하는 열연을 펼치며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뤄진은 훈훈한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웨이보 팔로우 1천500만명을 거느리며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한편, 12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총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31일 제작자 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고, 일본 드라마 '의룡'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디렉터가 '일본 드라마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일본 드라마의 해외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작가 세션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루치 작가의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하고,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 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한다. 특히 올해 미국 ABC에서 리메이크돼 화제를 모은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31	Date	2017.10.26		
	Media	한국경제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부터 나흘간 인천서 열린다		

아시아 최대 드라마 전문 정보교류 행사인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운서동 파라다이스시티리조트에서 열린다. 이 콘퍼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12회째다. 올해 콘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 드라마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열린다. 여자 배우부문 특별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임윤아가 선정됐다. 최근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은 남자 배우부문 수상자로 행사장에 온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만든 구보타 사토시 후지TV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가타오카 히로시 NHK엔터프라이즈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한다.

32	Date	2017.10.26		
	Media	세계타임즈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세계로컬핫뉴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 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3	Date	2017.10.26		
	Media	뉴스에이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 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

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4	Date	2017.10.27		
	Media	엔디엔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 기대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5	Date	2017.10.27		
	Media	미디어인천신문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에서 개최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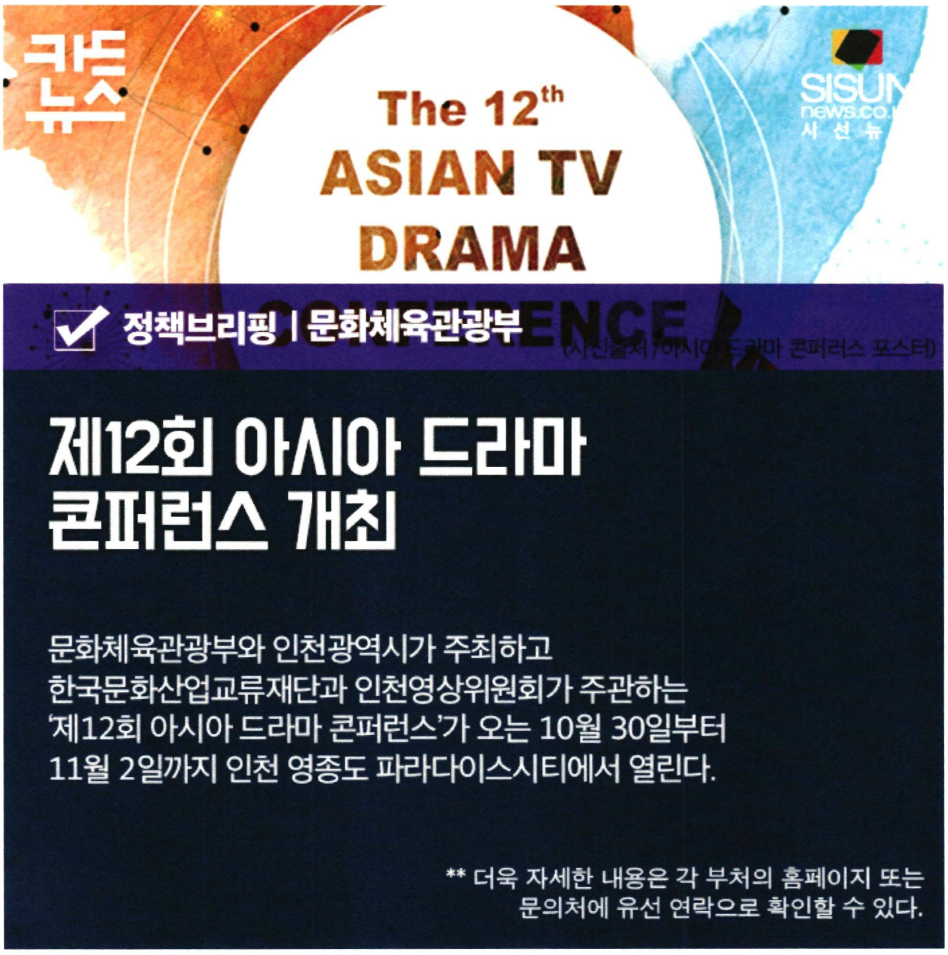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다.

인천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1개국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비 아시아권에서는 미국과 스웨덴이 참가한다.

한편 첫 날인 30일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소녀시대 윤아와 중국 배우 뤄진이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특별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36	Date	2017.10.27		
	Media	시선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정책브리핑]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37	Date	2017.10.27		
	Media	아시아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 영종도서 개막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해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 '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해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8	Date	2017.10.27		
	Media	소비자를 위한 신문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인천상륙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9	Date	2017.10.27		
	Media	중부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들, 인천에 모인다		

2017년을 빛낸 최고 드라마의 주역들이 아시아 드라마 발전을 위해 '아시아의 허브'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총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 아이디어와 공동제작,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 비결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네트워크를 넘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초청세션으로, 미국의 대표적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MNC Media Group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플랫폼 이용자들의 아시아 드라마 시청 현황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지닌 콘텐츠 시장으로 각광받는 인도네시아의 드라마 시장 동향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드라마의 신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주요 관계자들은 11월1일 출국 전 인천지역을 돌아보며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에 나선다.

40	Date	2017.10.27		
	Media	국제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인천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11개국 드라마 거장 모여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오는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

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해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돼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해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1	Date	2017.10.27		
	Media	인터뷰365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인기드라마 거장 200여명, 인천에 모인다.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11개국 드라마 거장들이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27일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따르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는 30일 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역대 최다인 11개 국의 인기 드라마를 만든 거장 200여 명이 참석한다.

12회 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 아이디어와 공동제작,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 비결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가수겸 배우 윤아가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아는 지난 해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왕은 사랑한다'에서도 남장과 액션신을 선보이며 '한류' 대표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얻었다.

웨이보 팔로우 1500만명을 거느리며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눈도장을 찍은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찾는다.

또 31일에는 11개국 유명 드라마 작가-제작자 200여명이 참여하는 컨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일본 '의룡', '도쿄타워'의 제작자인 후지TV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결혼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를 비롯, 미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화제가 된 한국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 등 아시아 드라마를 이끄는 대표 작가 및 제작자들이 발표를 맡는다.

42	Date	2017.10.27		
	Media	쿠키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11개국 드라마 거장 인천에 모인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콘퍼런스는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이 열두 번째다.

이번에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배우부문 특별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 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씨가 선정됐다. 남자배우부문 수상은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에 돌아간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돼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한다.

43	Date	2017.10.29		
	Media	주간인물위클리피플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 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罗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뿐만 아니라 3박 4일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는,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과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 다채로운 일정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신흥'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광역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하여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4	Date	2017.10.29		
	Media	서울경제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뉴스터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영종도서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참석한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45	Date	2017.10.29		
	Media	아시아경제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이 온다"...'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30일 인천서 개막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30일 개막, 내달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한다.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는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됐다. 지난 10여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이다.

올해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열린다.
여자배우 부문 특별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이 남자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31일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을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돼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 등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아울러 행사기간 올해 수상자의 출연작을 상영하는 '아시아 드라마 스크리닝', 각 참가자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 매회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해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등이 마련된다.

특히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받으며 아시아 영상문화도시로 떠오른 인천의 풍부한 관광 및 제작지원 인프라를 소개해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6	Date	2017.10.29		
	Media	국제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문체부-인천시,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 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첫날인 30일(월)에는,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된다.여자 배우 부문 특별 표창 수상자로는 지난해 중국 드라마 데뷔작 '무신조자룡'으로 중국 전국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국내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로 명실상부 대표 한류 여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 임윤아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최근 주연작인 <금수미앙>의 한국 방영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뤄진(?晋)이 남자 배우 부문 수상을 위해 인천을 방문한다.

◆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 아이디어 논의

31일(화)에는 콘퍼런스 본회의가 진행된다. 제작자 분과(세션)에서는 한국 제작사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대표가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화를 통해 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를 한다.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일본 드라마 <도쿄타워> 등을 제작한 후지티브이(TV)의 쿠보타 사토시 제작자와, <정령의 수호자>를 제작한 엔에이치케이(NHK) 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총괄감독이 일본 드라마의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드라마 제작상황 속에서 애니메이션과 소설의 드라마화를 소개할 중국 유쿠(Youku)의 류링 제작자,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의 발표도 이어진다.

작가 분과에서는 중국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가 본인의 최신작 <국민대생활>를 소개하고, 일본 원작뿐 아니라 한국 리메이크판도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의 원작자 오자키 마사야 작가가 원작과 리메이크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에이비시(ABC) 방송국에서 리메이크되어 현지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굿닥터>의 박재범 작가가 해당 작품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존 한·중·일 중심을 넘어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위한 특별초청분과로, 미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비키(Rakuten Viki)와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그룹 엠엔시미디어그룹(MNC Media Group)의 발표도 준비했다.

◆ 드라마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는 플랫폼 역할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국과 스웨덴 등 비아시아 권역까지 확대된 국가들이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함에 따라, 아시아 드라마의 세계화에 대해 더욱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 드라마가 세계시장으로 더욱 널리 나갈 수 있도록 참가국들과의 공감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7	Date	2017.10.30		
	Media	데일리연합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1개국 드라마 거장,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로 인천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오는 10월 30일(월)부터 11월 2일(목)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에서 열린다.

*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의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됨. 지난 10여 년간 각국의 드라마 제작 현장을 이끄는 작가, 제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드라마 전문 콘퍼런스로 자리매김함.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역대 최다인 11개국의 대표 작가와 제작자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친다.

48	Date	2017.10.30		
	Media	스타데일리뉴스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S영상] 소녀시대 윤아-크로스진-뤄진, '우리가 아시아의 얼굴들'		



소녀시대 윤아, 크로스진, 뤄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에 참석했다.

49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남자배우 부분 수상'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중국배우 뤄진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50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여자배우 부분 수상'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51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52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꽃보다 아름다운 너'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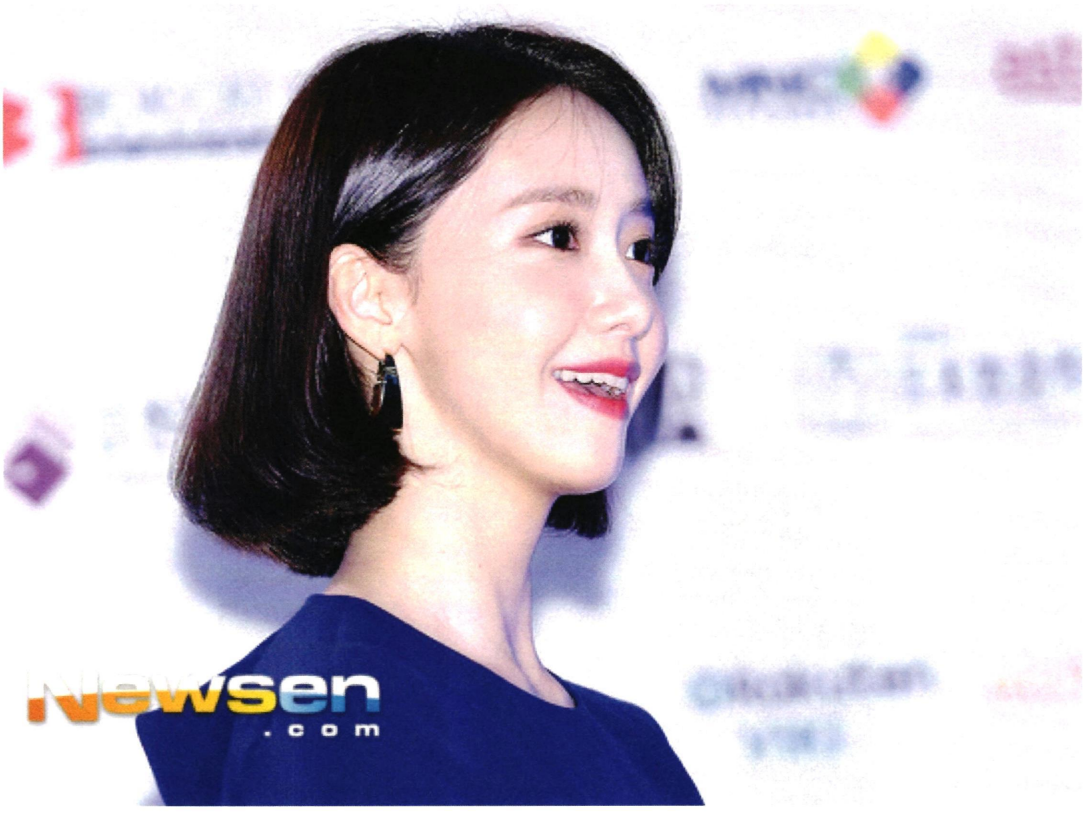
53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빈틈없는 아름다움'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54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옆모습도 여신이네'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참석했다.

55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크로스진 용석 '부드러운 카리스마'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크로스진 용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56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크로스진 '훈훈한 다섯남자'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크로스진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57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뤄진 '대륙의 대표 미남'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중국배우 뤄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58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뤄진 '여심 사로잡는 완벽한 수트핏'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중국배우 뤄진이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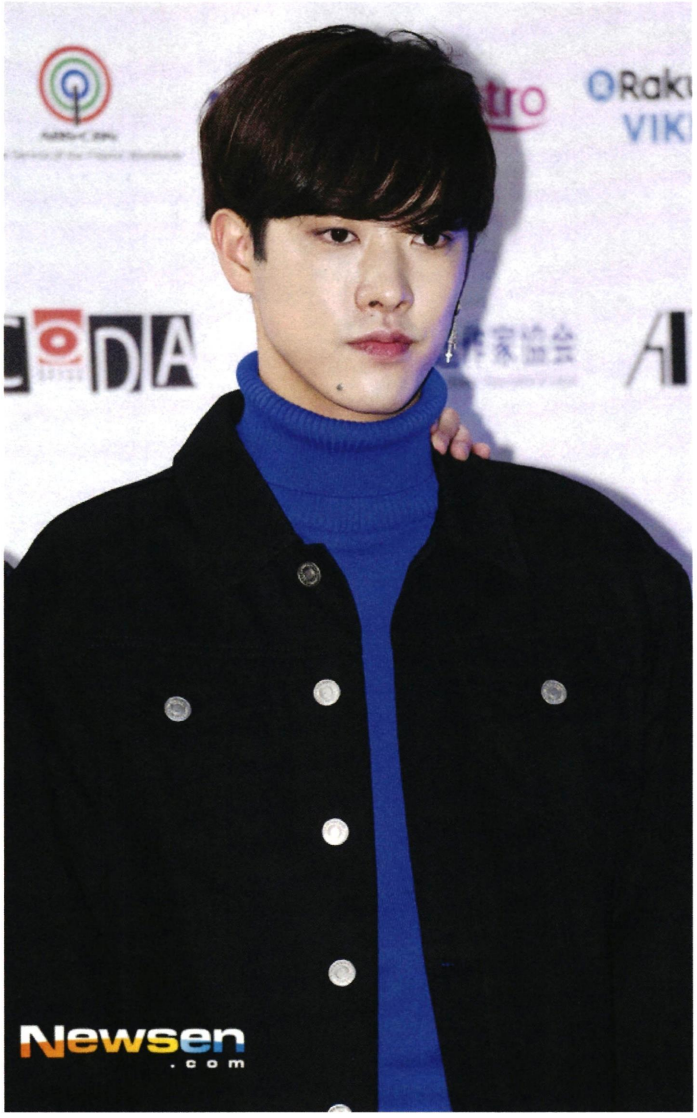
59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크로스진 신원호 '심쿵 아이컨택'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크로스진 신원호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0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크로스진 타구야 '점점 더 잘생겨져'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크로스진 타쿠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1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예뻐도 너무 예뻐'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62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이렇게 예쁘면 반칙'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3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청순의 대명사'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4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빛나는 꽃사슴 미모'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65	Date	2017.10.30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HD]소녀시대 윤아 '청초함이란 이런 것'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이 10월 30일 오후 인천 중구 운서동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녀시대 윤아가 참석했다.

66	Date	2017.10.31		
	Media	중부일보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임윤아 · 뤄진,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상 수상		



한.중 연기자 임윤아와 뤄진이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았다.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그랜드컨벤션에서 드라마를 통한 아시아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이며 연기자로 활동 중인 임윤아와 중국 인기 배우 뤄진에게 특별상을 수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윤아는 수상소감에 대해 "늘 가까운 곳에서나 먼 곳에서나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해외에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출연작으로 '왕은 사랑한다'를 특별 상영해 각국에서 참가한 작가 및 제작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남자배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중국 배우 뤄진은, "아시아 문화교류에 공헌했다는 말은 저에게 과찬, 오늘 이 상은 저에게 주시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작품들로 보답하겠다"라며 겸손한 소감과 함께'자신은 단지 대중들의 진심과 마주하려 노력할 뿐'이라며, 드라마 업계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다.

67	Date	2017.10.31		
	Media	선데이뉴스신문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소녀시대 임윤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시상식 특별 표창상 시상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관하는'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30일 오후 시상식으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시상식에는 소녀시대 윤아와 중국배우 뤄진이 특별 표창상을 수상하였으며, 한류 가수 크로스진이 축하무대르 꾸몄다. 한편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30일 시상식을 시작으로 2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68	Date	2017.10.31		
	Media	뉴스엔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포토엔화보]'아이돌에서 여배우로' 임윤아 '아름다운 美의 여신'		





69	Date	2017.10.31		
	Media	경인일보	Media Type	신문, 온라인
	Headline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내달 2일까지 영종도에서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제작현장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가 30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막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일간 열리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11개국의 드라마 제작자와 작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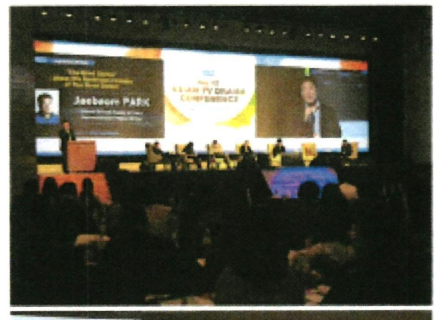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 국경, 플랫폼'이다. 30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드라마를 통해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배우를 표창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 시상식이 개최됐다.

여자 배우부문 특별상 수상자는 지난해 중국 제작 드라마 '무신 조자룡'에서 주연을 맡아 중국 내 시청률 1위를 기록한 한국 배우 임윤아(27)가 선정됐다. 남자 배우부문에서는 중국 배우 뤄진(羅晉·35)이 특별상을 받았다.

개막식에 앞서 행사장에서는 시상식 수상자 출연작 상영회, 개별 비즈니스 미팅, 인천영상위원회와 한국영상위원회의 한국 현지촬영(로케이션) 상담, 작가·제작자 교류회 등을 가졌다. 행사 둘째 날인 31일에는 총 8개 세션으로 구성한 본회의가 각각 열릴 예정이다. 11월 1-2일은 인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굿닥터> <김과장>의 박재범 작가 등 아시아 각국의 대표 드라마작가 참석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주최로 열린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아시아의 드라마작가와 제작사가 상생협력 및 공동제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이는 이 행사에는 올해 아시아 8개국에서 150여 명의 드라마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나흘간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경계를 넘는 드라마 : 장르·국경·플랫폼'이었다. 한중일 대표 작가들은 각각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제작과정에서 주의 깊게 들여다 볼만한 포인트와 성공요인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 대표로 발표한 <굿닥터> <김과장>의 박재범 작가는 <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면서, 드라마 기획의 본질은 작가의 의도와 주제의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작가는 <굿닥터>가 설정만 존재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확실한 메시지가 존재하는 드라마가 되게끔 노력했고 인물간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주력했던 점이 시청자들의 반응을 끌어낸 요인이었으리라고 분석했다. 박재범 작가는 "우리의 감정을 기획하고, 그 기획을 체계화해서 잘 풀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류 기획이라는 논리의 모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3박 4일간 열린 컨퍼런스에는 세미나 외에도 '개별 비즈니스 미팅 매칭'과 '한국촬영지원 상담' '작가 제작자 교류회', 매해 개최국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여 새로운 촬영 후보지를 제시하는 '인천 드라마 촬영 후보지 투어' 등 참가자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일정을 통해 각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함께 교류하며 참신한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71	Date	2017.10.23		
	Media	Soompi (영미권/글로벌)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Girls' Generation's YoonA To Receive Special Commendation At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Girls' Generation's YoonA To Receive Special Commendation At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S. Park October 23, 2017



Girls' Generation member and actress YoonA will receive a special commendation at the upcoming 12th Asia Drama Conference in Incheon.

See Also: BTS, Girls' Generation's Taeyeon, And SHINee's Taemin Rank High On Billboard's World Albums Chart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will take place on October 30 at Paradise City in Incheon. YoonA and Chinese actor Luo Jin will be commemorated with an award for their contribution to Asian cultural exchange through their drama "God of War, Zhao Yun."

Last year, YoonA officially debuted in China through "God of War, Zhao Yun" where she perfectly executed playing double roles with massive success. The drama achieved first in nationwide viewership ratings and surpassed 10 billion views online. This year, YoonA played her first domestic historical role in "The King Loves" alongside actor Im Si Wan and Hong Jong Hyun.

The Asia Drama Conference is the largest drama conference of its kind that gathers influential writers, producers, and others who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drama industry. This conference allows professionals to gather to develop new ideas, work on overseas expansion, and joint productions.

Congratulations to YoonA! Watch YoonA and Luo Jin in "God of War, Zhao Yun"!

Watch Now

RECOMMENDED FOR YOU!


After School's Nana Speaks Candidly About Public's Reaction To Her Acting Skills


SF9 Wins New Artist Award At 2017 Seoul Success Awards


Kim So Hyun & Highlight's Yoon Doojoon May Reunite In New Drama


EXO, Park Bo Gum, Park Bo Young, And More Receive Accolades At 2017 Korean Popular Culture & Arts


JBJ's Popularity Proven Through Commercial Offers And High Guarantees Ahead Of Debut


Chae Soo Bin And Uhm Ki Joon Join Yoo Seung Ho's Upcoming MBC Drama


Actress Kim Young Ae Awarded Posthumously For Her Contributions To The Broadcasting Industry


Girl Group Lead Vocalist Awes Audience With Her Unique Voice On "King Of Masked Singer"

72	Date	2017.10.24		
	Media	Korea Portal (미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Yoona to Receive a Special Award at 12th Asia Drama Conference		

Yoona to Receive a Special Award at 12th Asia Drama Conference

BY JOHN ROSCA / OCT 24, 2017 10:35 AM EDT

Share with Facebook Share with Twitter



Korean idol Im Yoona and Chinese actor Luo Jin will be awarded a special commendation at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The event will be held at Paradise City in Incheon on October 30.

The Girls Generation member and actress will be awarded for her performance as Xiahou Qing Yi in "God of War, Zhao Yun," a Chinese TV series that aired in 2016. New Asian TV says that it is a historical series about a famous general, Zhao Yun, who lived through the late Eastern Han Dynasty and the early Three Kingdoms era.

Soompi reports that Yoona and Chinese actor Luo Jin will receive the special commendation for making a contribution to Asian cultural exchange. The site described Yoona's appearance in "God of War, Zhao Yun" as her official debut in China as an actress.

The job proved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Yoona as it required her to portray a dual role, but she was successful nevertheless. "God of War, Zhao Yun" rose to be the top drama in nationwide audience ratings in China. It also attracted over 10 billion views online.

After the success of "God of War, Zhao Yun" in China, Yoona got her first role in a Korean historical drama. She acted in "The King Loves," an MBC drama that also starred Im Si Wan and Hong Jong Hyun.



petite.YA 윤윤
@petiteyoona

Yoongtober #YOONA
Rising Star, BIFF MarieClaire Asia Star Awards
K-Style Icon, ELLE Style Awards
Special Award, Asian TV Drama Conference
3:56 PM - Oct 24, 2017
1 137 166

Yoona's special commendation at the upcoming 12th Asia Drama Conference joins a couple of other awards that the idol will also be receiving. Naver reports that Yoona is the winner of a popularity award to be given at the Seoul Awards at Kyung Hee University's Grand Peace Palace on October 27. Yoona will receive the drama award for her role in the Korean movie "Confidential Assignment."

As a previous article notes, Yoona is also a recipient of the K-Style Icon Award from Korea's first ELLE Style Awards. The award ceremony will take place on November 2nd at the K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Seoul.

EDITOR'S PICK

K-Pop Group BTS Perform 'Mic Drop' On 'The Ellen Show'



4 w - Harsh Soni

SM STATION To Feature Red Velvet's Wendy, JYP's Baek A Yeon For "Little Match Girl" With The Special Appearance Of NCT's Jae Hyun



4 w - M.O.B

BTS Meet With Steve Aoki Ahead Of "MIC Drop" Remix Release



5 w - Sanjana

Connect with us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Enter e-mail address Subscribe

MOST READ

1 Google Pixel 2 Gets Augmented Reality Stickers With Latest Android 8.1 Oreo Update

2 Xiaomi Mi Mix 3 Latest Leak Shows Rear Panel Design And Vertical Dual-Camera Setup

4 Nokia 6 (2018) Dual-SIM Variant Teased In TENAA Certification

5 Apple iMac Pro Release Date, Price, Specs And Other Details Finally Revealed [VIDEO]

6 Samsung Galaxy S9 Will Get Improved Iris Scanner, Claims Report

73	Date	2017.10.24		
	Media	wowkeren.com (인도네시아)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윤아, 중국 배우와 함께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특별상 수상!		

wow keren

"Berita aktual, trending dan keren"

HOME | WK FAVORIT: BERITA, TOP 20, FOTO, VIDEO, LIRIK | WK CHANNEL: SELEB, FILM, TV, MUSIK, TEKNO, UMUM | WK COMMUNITY: LOGIN, REGISTER

TOPIK KEREN

KOREA
Pesan Manis GD Sebelum Wamil

UMUM
Setya Novanto Ngaku Sakit di Sidang Perdana

SELEB
Foto Pertunangan Pangeran Harry-Meghan

TV
Ini Kata Netter Aliando Mundur 'STJC Reborn'

stop

TAGS #Kasus Narkoba Tio Pakusadewo #Isu David Cekik Gracia Indri #Aliando Keluar dari Sinetron STJC #Jonghyun SHINee Bunuh Diri #Kaleidoskop 2017

Home › Berita › Berita Tv

Bareng Aktor Tiongkok, Yoona Akan Terima Penghargaan Khusus di Asia Drama Conference

24 Oct 2017 14:30:34 WIB

Inilah serial yang membawa Yoona mendapatkan penghargaan di Asia Dram Conference ke-12.

Share | Tweet | Share | Pin



WowKeren.com - Yoona Girls' Generation baru saja dikabarkan menang Popularity Award melalui hasil voting yang dibuka oleh Seoul Awards 2017. Kini Yoona dikabarkan akan menerima penghargaan khusus di Asia Drama Conference ke-12.

Ajang penghargaan ini akan digelar pada Senin (30/10) di Paradise City, Incheon. Asia Drama Conference sendiri merupakan ajang penghargaan terbesar yang diikuti oleh penulis-penulis populer, produser, dan pihak produksi lain yang berperan penting di industri serial TV.

Yoona dijadwalkan akan datang bersama aktor Tiongkok Luo Jin untuk menerima penghargaan yang sama. Penghargaan ini diraih berkat kontribusi mereka pada pertukaran budaya di Asia melalui serial "God of War, Zhao Yun".

Ini adalah serial yang menjadi debut Yoona di Tiongkok. Member Girl's Generation itu berhasil memerankan dua karakter dengan baik. "God of War, Zhao Yun" bahkan mendapatkan rating tertinggi di level nasional dan ditonton oleh lebih dari 10 miliar penonton secara online.

Sementara itu, Asia Drama Conference juga mewadahi para profesional di bidang yang berkaitan untuk berkumpul mengembangkan ide baru. Mereka juga dapat bekerja lintas negara dan saling bergabung di sebuah produksi serial TV. **(wk/kr)**

Loading...

Berita **Yoona** terkait :

- Unggah Selca Cemberut, Yoona Dipuji Makin Cantik Hingga Mirip Krystal
- Selalu Antusias Ikut Donasi, Yoona Cerita Soal Bergabung Jadi Member Honor Society
- Usai Tiffany, Giliran Yoona 'Dilamar' Fans Lewat Cara Unik Ini
- Menang di Martanas Film Festival, Yoona Bikin Kaguru Lewat Pidatonya Ini

Koleksi foto **Yoona** terkini (287 foto):



TERPOPULER TERKINI



Kematian Jonghyun Bikin Netter Ingat Percakapan Lee Hyori dan Suami di 'Bed & Breakfast'



Petinggi SinemArt Blak-Blakan, Inikah Kronologi Awal Aliando Ingin Mundur dari STJ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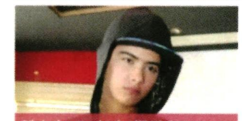
Heboh Kabar Hengkang dari 'STJC', Aktris Cantik Ini Kecewa dengan Sikap Aliando



Dihujat Jadikan Kematian Jonghyun Guyonan di 'Dahsyat', Denny Cagur cs



Postingan Belasungkawa MBC Atas Meninggalnya Jonghyun Bikin Netter Nangis



Dikabarkan Mundur dari 'STJC', Petinggi SinemArt Bocorkan Aliando Bakal Main



'Dahsyat' Dituntut Minta Maaf Usai Bikin Guyonan Soal Kematian Jonghyun SHINee

Akting Yoona 'Girls' Generation' Diganjar Penghargaan Asia

Puput Tripeni Juniman , CNN Indonesia | Selasa, 24/10/2017 16:43 WIB

Bagikan :



Yoona SNSD mendapat penghargaan atas aktingnya. (dok. SM Entertainment via girlsgeneration.smtown.com)

Jakarta, CNN Indonesia -- Tak hanya lihai menari dan menyanyi, personel girlband Girls' Generation alias SNSD, Yoona juga dikenal karena aktingnya yang memukau. Ia bahkan menerima penghargaan khusus dalam Asia Drama Conference yang ke-12 berkat kemampuannya itu.

Yoona mendapatkan penghargaan spesial itu berkat kontribusinya yang besar terhadap pertukaran budaya Asia lewat drama yang dilakoninya, *God of War, Zhao Yun*. Lawan main Yoona dalam drama itu, aktor China Luo Jin juga mendapat penghargaan serupa.

God of War, Zhao Yun merupakan drama produksi China yang dirilis tahun lalu dan melibatkan bintang dari tiga negara: China, Korea Selatan dan Taiwan. Serial ini berkisah tentang Jenderal Militer Zhao Yun yang terlibat cinta segitiga dalam peperangan era Dinasti Han.

Lihat juga:Benny Panjaitan 'Panbers' Meninggal Dunia

Dalam drama itu, Yoona berperan ganda, sebagai Xiaohu Qingyi dan Ma Yunlu. Yoona dianggap berhasil mengeksekusi peran dobelnya dengan baik dalam debut drama China itu.

Aksi Yoona juga membawa *God of War, Zhao Yun* meraih peringkat rating pertama di China selama tayang pada April 2016. Serial itu bahkan ditonton lebih dari 10 miliar kali secara online.

Kemampuan akting personel SNSD ini memang tak perlu diragukan. Di Negeri Ginseng, Yoona sudah memerankan beberapa drama yang selalu melejit. Tahun ini, Yoona baru saja menyelesaikan perannya di *The King Loves* bersama aktor Im Si Wan.

Lihat juga:Pertaruhan Karier Siwon karena Anjing 'Bunuh' Tetangga

Yoona juga terkenal lewat perannya di *The K2* di mana ia berlaga dengan Ji Chang Wook, *Prime Minister & I* dan *Love Rain*.

Yoona bakal menerima penghargaan spesial ini di gelaran Asia Drama Conference pada 30 Oktober mendatang di Paradise City, Incheon, Korea.

Diberitakan Pop News via **Naver**, helatan itu merupakan konferensi drama terbesar yang mempertemukan penulis naskah, produser dan para sineas drama. Konferensi ini juga membuat para profesional bisa bertukar ide dan bekerja sama secara internasional.

Bagikan :

TERPOPULER



G-Dragon dan Taeyang 'Bigbang' Bakal Wamil Tahun Depan
Hiburan • 5 jam yang lalu



Paramedis Paparkan Kondisi Jonghyun 'SHINee' Sebelum Tewas
Hiburan
8 jam yang lalu



Ulasan Film: 'Surat Cinta untuk Starla The Movie'
Hiburan
11 jam yang lalu



Si Juki, Kali Pertama BCL Jadi Pengisi Suara Film Animasi
Hiburan
23 jam yang lalu

TERPOPULER



G-Dragon dan Taeyang 'Bigbang' Bakal Wamil Tahun Depan
Hiburan • 5 jam yang lalu



Paramedis Paparkan Kondisi Jonghyun 'SHINee' Sebelum Tewas
Hiburan
8 jam yang lalu



Ulasan Film: 'Surat Cinta untuk Starla The Movie'
Hiburan
11 jam yang lalu



Si Juki, Kali Pertama BCL Jadi Pengisi Suara Film Animasi
Hiburan
23 jam yang lalu

75	Date	2017.10.24		
	Media	kanal247.com (인도네시아)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축하합니다! 소녀시대 윤아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어워즈' 에서 특별상 수상!		

Selamat! Yoona SNSD Bakal Dapat Penghargaan Khusus di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2 BULAN LALU 24 OCT 17 14:15
398 Shares Share Tweet Pin Share



Fans mengaku sangat bangga mengetahui idolanya bisa kembali mendapatkan penghargaan sebagai aktris.

Kabar gembira datang dari Yoona. Menurut kabar yang beredar, member Girls' Generation itu akan mendapatkan sebuah penghargaan khusus di acara bertajuk, "12th Asia Drama Conference" yang akan digelar di Paradise City, Incheon, Korea Selatan pada tanggal 30 Oktober mendatang.

Seperti yang diketahui, selain menjadi idol, mantan kekasih Lee Seung Gi itu juga terjun di dunia akting. Bahkan tak cuma di Korea Selatan saja, Yoona juga pernah turut berakting dalam sebuah serial drama Tiongkok yang berjudul, "God of War, Zhao Yun".

Berkat partisipasinya dalam serial drama "God of War, Zhao Yun" itulah Yoona akan mendapatkan penghargaan khusus tersebut. Bersama dengan aktor Tiongkok Luo Jin, pelantun "Lion Heart" itu akan diberikan penghargaan atas kontribusi mereka terhadap pertukaran budaya Asia melalui drama.

Serial "God of War, Zhao Yun" sendiri telah ditayangkan oleh Hunan TV mulai tangga 3 April hingga 7 Mei 2016 silam. Dalam kesempatan tersebut, Yoona sukses memerankan peran gandanya sebagai Xiahou Qingyi dan Ma Yunlu. Drama itu sendiri pun berhasil menduduki peringkat pertama dalam rating pemirsa secara nasional serta menembus angka lebih dari 10 juta penonton secara online.

Pada tahun 2016 silam, Yoona bermain drama yang mengambil setting jaman perang di Tiongkok lewat "God of War, Zhao Yun". Tahun ini, Yoona tampil dalam drama saeguk pertamanya dalam serial "The King Loves" yang ia bintangi bersama Im Siwan dan Hong Jong Hyun.

Mengetahui hal ini, fans dan netter pun heboh. Tak sedikit dari mereka yang mengaku sangat bangga

Mengetahui hal ini, fans dan netter pun heboh. Tak sedikit dari mereka yang mengaku sangat bangga pada Yoona yang telah mendapatkan banyak penghargaan sebagai aktris.

"Penghargaan lain yang diraih oleh Yoona sebagai aktris!! Dia memang sangat multi-talenta, pintar, cantik dan rendah hati. Dia panutan terbaik. Dia pantas mendapatkannya. Yoona memang dewinya Asia. Selamat!! Kami bangga padamu!" tulis salah seorang netter. *"Selamat. Bangga banget deh pada sang ratu di antara para ratu lainnya (Yoona),"* ujar netter lain. *"Bangga banget deh sama Yoona,"* komentar yang lainnya.

Sementara itu, acara "Asia Drama Conference" merupakan konferensi drama terbesar yang mengumpulkan para penulis naskah ternama, produser, serta banyak pihak yang berperan aktif dalam industri drama. Konferensi ini juga memberikan kesempatan bagi mereka untuk berkumpul mencari ide baru, memperluas daerah kerja hingga ke luar negeri, serta melakukan kerja sama dengan yang lainnya. Selamat buat Yoona!

(beryl)

FOLLOW US

Berita Trending



Baru Sadar Jonghyun SHINee Miliki Tato Simbol Depresi di Tubuhnya, Fans: Maafkan Aku



Satu Lagu Hitsnya, Siapa Saja?



Unggah Video Keluargannya di Masa Lalu, Ahmad Dhani Digoda Kangen Maia Estianty



Onew Tulis Pesan Ini di Instagram Usai Kepergian Mendiang Jonghyun, Netter: Tetaplah Kuat, Leadernim





Pihak Paramedis Jelaskan Soal Kondisi Mendiang Jonghyun Saat Ditemukan di Apartemennya



Putra Wakil PM Arab Saudi Terbang ke Korea Untuk Lamar Penyanyi K-Pop Ini?

KOREA

YoonA Girls 'Generation Menerima Rekomendasi Khusus Pada The 12th Asia Drama Conference

Posted on October 24, 2017 1 min read 752 0 0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Personel Girls 'Generation, YoonA akan menerima penghargaan khusus pada 12th Asia Drama Conference yang akan diadakan di Incheon. Asia Drama Conference ke 12 ini akan berlangsung pada 30 Oktober di Paradise City di Incheon. YoonA dan aktor Tiongkok Luo Jin akan dianugrahi sebuah penghargaan atas kontribusinya terhadap pertukaran budaya Asia melalui drama "God of War, Zhao Yun."

Baca juga

- Kim Hee Sun dan YoonA Girls' Generation Hadiri 2017 Asia Artist Awards
- YoonA Ungkap Sikap Girls' Generation Berubah Di Variety Show
- Pemain "The King Loves" Kunjungi Siwan di Militer

Tahun lalu, YoonA secara resmi memulai debutnya di Tiongkok melalui drama "God of War, Zhao Yun" dimana dia berhasil mengeksekusi peran ganda dengan sukses besar. Drama ini mengungguli rating pemirsa nasional dan melampaui 10 miliar tayangan secara online. Tahun ini, YoonA juga memainkan peran kolosal korea pertamanya dalam drama "The King Loves" bersama aktor Im Si Wan dan Hong Jong Hyun.

Asia Drama Conference adalah konferensi drama terbesar yang mengumpulkan para penulis, produser, dan pihak-pihak berpengaruh yang berperan aktif dalam industri drama. Konferensi ini memungkinkan para profesional berkumpul untuk mengembangkan gagasan baru, bekerja untuk ekspansi luar negeri, dan produksi bersama.

.: BDAIA - SOCIAL LINKS

Popular Recent Comments Tags

William Feng Bintangi Drama Adaptasi Novel Tong Hua?
DS May 26, 2016

Gong Yoo Resmi Umumkan Train To Busan 2
VN September 16, 2016

Jung Joon Young Akui Rekam Hubungan Seksualnya
EV September 25, 2016

Rapuh, Perasaan yang Dialami Eddie Peng ketika Syuting "Operation Mekong"
DS October 6, 2016

.: BDAIA - SOCIAL LINKS

Popular Recent Comments Tags

William Feng Bintangi Drama Adaptasi Novel Tong Hua?
DS May 26, 2016

Gong Yoo Resmi Umumkan Train To Busan 2
VN September 16, 2016

Jung Joon Young Akui Rekam Hubungan Seksualnya
EV September 25, 2016

77	Date	2017.10.24		
	Media	hariansib.co(인도네시아)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SNSD 윤아 와 뤄진, 2017년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에서 수상		

(홈페이지 접속오류)

78	Date	2017.10.24		
	Media	mystylemyanmar.com(미얀마)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소녀시대 멤버 윤아, 특별 표창 수상한다		

MYSTYLE

Lifestyle | ကြယ်ပွင့်တွေရဲ့ စတိုင် - Stars & Style

October 24, 2017

အထူးဂုဏ်ပြုဆုကို လက်ခံရယူသွားမယ့် Girl's Generation အဖွဲ့ဝင် YoonA

Share this on:

နာမည်ကျော် K-Pop Girl Band တစ်ခုဖြစ်တဲ့ Girl's Generation အဖွဲ့ဝင်လည်းဖြစ် သရုပ်ဆောင်တစ်ဦးလည်းဖြစ်တဲ့ YoonA ဟာ မြန်မာပရိသတ်တွေနဲ့ ရင်းနှီးပြီးသားဖြစ်မှာပါ။



YoonA ဟာ လာမယ့် အောက်တိုဘာလ ၃၀ ရက်နေ့မှာ ကျင်းပမယ့် ၁၂ ကြိမ်မြောက် အာရှဒရမ်မာညီလာခံ (Asia Drama Conference) မှာ အထူးဂုဏ်ပြုဆုကို လက်ခံရယူသွားဖို့ရှိပါတယ်။

တောင်ကိုးရီးယားနိုင်ငံ Incheon မြို့မှာ ကျင်းပသွားမှာဖြစ်ပြီး YoonA နဲ့ တရုတ် မင်းသား Luo Jin တို့နှစ်ဦးဟာ အာရှယဉ်ကျေးမှုချင်းဖလှယ်တဲ့ ရုပ်ရှင်ကားဖြစ်တဲ့ God of War, Zhao Yun ဇာတ်ကားကို ရိုက်ကူးခဲ့တဲ့အတွက် ဂုဏ်ပြုဆုကို လက်ခံရရှိမှာဖြစ်ပါတ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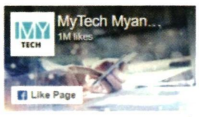


ပြီးခဲ့တဲ့နှစ်က YoonA ပါဝင်သရုပ်ဆောင်ထားတဲ့ God of War, Shao Yun ကားကို တရုတ်နိုင်ငံမှာ တရားဝင်ပြသခဲ့ပြီး နှစ်ကိုယ်ခွဲ သရုပ်ဆောင်ထားတာဖြစ်ပါတယ်။ အဲဒီဒရမ်မာကားဟာ တစ်နိုင်ငံလုံးအတိုင်းအတာနဲ့ ကြည့်ရှုသူများခဲ့ပြီး အွန်လိုင်းစာမျက်နှာပေါ်မှာတော့ ကြည့်ရှုသူ ၁၀ ဘီလီယံ ခန့်ရှိခဲ့ပါတယ်။



ဒီနှစ်မှာတော့ YoonA ဟာ မင်းသား Im Si Wan နဲ့ Hong Jong Hyun တို့နဲ့အတူ The King Loves ဆိုတဲ့ ကားမှာ သရုပ်ဆောင်ထားပါတယ်။

အာရှဒရမ်မာညီလာခံဟာ အကြီးဆုံးဒရမ်မာညီလာခံတစ်ခုဖြစ်ပြီး နာမည်ကျော်စာရေးဆရာတွေ၊ ထုတ်လုပ်သူတွေနဲ့ သရုပ်ဆောင်များစွာ တက်ရောက်ကြတဲ့ပွဲတစ်ခုဖြစ်ပါတယ်။



Be the first of your friends to like this

Trending Posts


Beauty & Fashion | အလှအပ - Beauty | အသားအရေ - Skincare
ဆောင်းတွင်းအသားအရေမြောက်တဲ့သူတွေအတွက် သံလွင်ဆီကို ဘယ်လိုသုံးမလဲ


Beauty & Fashion | အလှအပ - Beauty
အလုပ်ရှုပ်တဲ့ မိန်းကလေးတွေသိသင့်တဲ့ အလှပဆိုင်ရာ နည်းလမ်းများ


Lifestyle | တေးဂီတ - Music | ကြယ်ပွင့်တွေရဲ့ စတိုင် - Stars & Style
မကြာသေးခင်ရက်ပိုင်းက ကွယ်လွန်သွားခဲ့တဲ့ SHINee အဖွဲ့ဝင် Jonghyun ရဲ့ပရိသတ်တွေမေ့လို့မရနိုင်တဲ သီချင်းကောင်းများ


Beauty & Fashion | မိတ်ကပ် - Make Up | အလှအပ - Beauty
မျက်မှန်တပ်ထားတဲ့ မိန်းကလေးတွေအတွက် မိတ်ကပ်လိမ်းနည်းလေးတွေ

Bikin Bangga, Yoona Girls Generation Akan Terima Penghargaan Khusus di Asia Drama Conference ke-12

Rabu, 25 Oktober 2017 08:34



Yoona Girls Generation

TRIBUNJATIM.COM - Debut sebagai member Girls Generation, Yoona kini disibukkan dalam aktivitas solonya.

Beberapa tahun ini, Yoona memang tengah sibuk membintangi sejumlah drama dan film.

Terakhir, mantan kekasih Lee Seung Gi ini beradu akting dengan Im Siwan dan Hong Jong Hyun dalam drama historikal, "The King Loves."

Bertahun-tahun menggeluti dunia akting, Yoona kini mulai diakui kualitasnya.

(Selain Tetangganya, Siwon Super Junior Ternyata Juga Pernah Jadi Korban Gigitan Bugsy Saat Wamil)

Visual Girls Generation ini baru saja mendapat penghargaan khusus.

Dilansir dari Soompi, Yoona terpilih menjadi artis yang akan menerima penghargaan khusus pada Asia Drama Conference ke-12.

Asia Drama Conference merupakan konferensi drama terbesar yang mengumpulkan para penulis, produser, dan pihak-pihak berpengaruh yang berperan aktif dalam industri drama.

berita POPULER

Sang Anak Pakai Baju Model Begini Saat Pesta, Netizen Ramai-Ramai
3 jam lalu

Ini Dia Putri Michael of Kent, Keluarga Kerajaan Inggris Paling
6 jam lalu

Waduh, Jangan Syok Lihat Foto Bibir Ariel Tatum dari Dekat, Ternyata
5 jam lalu

VIDEO: Seorang Pria Dibunuh di Gembong Sawah, Berikut Identitas
10 jam lalu

Diam-Diam Syahrini Jadi Bahan Hujatan Banyak Orang di Luar Indonesia...
1 jam lalu

TribunJualBeli Prev Next

All New Nissan March XS 1.5 A/T 2013 Mulus Terawat Bisa
5 jam lalu - DKI Jakarta

Waduh, Jangan Syok Lihat Foto Bibir Ariel Tatum dari Dekat, Ternyata...
5 jam lalu

VIDEO: Seorang Pria Dibunuh di Gembong Sawah, Berikut Identitas...
10 jam lalu

Diam-Diam Syahrini Jadi Bahan Hujatan Banyak Orang di Luar Indonesia...
1 jam lalu

TribunJualBeli Prev Next

All New Nissan March XS 1.5 A/T 2013 Mulus Terawat Bisa
5 jam lalu - DKI Jakarta

Suzuki Satria FU 150 Injection 2016 Second Mulus No Modif
5 jam lalu - DKI Jakarta

Motor Matic Second Yamaha Mio Fino 2017 Paiak Paniang
5 jam lalu - DKI Jakarta

Cari barang/jasa Pasang Iklan

TRIBUNnews.com Network © 2017 · About Us · Help
Privacy Policy · Pedoman Media Siber · Terms of Use
Redaksi · Info Iklan · Contact Us

80	Date	2017.10.25		
	Media	VTV NEWS (베트남)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SNSD 윤아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		

YoonA (SNSD) được ghi nhận đặc biệt bởi đóng góp lớn cho sự giao lưu văn hóa

PV Thứ tư, ngày 25/10/2017 08:00 GMT+7

Thích Chia sẻ LinkHay Gửi



VTV.vn - Nữ diễn viên, ca sĩ nổi tiếng của Hàn Quốc - YoonA sẽ nhận được giải thưởng đặc biệt tại Asia Drama Conference tới đây.

- YoonA (SNSD): Đã đến lúc nghỉ ngơi một chút
- YoonA (SNSD) tiết lộ lý do cắt phăng mái tóc dài
- YoonA kiên trì đến cùng để được bỏ mác "thần tượng đóng phim"

Asia Drama Conference lần thứ 12 sẽ được tổ chức tại thành phố Incheon vào ngày 30/10 tới đây. YoonA - nữ diễn viên, ca sĩ nổi tiếng của Hàn Quốc và nam diễn viên Trung Quốc La Tấn là những khách mời đặc biệt tại sự kiện. Cặp đôi được vinh danh bởi những đóng góp của mình trong việc trao đổi văn hóa châu Á thông qua bộ phim truyền hình cổ trang "God of War, Zhao Yun".

Năm ngoái, thành viên nhóm nhạc SNSD đã đóng bộ phim truyền hình *God of War, Zhao Yunwhere* và nhận được rất nhiều lời khen. Bộ phim một lần nữa giúp cho tên tuổi của YoonA nổi tiếng tại Trung Quốc. Bộ phim đã nhận được lượt xem kỷ lục, vượt qua 10 tỷ lượt xem trên mạng.

Asia Drama Conference là hội nghị về phim truyền hình lớn nhất tại châu Á, có sự tham gia của các biên kịch, nhà sản xuất và những người đóng vai trò tích cực trong ngành công nghiệp phim truyền hình. Hội nghị là cơ hội để các chuyên gia cùng nhau thảo luận, bàn bạc để phát triển các ý tưởng mới, mở rộng quy mô ở nước ngoài và hợp tác sản xuất chung.



YoonA (SNSD): Đã đến lúc nghỉ ngơi một chút



YoonA (SNSD) tiết lộ lý do cắt phăng mái tóc dài



YoonA kiên trì đến cùng để được bỏ mác "thần tượng đóng phim"

81	Date	2017.10.27		
	Media	KBS World (일본)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SNSD 윤아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		



‹ » 3 / 5

KBS 20th Anniversary WORLD Radio

20th Anniversary of Internet Service

2017.12.24 Sun Honolulu 03:30

Select Language

ニュース | 番組 | KBS WORLD Radio について | 受信方法 | All Menu

新着ニュース TWICEが新人部門3冠 日本オリコン年間ランキング ‹ II ›

受信報告書

文化・芸能

トップページ › ニュース › ニュース › 文化・芸能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 30日に永宗島で開幕

入力 : 2017-10-27 10:15:22 修正 : 2017-10-27 10:15:22

アジア最大規模のドラマ専門カンファレンス「第12回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が30日から11月2日まで、仁川（インチョン）永宗島（ヨンジョンド）のパラダイスシティで開かれます。
今回は、「境界を越えるドラマ：ジャンル、国境、プラットフォーム」というテーマで開かれ、韓国、日本、中国など、11か国から200人あまりのドラマ作家や制作者参加します。
日本からは、韓国でも人気が高かったドラマ「東京タワー」などを制作したフジテレビの久保田哲史さんと「精霊の守り人」を制作したNHKエンタープライズの片岡敬司監督が日本ドラマの海外進出戦略について発表する予定です。
また、日本の原作だけでなく、韓国のリメイク版も好評だったドラマ「結婚できない男」の原作者の尾崎将也さんも参加し、原作とリメイク版を分析します。
他にも、中国からは動画配信プラットフォーム「优酷」のドラマ制作者やアメリカの動画配信プラットフォームの楽天ビキの関係者も参加するということです。
アジアドラマカンファレンスは、2006年釜山で初めて開催されて以来、各国のドラマ作家や製作者の交流の場となっています。

RSS Facebook Twitter 印刷 一覧 Top

ニュース一覧

- TWICEが新人部門3冠 日本オリコン年間ランキング 2017-12-23
- 故ジョンヒョンさんの告別式 海外ファンも追悼 2017-12-22
- 米芸能メディア「韓国のアイドル産業は、「ハンガー・ゲーム」 2017-12-21
- IU 世論調査会社による「ことしの歌手」に 2017-12-20
- SHINeeのジョンヒョン 遺書公開される 2017-12-19
- SHINeeのジョンヒョン 自殺か 2017-12-19

Win.K KBS WORLD Radio Internet Radio ON-AIR

Win.K 24 Win.K 11 Win.K MUSIC Win.K KPOP+

最新ニュースを聴く Listen Audio Again

韓国語を学ぼう Mobile

KBS WORLD Radio 北韓インサイド

主要ニュース

- 国連安保理 新たな北韓制裁決議を採択
- 朝鮮籍の在日コリアン 韓国入国制限を緩和へ
- 29人が死亡した火事 警察が原因解明に着手

82	Date	2017.10.28		
	Media	Korea Joonang Daily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to begin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to begin

Oct 28,2017



Asia's largest drama festival,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will be held from Oct. 30 to Nov. 2, at the Paradise City of Yeongjong in Incheon.

Having "Drama Beyond Frontiers: Genre, Border, Platforms" as its theme, approximately 200 drama scriptwriters and producers from 11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Indonesia, will join the conference. The aim of this conference is to share ideas on having Asian dramas spread worldwide.

During the event, Korean singer-actor Im Yoon-ah of Girls' Generation will be awarded for her role in "God of War, Zhao Yun" on Hunan TV, and in particular for her contribution to cultural exchange.

In the conference, Kubota Satoshi of Fuji TV, which produced "Tokyo Tower" and Kataoka Hiroshi of NHK Enterprises, which produced "Moribito - Guardian of the Spirit" will have a presentation on strategies to export Japanese drama abroad. Directors from Youku, a Chinese video platform, will briefly explain the current state of how animation and novels have been adapted to drama.

An insider of the Culture Ministry said, "By having not only Asian countries but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the participants would be able to discuss about the globalization of Asian dramas in a wider perspective."

The first conference started in 2006, and since then, it has become a place where TV drama insiders share ideas.

By Hong You-kyoung

Bilingual Editorials more

Nothing's changed

Beijing is breaking bad

Audio News more

Relatives protest lax rescue efforts

Kang's diplomatic save

INSIDE K-Wave more

Anda denies knowing UAE sheik's nephew

The nephew of Sheik Mansour,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Unite d Arab Emirates...

Six-member Infinite to drop album in January

Boy band Infinite will release its th ird full-length album next month...

What's Popular Now

National Business Opinion Culture

1 Moon asks U.S. to postpone joint drills
2 Another soldier defects at DMZ
3 Relatives protest lax rescue efforts
4 UNSC unanimously adopts new sanctions
5 Jecheon blaze leaves 29 dead, 29 injured
6 Beijing again blocks group tours from
7 Blue House changes story on murky UAE
8 UN to vote on new sanctions against

83	Date	2017.10.28		
	Media	매일두조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뤄진, 제12회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시상식 참석		

10.30，罗晋将受邀出席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颁奖典礼。







#罗晋亚洲电视剧协会#10.30

The 12th ASIANTV DRAMA CONFERENCE

#罗晋##罗晋亚洲电视剧协会#

红尘万丈，茫茫人世，

一声叹息，叹花开几度，

惹得相思染尽寂夜，

剪影的你轮廓太好看，

凝住眼泪才敢细看！

84	Date	2017.10.30		
	Media	Baidu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뤄진, 점퍼와 롱다리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완벽한 공항패션 공개		



罗晋身穿飞行夹克，配灰色连帽卫衣，搭配棒球帽，和白色球鞋，看起来帅气十足。

Bai百度

罗晋最新机场照曝光，身穿夹克，长腿抢镜！

西西素视
[illegible] 10-30 10:50



10月30日，罗晋现身机场，此次罗晋受邀出席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颁奖典礼。



罗晋完美的表现了自身所具有的时尚感，以及本身所具有的独特的时尚表现力。



罗晋最新机场照曝光，身穿夹克，长腿抢镜！

85	Date	2017.10.30		
	Media	Hancinema (영미권/글로벌)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 Korean drama a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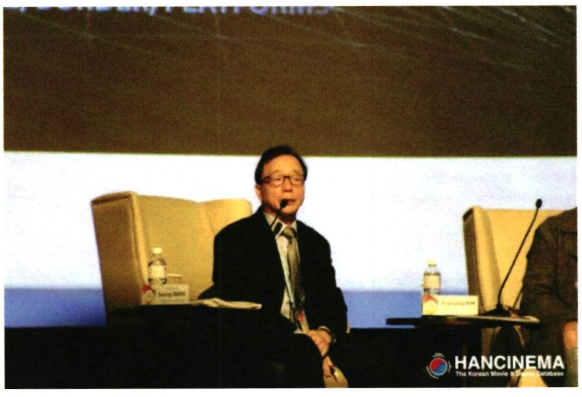
Back **[HanCinema's Live Report] The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 Korean drama and the world**

2017/10/30 | 599 views | 0 Comment | Permalink

Tweet 좋아요 36개 공유하기



From all over Asia directors, producers, writers, and industry professionals have gathered to talk about Asian drama and its place in the world market and its globalization potential. The presenters in the morning conference see great things for the expansion of drama internataionally as well as a few major obstacles. Moments ago the presentation on Korean drama and its popularity ended. Here are some highlights:



Professor Baek Seongi

1) Professor Baek Seongi of th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Department is the panel moderator and an expert in Korean drama and its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focusing mostly on Asia. Professor Baek has been studying Korean drama for over twenty years.



Kim Younsung

2) Kim Younsung, the business managing director of Starcollabo Media, gave a presentation 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drama, centering on the American adaptation of "Good Doctor" and citing the importance of creating Korea drama content that is easily palatable for the international market as well as focusing more on developing other characters outside the main romantic pairing in order to have a broad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ach, especially in the American market that is saturated with character-rich television. His talk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me as the managing editor of HanCinema,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drama audience, and someone interested in the academic aspect of drama.

HANCINEMA 퓨어 PURE

Subscribe to HanCinema Pure to remove ads from the website (**not** for episode and movie videos) for US$2.99 per month (you can cancel anytime).
The first step is to be a member, please click here : **Sign up**, then a subscribe button will show up.

Settings
Remove ads Sign up | Sharing Activate | Spoilers Visible, hide



Drama of the week



Hidden Identity
(신분을 숨겨라 - 2015)
More

Watch Clips of Your Favorite K-Dramas on Viki TV


INTERVIEW | The Audience Gets Pouty with Ok Taecyeon once He Reveals That He Won't Wear School


INTERVIEW | The "Save Me" Cast Reveals The Reasons You Should Watch Their New Drama


Ep. 7 | "Bride of The Water God" Releases A New OST


Ep. 3 | Yeo Jin Goo Rushes to Get His Room Ready for Gong Seung Yeon

Today's birthdays
2017/12/24


Park Sang-jo (박상조)


Sun-woo Eun-sook (선우은숙)


Eriko Kitagawa (北川悦吏子)

Kim Yoo-jin-ii (김유진)

Oh Se-kang (오세강)


Choi Jin-sil (최진실)


Kim Hak-sun (김학선)


Hwang Soo-jung (황수정)


Yoon Mi-young (윤미영)


Gil (길)


Baek Seung-bin (백승빈)


No Min-hyuk (노민혁)


Cho Hyun-chul (조현철)


Park Jin-joo (박진주)


Kim Jae-kyung (김재경)


Kim Yun-ah-i (김연아)

Mr. Kim explained that entertainment and variety programs are easier to export than dramas because dramas come in collections of sixteen or twenty episodes whereas variety program episodes can be created one at a time. But if the content is easily translatable in terms of content and formatting, then Korea can export more drama as more than just a finalized product: ie. remakes. As of now, the focus is on the U.S. market, but creation of drama is going in a new direction. Creators have to think of global appeal when concepting, and that is an exciting prospect!

Adapting Korean drama succesfully has proved diffcult in the past with the prime example being **"Nine: Time Travelling Nine Times"** that was brought to the U.S. and killed in the pilot stage. **"Good Doctor"** is the first truly successful remake that earned 4.5% ratings at its highest. (Compare this to the norm of 1.5% to 2% ratings). Because the U.S. market is so saturated with remake offers from other countries, the most important action that Korean dramas can take is to continually make efforts to break into the U.S. market. A sheer flood of effort willhelp make Korean drama better known in that market and in others.



Ma Jung-eun

3) Profit sharing was a topic touched on. We know as consumers of Korean drama how powerful broadcasting companies are and that they control most of what happens in drama production. Mr. Kim and Professor Baek commented on how important it is for the writers and producers to also tap into the profit sharing, and I have to agree. Without writers, there is no story. Without producers and broacasters, the story cannot be realized. These people deserve to have a part in profit sharing. Not only is profit sharing something that directly impacts the creators, but it also informs how its consumed by the international market. All of this information has real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dramas we all know and love.

It's wonderful to be part of a conference that talks about how to improve the global reach of the content, the drama, we know and love. There will be more presentations from drama writers, producers, and directors throughout the day. Stay tuned for more!

What questions do you have for drama creators?



86	Date	2017.10.30		
	Media	iyaa.com (인도네시아)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멋지다! "Dunia terbalik (뒤바뀐 세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참가		

iyaa.com

cari...

MEDIA | TV

Mantap! 'Dunia Terbalik' Masuk Asian TV Drama Conference

30 October 2017 | Editor : Putri Arya



iyaa.com | Jakarta: Sinetron *Dunia Terbalik* kembali raih penghargaan di ajang Panasonic Gobel Awards 2017 dan Anugerah KPI 2017. Setelah raih beragam penghargaan, *Dunia Terbalik* kembali unjuk prestasi di Asian TV Drama Conference.

"Wiiih poster DT ada di Asian TV Drama Conference lhooooo 👏👏👏. MantaaaaaB😁😁," tulis akun official Dunia Terbalik.



❤ 좋아요 2,627개 💬 댓글 80개

Wiiih poster DT ada di Asian TV Drama Conference lhooooo 👏👏👏. MantaaaaaB 😁😁. . #DramaRCTI

OCTOBER 30

Lewat poster *Dunia Terbalik* yang terpampang di Asian TV Drama Conference, Guntara Hidayat alias Koswara turut mengucap syukur. "Waw.....alhamdulillah," tulis @hidayatguntara.

Seperti diwartakan *Korea JoongAng Daily*, Sabtu (28/10/2017), Asian TV Drama Conference digelar untuk yang ke-12 kalinya di tahun 2017. Mengambil tema *Drama Beyond Frontiers: Genre, Border, Platforms*, sekitar 200 penulis naskah drama dan produser dari 11 negara termasuk Korea, China, Jepang dan Indonesia akan bergabung dalam konferensi tersebut.

Tujuan dari konferensi ini adalah untuk berbagi gagasan atau bertukar pikiran tentang darma Asia yang tersebar di seluruh dunia. 12th Asian TV Drama Conference diselenggarakan mulai 30 Oktober 2017 hingga 2 November 2017 di Paradise City, Incheon, Korea Selatan.

TERBARU


Perankan Mr. Money 'Uang Kaget', Begini Perasaan Kriss Hatta


Film Baru Cha Tae Hyun 'Along With the Gods' Tembus 1 Juta Penonton dalam 2 Hari


Sinopsis 'Siapa Takut Jatuh Cinta' 22 Desember 2017: Vino Kerjai Laras


INFINITE Akhirnya Comeback setelah Kepergian Hoya


Sinopsis Sinema Wajah Indonesia: Mengejar Impian

Penuhi Janji Rating, Ini yang Dilakukan Yoo Ji Tae, Ryu Hwa Young, Kim Hye Seong 'Mad Dog'

Lee E! Berubah Menjadi Sekretaris yang Karismatik di Potongan Gambar tvN 'Hwayugi'


Fathir Muchtar Ulang Tahun, Begini Kejutan Spesial dari Pemain 'Anak Langit'

Terlalu Manis, Chef Gordon Ramsay Anggap Jajanan Korea Ini Merusak Cita Rasa Lidahnya?

87	Date	2017.10.30		
	Media	dienanh.net (베트남)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아시아의 위대한 상을 받은 윤아의 미모		



TRANG CHỦ PHIM ĐÁNH GIÁ BÀI VIẾT

Yoona xinh đẹp bên La Tấn điển trai sánh vai nhận giải thưởng khủng của Châu Á

Phương Thảo 17:08 - 30/10/2017

Ngày 30/10 Hội Nghị Phim Truyền Hình Châu Á lần thứ 12 đã được tổ chức ở Incheon.

Đây là cuộc hội nghị lớn nhất về thể loại phim truyền hình, quy tụ các biên kịch, nhà sản xuất, và những người đóng vai trò tích cực, có tầm ảnh hưởng lớn trong ngành công nghiệp phim truyền hình. Sự kiện này cho phép các chuyên gia thu thập để phát triển các ý tưởng mới, thảo luận về mở rộng tầm ảnh hưởng ở nước ngoài và ngành sản xuất nói chung.

Yoona xuất hiện với hình ảnh giản dị trên thảm đỏ. Make up nhẹ với mái tóc tạo kiểu khá tự nhiên. Bộ váy cũng không quá cầu kì. Tuy nhiên Yoona vẫn vô cùng nổi bật, đặc biệt là nhờ vào làn da trắng sáng, mịn màng không tì vết của cô nàng.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ằ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Avengers: Infinity War | Cuộc Chiến Vô Cực

Mẹ Chồng

CoCo - Hội Ngộ Diệu Kỳ





Với sự đóng góp trong việc trao đổi văn hoá châu Á, Yoona và La Tấn đã được vinh danh trong hội nghị và cùng nhau đón nhận giải thưởng đặc biệt.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Avengers: Infinity War | Cuộc Chiến Vô Cực


Mẹ Chồng



CoCo - Hội Ngộ Diệu Kỳ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Avengers: Infinity War | Cuộc Chiến Vô Cực


Mẹ Chồng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Khoảnh khắc rạng rỡ, vui mừng của Yoona khi nhận giải thưởng.



La Tấn cũng lần lội sang Hàn Quốc nhận giải. Anh chàng diện vest lịch lãm, bảnh trai.



Chủ nhân của những giải thưởng đặc biệt trong Hội nghị.





Yoona và La Tấn nhiều lần sánh vai cùng nhau trong sự kiện.

Chúc mừng cho sự đóng góp của La Tấn và Yoona đã được công nhận bằng một giải thưởng danh giá.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BÀI VIẾT MỚI


Toàn cảnh idol Hàn đón Giáng sinh: người chạy show mệt nghỉ, người tất bật làm từ thiện


Kinh đô ánh sáng Paris xa nhớ, Giáng sinh tới rồi "HanGukSe" có khỏe không?


Bí mật đồng trời của thần tượng Kpop ngay cả fan ruột cũng chưa từng nghe qua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Avengers: Infinity War | Cuộc Chiến Vô Cực


Mẹ Chồng


Fan Cbiz tìm ra lý do vì sao mỗi lần Ngô Diệc Phàm xuất hiện là đều gây sốt điên đảo

PHIM NỔI BẬT


Avengers: Infinity War | Cuộc Chiến Vô Cực


Mẹ Chồng


CoCo - Hồi Ngô Diệu Ký

90	Date	2017.10.31		
	Media	Sohu오락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중국드라마<국민대생활> 아시아 드라마컨퍼런스 참여		

中国电视剧《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2017-10-31 22:53 国民大生活 编剧

10月31日，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作为一年一度亚洲国家电视人的盛会，这次大会的主题是打破界限：类型、国家和平台，金牌编剧王丽萍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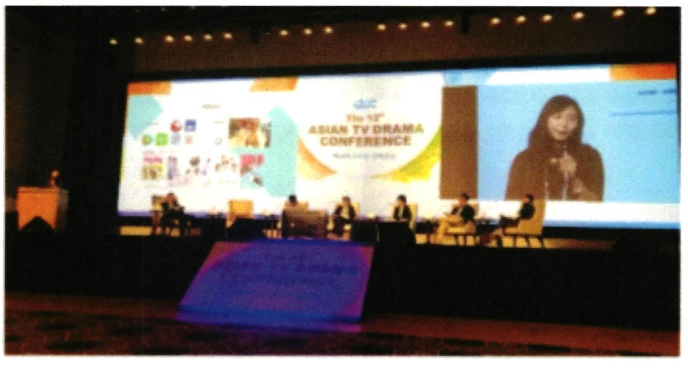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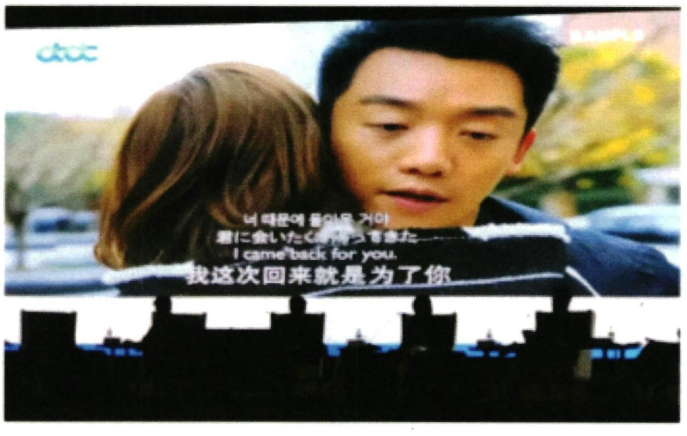


据悉，从首届亚洲编剧大会举办以来，今年已是王丽萍第十二次受邀参加，由她创作的作品更是多次获得各国电视人的高度认可。在第五届亚洲电视剧研讨会上，王丽萍获得"亚洲文化贡献奖"；第十届亚洲电视研讨会中，演员胡歌凭《大好时光》和《生活启示录》荣获"亚洲特别贡献奖"。



青年编剧鲁琦作为编剧代表在会上以该剧为例，讲述如何刻画电视剧的人物，故事和情感，用该剧播放的收视率、网络关注量等大数据做出详细分析，并放眼当下，探讨亚洲优秀电视剧动态。





原创现实题材情感大剧《国民大生活》已于10月29日迎来完美收官，播出期间居同档收视率第一，网络播放量至今突破16亿，该剧讲述了北京小伙王舒望（郑恺饰）和上海姑娘陆嘉（袁姗姗饰）在繁华都市中执着追求理想与爱情的故事，传递出"真善美"的人生正能量，获得了观众广泛好评，刚播完即走出国门在亚洲电视剧研讨会上亮相，相信也会也引起新一波的关注与讨论。

88	Date	2017.10.31		
	Media	Baidu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뤄진, 시상식 슈트패션 네티즌 화제 : 남신강림, 멋짐폭발		

Baidu 百度

罗晋亮相颁奖典礼 穿西装低调内敛 网友：展男神魅力，帅到飞起

娱乐大魔客
百家号 10-31 07:40



罗晋出席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颁奖典礼。一身西装展男神魅力，并且还获得了特别贡献奖。罗晋在微博中还写道："个体表演的酣畅淋漓，永远离不开群体搭建的艺术环境。所以要感谢过去合作过和未来将要合作的每一位朋友，感谢亚洲电视剧研讨会。道阻且长，行则将至！"真的是帅到爆表，演技也在线，被你圈粉了！



网友表示：匠人精神做一个好演员，特别贡献奖，实至名归！恭喜罗晋！你的帅不仅仅是颜值，更是你那独特的魅力！



不跨众取宠，仅专注于低调，谦卑，踏实地演戏，人品、演技、颜值俱佳！为我偶像罗晋打call，罗晋在台上领奖，好帅哦！



还有网友表示：有型的西装真的很衬罗晋气质，帅的无敌啊，满屏的大长腿！罗晋旁边的允儿也超级美，一双大长腿美到飞起！



罗晋亮相颁奖典礼 穿西装低调内敛 网友：展男神魅力，帅到飞起

90	Date	201711.01		
	Media	sina오락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왕리핑 작품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 컨퍼런스 참여		

新浪娱乐 > 电视前沿

王丽萍携《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2017.11.01 19:00:03 新浪娱乐

摘要：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王丽萍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国民大生活》参加研讨会

新浪娱乐讯 10月31日，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作为一年一度亚洲国家电视人的盛会，这次大会的主题是打破界限：类型、国家和平台，金牌编剧王丽萍[微博]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青年编剧鲁琦作为编剧代表在会上以该剧为例，讲述如何刻画电视剧的人物，故事和情感，用该剧播放的收视率、网络关注量等大数据做出详细分析，并放眼当下，探讨亚洲优秀电视剧动态。

据悉，从首届亚洲编剧大会举办以来，今年已是王丽萍第十二次受邀参加，由她创作的作品更是多次获得各国电视人的高度认可。在第五届亚洲电视剧研讨会上，王丽萍获得“亚洲文化贡献奖”；第十届亚洲电视研讨会中，演员胡歌[微博]凭《大好时光》和《生活启示录》荣获“亚洲特别贡献奖”。

原创现实题材情感大剧《国民大生活》已于10月29日迎来收官，播出期间居同档收视率第一，网络播放量至今突破16亿，该剧讲述了北京小伙王舒望（郑恺[微博]饰）和上海姑娘陆露（袁姗姗[微博]饰）在繁华都市中执着追求理想与爱情的故事，传递出“真善美”的人生正能量，获得了观众广泛好评，刚播完即走出国门在亚洲电视剧研讨会上亮相，相信也会也引起新一波的关注与讨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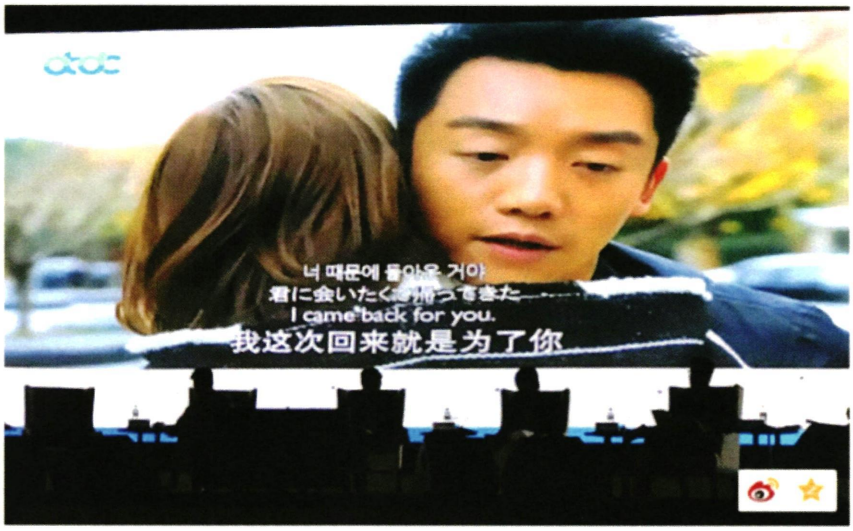
91	Date	201711.01		
	Media	봉황망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참여		

《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2017年11月01日 10:44:37

来源：凤凰网娱乐

4 参与 4 评论



《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10月31日，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作为一年一度亚洲国家电视人的盛会，这次大会的主题是打破界限：类型、国家和平台，金牌编剧王丽萍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青年编剧鲁琦作为编剧代表在会上以该剧为例，讲述如何刻画电视剧的人物，故事和情感，用该剧播放的收视率、网络关注量等大数据做出详细分析，并放眼当下，探讨亚洲优秀电视剧动态。

据悉，从首届亚洲编剧大会举办以来，今年已是王丽萍第十二次受邀参加，由她创作的作品更是多次获得各国电视人的高度认可。在第五届亚洲电视剧研讨会上，王丽萍获得“亚洲文化贡献奖”；第十届亚洲电视研讨会中，演员胡歌凭《大好时光》和《生活启示录》荣获“亚洲特别贡献奖”。

原创现实题材情感大剧《国民大生活》已于10月29日迎来完美收官，播出期间居同档收视率第一，网络播放量至今突破16亿，该剧讲述了北京小伙王舒望（郑恺饰）和上海姑娘陆露（袁姗姗饰）在繁华都市中执着追求理想与爱情的故事，传递出“真善美”的人生正能量，获得了观众广泛好评，刚播完即走出国门在亚洲电视剧研讨会上亮相，相信也会也引起新一波的关注与讨论。

92	Date	201711.01		
	Media	E도시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컨퍼런스 참여		

《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2017年11月01日 11:00:44 来源：凤凰网 编辑：影魔 举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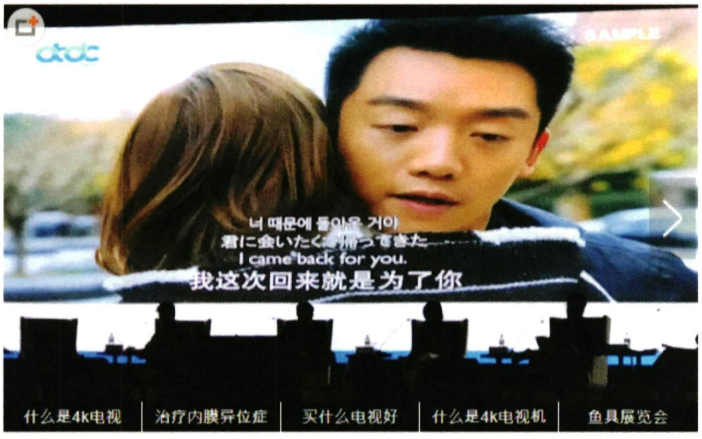
0

微信

QQ

QQ空间

微博



《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10月31日，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作为一年一度亚洲国家电视人的盛会，这次大会的主题是打破界限：类型、国家和平台，金牌编剧王丽萍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青年编剧鲁琦作为编剧代表在会上以该剧为例，讲述如何刻画电视剧的人物，故事和情感，用该剧播放的收视率、网络关注量等大数据做出详细分析，并放眼当下，探讨亚洲优秀电视剧动态。

据悉，从首届亚洲编剧大会举办以来，今年已是王丽萍第十二次受邀参加，由她创作的作品更是多次获得各国电视人的高度认可。在第五届亚洲电视剧研讨会上，王丽萍获得亚洲文化贡献奖；第十届亚洲电视研讨会中，演员胡歌凭《大好时光》和《生活启示录》荣获亚洲特别贡献奖。

原创现实题材情感大剧《国民大生活》已于10月29日迎来完美收官，播出期间居同档收视率第一，网络播放量至今突破16亿，该剧讲述了北京小伙王舒望（郑恺饰）和上海姑娘陆露（袁姗姗饰）在繁华都市中执着追求理想与爱情的故事，传递出真善美的人生正能量，获得了观众广泛好评，刚播完即走出国门在亚洲电视剧研讨会上亮相，相信也会也引起新一波的关注与讨论。

93	Date	201711.01		
	Media	대중망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왕리핑 작품 <국민대생활> 아시아드라마 컨퍼런스 참여		

王丽萍携《国民大生活》参加亚洲电视剧研讨会

2017-11-01 10:09:24 来源: 新浪娱乐 作者:

儿童娱乐加盟 亚洲留学 儿童娱乐设备 会议研讨系统 国汇亚洲
水上娱乐设备 博鳌亚洲湾 研讨会会务公司 娱乐电玩 天天娱乐电玩城 广告

新浪娱乐讯 10月31日，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在韩国仁川隆重举行，作为一年一度亚洲国家电视人的盛会，这次大会的主题是打破界限：类型、国家和平台，金牌编剧王丽萍[微博]和团队携最新作品《国民大生活》参加此次研讨会。

本次亚洲电视剧研讨会包括多场主题论坛和交流活动，汇集了来自中国、韩国、日本、新加坡、越南等11个国家近250多位编剧、导演、制作人。由中国金牌编剧王丽萍携手鲁琦、张洋共同打造的《国民大生活》作为中国唯一一部参会的台播剧受到了与会人员的广泛关注。

青年编剧鲁琦作为编剧代表在会上以该剧为例，讲述如何刻画电视剧的人物，故事和情感，用该剧播放的收视率、网络关注量等大数据做出详细分析，并放眼当下，探讨亚洲优秀电视剧动态。

据悉，从首届亚洲编剧大会举办以来，今年已是王丽萍第十二次受邀参加，由她创作的作品更是多次获得各国电视人的高度认可。在第五届亚洲电视剧研讨会上，王丽萍获得“亚洲文化贡献奖”；第十届亚洲电视研讨会中，演员胡歌[微博]凭《大好时光》和《生活启示录》荣获“亚洲特别贡献奖”。

原创现实题材情感大剧《国民大生活》已于10月29日迎来收官，播出期间居同档收视率第一，网络播放量至今突破16亿，该剧讲述了北京小伙王舒望（郑恺[微博]饰）和上海姑娘陆露（袁姗姗[微博]饰）在繁华都市中执着追求理想与爱情的故事，传递出“真善美”的人生正能量，获得了观众广泛好评，刚播完即走出国门在亚洲电视剧研讨会上亮相，相信也会也引起新一波的关注与讨论。

(责编：得得)

94	Date	2017.11.06		
	Media	koreabanget.com (인도네시아)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소녀 시대 윤아 특별상 수상		

KEREN BANGET! YOONA SNSD AKAN TERIMA PENGHARGAAN SPESIAL DALAM 12TH ASIA DRAMA CONFERENCE

FEATURED MISCELLANEOUS NEWS · NOVEMBER 1, 2017 · 65 · 0

SHARE:



Superfans, lagi-lagi YoonA SNSD ngasih kejutan buat penggemarnya nih. *Idol* merangkap aktris yang satu ini akan segera menerima penghargaan khusus dalam 12th Asia Drama Conference!



Ajang 12th Asia Drama Conference akan digelar pada tanggal 30 Oktober mendatang di Paradise City, Incheon. Bersama aktor Tiongkok Luo Jin, YoonA akan mendapatkan penghargaan khusus atas kontribusi mereka dalam menyebarkan budaya masing-masing lewat drama "God of War, Zhao Yun".

Tahun lalu, YoonA secara resmi telah debut di Tiongkok lewat drama "God of War, Zhao Yun". Ia berhasil menyelesaikan perannya dan meraih kesuksesan besar. Drama itu pun berhasil menempati rating tertinggi di level nasional. Bahkan, drama itu telah ditonton sampai 10 miliar kali loh!

Sementara itu, The Asia Drama Conference merupakan acara terbesar yang mengumpulkan penulis, produser, dan berbagai orang yang terlibat dalam industri drama. Konferensi ini mempertemukan para profesional di bidangnya untuk bertukar pendapat, mempertuas jaringan ke luar negeri, atau bahkan mengadakan kerja sama produksi.

Bangga banget deh sama YoonA! Kira-kira bakal ada prestasi apa lagi ya dari Eonnie kesayangan kita ini, Superfans?



TAKE A QUIZ

PUNYA ADEGAN DRAKOR FAVORIT? TUNJUKIN
DESEMBER 19, 2017



HAYO NGAKU! TAYANGAN KOREA APA YANG PALING
NOVEMBER 30, 2017



TUNJUKKAN BAKAT TERPENDAMMU SEPUTAR
NOVEMBER 16, 2017



TUNJUKKAN DUKUNGAN DI #2017MAMA, MENANGKAN
NOVEMBER 15, 2017



BUKTIKAN KAMU SUPERFANS
NOVEMBER 13, 2017

POLL

WHO IS YOUR FUTURE HUSBAND?



Song Joong Ki
Lee Min Ho
Lee Jong Suk
Lee Seung Gi
Yoo Ah In

Votes 1,648

KATEGORI

- Featured
- K-Drama Reviews
- Miscellaneous
- News
- Quizzes & Events
- Videos

ARCHIVED POSTS

95	Date	2017.11.06		
	Media	Sohu오락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공헌상 수상 : 윤아, 왕리핑 작가와 함께 사진촬영		

罗晋获亚洲电视剧研讨会特别贡献奖，晒和林允儿王丽萍编剧合影

2017-11-06 12:50 罗晋 编剧 林允儿

近日，罗晋赶赴韩国，受邀参加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颁奖典礼。



早上，罗晋现身机场，一身打扮十分帅气。





95	Date	2017.11.07		
	Media	北辰资讯 (중국)	Media Type	온라인
	Headline	뤄진,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특별공헌상 수상 : 윤아, 왕리핑 작가와 함께 사진촬영		

罗晋获亚洲电视剧研讨会特别贡献奖，晒和林允儿王丽萍编剧合影

罗氏家人 2017-11-07 07:41:03

近日，罗晋赶赴韩国，受邀参加第12届亚洲电视剧研讨会颁奖典礼。





罗晋工作室 V
今天 18:22
#罗晋特别贡献奖##罗晋亚洲电视剧协会# 恭喜演员罗晋获得第十二届亚洲电视剧研讨会特别贡献奖！实力派 如他获奖感言所说，"在未来的日子里，我会带着最初的热情和一个虔诚从业者对观众的诚意，和大家一起拍出更多更好的作品。"期待ing～ 罗晋工作室的秒拍视频



罗晋上台演讲并发表获奖感言，感言十分真诚：在未来的日子里，我会带着最初的热情和一个虔诚从业者对观众的诚意，和大家一起拍出更多更好的作品。

罗氏家人
微信号：gh_a76f934741ee
《罗氏家人》公众号，宣传罗氏，向在监夫下！天下罗一家！籍贯：广东省梅州兴宁市大坪镇白云村开恒源罗氏 / 昭远 / 如月公22世孙（罗海新）
查看TA的文章>

热门图文




学习舞蹈究竟什么重要？


不要等你老了，才知道这些是幸福








你能找出几个裸体少女？4-6个正常，7-9个聪明，14-18高智商！


啪啪啪时，如何看女生是不是阅人无数？


必看！香港三大顶尖风水师详解2017年12生肖运势


一位帝国学问题分析家给有意移民海外人士的忠告


只有买大公司的保险，理赔才有保障？


老公的情商，决定了家庭的幸福





罗晋和著名编剧王丽萍合影，编剧也对罗晋做出了较高的评价。还直言明年是罗晋年了！





颁奖典礼现场，罗晋和编剧王丽萍，韩国当红女艺人允儿合影。



罗晋说：个体表演的酣畅淋漓，永远离不开群体搭建的艺术环境。所以要感谢过去合作过和未来将要合作的每一位朋友，感谢亚洲电视剧研讨会。道阻且长，行则将至！

免责声明

声明：素材来源于网络，版权归原作者所有，如您认为某些内容侵犯您的权益，请及时告知，我们核实将采取相应措施。谢谢！

별첨4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녹취결과

2017년 10월 31일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본회의> 녹취록

사회자(이인나): 다시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참석자께서는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착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컨퍼런스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 총 4개국어로 동시통역이 진행이 됩니다. 회의장에 입장하시기 전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통역기를 배부받으신 후에, 수신기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채널은 1번, 영어는 2번, 중국어는 3번, 일본어는 4번입니다.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참가해주신 아시아 각국의 참석자분들을 모시고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고자 잠시 기념촬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석해주신 제작자 여러분 그리고 작가님들께서는 모두 무대 앞쪽으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석자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사진의 프레임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사회자(이인나):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자리가 정돈이 되는대로 바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닝>

네,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이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요, 아시아의 작가와 제작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드라마 제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자 최근 한류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인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며, 파라다이스시티호텔, 포스코 건설, 한국영상위원회의 후원 아래 총 11개국의 드라마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컨퍼런스 소개영상>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작가, 제작자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주시면서, 명실상부 이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드라마 전문 컨퍼런스로 자리매김을 해 왔는데요. 특히 12회째를 맞는 올해는 11개국 20개로 참가 단체가 크게 확대되었고요. 또, 기존의 아시아 중심을 넘어 미국과 스웨덴 등 비 아시아권역까지 참가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올해야말로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은 시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도 영상에서 영상을 보셨겠지만요,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컨퍼런스를 계기로 만들어진 작품들인데요.올해 영상에는 일본 큐슈에서의 컨퍼런스를 계기로 태국과 일본이 공동 제작했었던 작품이 새롭게 소개되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드라마의 배경이 된 큐슈에 태

국 관광객이 2배로 급증하면서 일본 관광청으로부터 특별 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12회 컨퍼런스에서도 여기 계신 드라마 관계자 분들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또 뜻 깊은 토론을 통해서 또 다른 협력 아이디어가 꽃을 피우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각국의 작가님들과 제작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이 된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분들과 제작자분들께서 워낙 많이 참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작가입니다. 김운경님, 고선희님, 권도희님, 김윤영님, 김은희님, 김재은님, 박영숙님, 박재범님, 박지현님, 박진우님, 손근주님, 송정림님, 오지영님, 우소연님, 윤은경님, 전호성님, 정윤정님, 정형수님, 조윤영님, 주찬옥님, 허성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지숙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 제작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제현님, 유수열님, 손기원님, 신상윤님, 오성민님, 김희열님, 전산님, 이미지님, 김운호님, 황기용님, 곽홍석님, 마정훈님, 오남석님, 조한숙님, 김옥수님, 양세진님, 최정복님, 윤은정님, 김민님, 박현지님, 최순규님, 김경규님, 이해인님, 김지훈님, 김경규님, 이해인님, 김지훈님, 정성국님, 황보람님, 신선주님, 권은비님, 최선우님, 조인요님, 김호준님, 이월연님, 윤홍미님, 조준형님, 김연성님, 서영록님, 박영민님, 진해동님, 조은영님, 김홍섭님, 박상주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작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지모리 이즈미 사마, 요시무라 유 사마, 오자키 마사야 사마, 히사마츠 신이치 사마, 아라이 슈코 사마, 카시와바라 히로시 사마, 나카마치 아야코 사마, 사에키 베니오 사마, 카지모토 에미 사마, 이시바시 에리 사마, 이토 나노하 사마, 반 카즈히코 사마, 네,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본 제작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쿠라우치 히토시 사마, 코바야카와 아키노리 사마, 야마모토 타카시 사마, 가와사카 미유키 사마 , 오치 아츠시 사마, 카타오카 히로시 사마, 이치노 나오치카 사마, 나가오 아키라 사마, 스즈키 요시카즈 사마, 쿠보타 사토시 사마, 토쿠라 료지 사마, 고토 요스케 사마, 타치바나 야스히토 사마, 사노 나오코 사마, 우치마루 세츠코 사마, 니쿠라 토시야 사마, 이치카와 미호코 사마,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Ms. 왕리핑, Ms. 장잉, Ms.루치, Ms.창한, Ms. 유유, Ms.천시오링, Ms.로우 카이카이, Mr. 런샤오펑, Mr. 장싱쿤, Mr. 천원구이, Ms. 쉬춘옌, Mr. 장롄성, Mr. 루싱, Mr. 양샤오쥔, Ms.류링, Ms.관용, Ms.쑨양, Mr.우요우, and Ms. 판지에팅, 네, 발음을 정확히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콩에서 오셨습니다. Mr. 헨리 펑 감사합니다.

다음은 싱가폴입니다. Ms.춘화 리, Mr.리웅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Ms.비흐 반 판, Ms.티 반 안 풍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태국입니다. Ms.아루노샤 바누판, Ms.카니타 신보른. 감사합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입니다. Mr.타이탄 헤르마완 Mr.필리아디 쿠스마라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말레이시아입니다. Ms.이본 리, Ms.쿤완 림.감사합니다.

다음 필리핀입니다. Mr. 루엘 바야니, Mr. 마크 앤서니 가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Ms.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Ms. 코트니 맥라클란, Ms. 김사라, Mr. 문경민, Mr. 김재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 오셨습니다. Ms. 데보라 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드라마 제작자 그리고 또 차세대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백 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오늘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세계 커뮤니케이션 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신 백선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첫 번째 컨퍼런스의 시작을 열어줄 제작자 세션의 패널분들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드라마 제작자 패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를 해 주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백선기 교수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제 12회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좌장을 맡게 되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성균관대 신방과에 있으면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1997년부터 한국의 MBC 텔레비전 '사랑이 뭐길래' 가 중국에 소개되면서 크게 한류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 시점과 아울러 지난 20년동안 한류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어제 그 시상식과 더불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발제자들의 논문 주제가 대단히 생산적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대단히 쟁점적이며, 아시아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논문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전 세션인데, 주로 아시아 각 지역에 있는 드라마 제작자들의 세션입니다. 여러분들 팜플렛의 6페이지에서 7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플랫폼 관련자들의 특별세션이 있고 잠깐 커피 브레이크 한 다음에, 세 번째 세션에는 아마 그 방송에 있어서,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가들의 세션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굿 닥터' 를 제작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방영하게 한 작가도 나와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컨퍼런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의 발전을 위한 3대 축, 작가, 제작자, 플랫폼 관련자들이 총망라되서 각각의 좋은 주제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은, 오전 세션은 3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관련자, 제작자 분들이 발표하시고, 두 분의, 일본의 제작자 분들이 발표하시고 마지막에는 중국의 텔레비전 제작자가 발표하십니다. 팜플렛에서 보셔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발제는 기본적으로 40분인데 두 분이 발표할 때는 50분을 할애했습니다. 사회자가 사실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총평도 해야 되는데, 가장 우수한 사회자는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게 아마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작자분들이 준비해온 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게 숙지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게 사회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학자로서의 영광이고, 제작자들의 많은 이야기 그 다음에 플랫폼 관련자들, 그리고 작가들의 현실에서의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께도 그런 기회가 함께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0시부터 바로 40분동안 이어질 한국 제작자의 발표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처음 발제자는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이사님인데, 주제가 '아시아 드라마의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인데 그 중간중간에 한국의 텔레비전이 글로벌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잘 발표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김연성 이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세션1 한국제작자: 스타콜라보 김연성 제작자-아시아 드라마의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

발표자(김연성): 안녕하십니까, 스타콜라보의 김연성 이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드라마의 글로벌을 통해본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 포맷 활성화 중요성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가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는 주제인데요,

참, 시기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시아의 제작자 및 작가님, 그리고 프로듀서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장르의 파괴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에 있던 채널에서만 방송되던 그런 플랫폼의 시대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저 먼 글로벌 시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모이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콘텐츠의 시장 분석으로부터 아시아 드라마 글로벌화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침 주제를 잡다보니, '굿닥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세션에 오늘 이 자리에 '굿닥터'의 원작자이시면서 작가님이신 박재범 작가님이 계시기 때문에 '굿닥터'에 대한 내용들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박재범 작가님이 해주시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콘텐츠 시장 분석인데요, 오후 첫 세션에서 비키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하실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넷플릭스, 훌루, 비키, 아마존과 같은 동영상 플랫폼들의 시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드라마를 볼 때, TV 수신기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TV 수신기 앞에서 드라마를 볼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드라마를 볼 수 있는 환경,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유통사들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비디오 렌탈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이라는 회사도 온라인 서점을 해서 유통을 하던 회사가 이제 콘텐츠 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콘텐츠에 답이 있다는 것은 모든 유통사들도 알고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콘텐츠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최근에 한국은 정말 좋은 사례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SBS에서 방송됐던 '신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비록 리미티드 버전이긴 했지만, ABC방송사에서 방송을 했고요, 지금 현재 KBS에서 방송됐던 '굿닥터'가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ABC 방송국이 21년 만에 월요일 드라마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대단한 변화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라든지 우리의 오리지널 드라마들은 미국 시장에서 OTT, 한마디로 비키나 드라마피버 같은 한마디로 온라인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방송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일으켜서 미국의 지상파 방송사인 ABC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사례를 볼 때, 우리에게는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드라마들이 지금에서야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여기 보시다시피, KBS에서 방영된 '가을동화'를 15년 만에 터키에서 리메이크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한국 드라마들이 비록 미국 현지는 아니지만 중남미나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리메이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굿닥터' 오리지널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방법은 '굿닥터'가 미국에서 어떻게 방송이 되고 했는지 그 영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김연성): '굿닥터' 영상 보셨는데요, '굿닥터'는 지난 9일 회 같은 경우에는 ABC방송사에서 4.5%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평균 시청률 좀 잘 된다하는 드라마들이 1.5%에서 2.0%, 이 정도 사이의 드라마들인데 1회에 2.1%를 넘더니 결국 4.5%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ABC 방송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의 기록이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원래 '굿닥터' 같은 경우는 13회로 방송을 하려다가 5회까지 연장되서 총 18회로 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굿닥터'의 성공

사례는 시즌 1이 되고서 시즌2, 시즌3가 될 때의 상황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 드라마 중에서 '굿닥터'가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드라마는 아직까지 많은 부족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PPT에도 보이듯이 콘텐츠 수출액으로 보면 드라마 장르가 한국 콘텐츠에선 거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 콘텐츠들이 완성본 수출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들을 일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 자막 또는 더빙을 하는 완성본 수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참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지화 작업을 해서 이루어져서 현지에서 리메이크가 되고 현지에 맞는 드라마들이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완성본 수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드라마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에 반해 예능 콘텐츠는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시장이 활황기가 이루어져서 저희 예능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나는 가수다', '아빠 어디가', '런닝맨'과 같은 예능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리메이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능 콘텐츠들은 현지화를 작업하는 데에 있어서 쉬울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드라마는 1회부터 16회, 20회까지 긴 스토리,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능 콘텐츠는 1,2회의 짧은 호흡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의 시장을 보면 예능 콘텐츠가 이렇게 글로벌 콘텐츠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작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방송사가 모든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사에서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화 작업을 하거나 리메이크 작업을 할 때 편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드라마는 작가, 그 다음에 제작자, 방송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삼자가 얽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원천 콘텐츠는 분명하게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또 이런 리메이크를 선택함에 있어서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영상을 보고 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이 있어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시아 국가만 됐던 건 아니고요, 특히 CJ E&M의 tvN에서 했던 '꽃보다 할배'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미국 NBC에서 시즌1이 방송됐고, 지금 시즌2에 대한 모든 스텝들이 결정되서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10개국 이상의 현지화 작업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NBC '꽃보다 할배'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김연성): 분명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받고 있고, 값어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드라마는 수년 째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 '굿닥터'에 의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뤄지긴 했었지만. 2013년의 CJ E&M의 드라마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 최초로 포맷이 팔렸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지화를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가 잘 풀리지 않거나, 원래 매력이 반감이 되어서 파일럿 제작으로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포맷을 할 때에 있어서 뭔가 대본, 스크립트 이외에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하자면, 미국에 있는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포맷 바이블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의 시놉시스를 비롯해서 캐릭터에 대한 소개, 그 안에서 어떤 캐릭터의 설정이 바뀌었는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어떤 신을 촬영할 때 있어서 어떤 카메라가 들어갔는지, 어떤 조명이 들어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나열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 한국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도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한국 드라마를 하는 작가나 제작진이나 방송사나 누구도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지 못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관심들만 가진다면 분명히 한국 드라마가 세

계 속에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텐데, 참 아쉬운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포맷은 지금 2017년 화두인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포맷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송사에 소속된 포맷회사들도 있지만 별도의 포맷 회사들도 나와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4대 슈퍼포맷이라고 해서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Survivor', 'Big Brother', 'Pop Idols'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이 약 3조원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상상하지 못할 금액들의 수익을 전 세계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플레이 내용은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포맷 산업이 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와 명예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포맷이 전 세계에 판매됨으로써 그에 따른 부와 명예를 가져온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엔데몰에서 제작한 'Big Brother'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제작됐어요. 벌써 따지면 18년 전에 제작된 작품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70여 국에 판매되어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포맷에 대한 생각들의 전환이 지금 여기 계시는 아시아 드라마를 제작하시고, 방송하시고, 집필하시는 작가님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굿닥터'의 글로벌 콘텐츠 진행상황 분석이 있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굿닥터' 작가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주실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로 그냥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미국 시장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매년 10월 정도에 미국에서 'K-story in America'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방송됐던 드라마, 아니면 영화, 웹툰, 아니면 작가님이 직접 쓰신 시나리오 중에서 엄선된 작품을 10여 편을 골라서요, 미국에 있는 제작사들, 미국에 있는 스튜디오, 미국에 있는 방송사들 앞에서 피칭을 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결국 선정된 작품이 '굿닥터'였어요. 결국 '굿닥터'가 미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시장을 두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굿닥터가 2017년, 올해 방송이 됐는데 과연 언제 했을까요?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바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어요. CBS에 먼저 첫 피칭해서 선정이 되었으나 CBS에서 고배를 마셨고요, 근데 마침 그때 하우스의 유명한 작가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고 ABC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주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두들겨야지만 문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 드라마의 글로벌화는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벌써 12회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각 나라에서 최고라고 하시는 작가님들, 제작자님들, 방송사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요. 내년 즈음에는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한번 미국 본토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이 2013년부터 미국 시장을 두드려서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 미국시장에서도 한국 드라마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굿닥터'가 미국 ABC에서 방송되기도 했었지만, 미국에 있는, 글로벌에 있는, 유니버셜이라든지, 소니라든지, 워너든지 하는 그룹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콘텐츠 제작사들과 공동제작을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시아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서 미국 현지에서 같이 모여서 피칭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중일 합작 드라마, 합작 영화를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콘텐츠들은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각 나라의 정서에 맞는,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다 넣으려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미드를 보고, 영드를 보고, 일드를 보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일본 드라마를 보고, 중국 드라마를 보고, 베트남 드라마를 보고, 인도네시아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글로벌을 뚫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BCWW 글로벌 미디어 프롬에서 드라마 포맷이 국제적으로 유통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라이온게이트 소속의 포맷 컨설턴트 마크 로버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느껴보지 못한 것들, 즉 고유한 스토리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밥앤 컴퍼니 소속의 도나 위픈은 캐릭터에서 나오는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로벌화 드라마로 가기 위해서는 장르가 특이하거나 스케일이 크거나 그런 부분에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볼 때 배트맨 시리즈가 슈퍼맨과 결합되는 사례들로 보셨을 거고, 한마디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얼만큼 스핀오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스토리가 얼만큼 많은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아시아 드라마의 핵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께서 글로벌화로 감에 있어서 큰 축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김연성 이사님, 굉장히 감사하고요. 김연성 이사님 발표의 가장 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아시아 드라마 콘텐츠의 글로벌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제 12차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가 <경계를 넘어선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입니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기조연설과 같은 화두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 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이야기 했을 때, 콘텐츠가 가장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포맷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세계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감성, 정서의 보편화가 아닐까. 우리가 너무 국경 안에 머물러 있다보면, 아무리 콜라보레이션한다고 해도 아시아의 감성이 전 세계의 보편화된 감성에 어울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텐데 김 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논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요, 지정 토론자가 한 분 계시고, 지정 토론하고 나서 플로어에 있는 분들에게 시간이 되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지정 토론자로는 콘텐츠 케이에 있는 마정훈 본부장님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마 본부장님, 소개 올립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토론자(마정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작가님들도 와 계시고, 제작사에서 와 계시고,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다 오셨는데 국내에서 드라마를 해외로 리메이크 되는 사례, 포맷을 판매하는 사례가 과연 많은가. 저 역시도 방송계에서 20년 간 근무를 했지만, 그 부분을 잘 몰랐었어요. 실제로 이번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례도 많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놀랐고, 과연 우리나라 드라마가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나 취지가 무엇인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서 주로 궁금한 내용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성과 정서가 보편화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각 국이 성향도 다르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정서를 보편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러면 저희도 한국에서 드라마를 할 때에는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독특한 것을 원하는데 과연 보편화된 소재들이 그들에게 인기가 있을까하는 그런 게 좀 궁금한 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각 국에서 나가서 방송될 수 있으면 분명히 해당 국가에 맞는 컨셉이 있어야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과연 이 드라마가 시즌제가 될 수 있는지. 국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편 끝나고 시즌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드 같은 경우는 10회 이상 시즌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게 이런 포맷을 수출하고 판매하고 할 때, 과연 주체가 누구인가. 제가 지난주에 일본 티프콤이라는 행사에 가서 일본 쪽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방송국 분들도 만났지만, 또, 드라마에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작가도 계시고, 출판사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는 보편적으로 방송국에 다 권리가 있어서 방송국 관계자랑 하고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느 작가가, 어느 제작사가 정말 열심히 만들 수 있을까, 과연 2차 저작물, IP에 관련해서는 작가의 권리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제작사의 권리는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집필할 수 있는 분들이 작가님들인데 작가님에 대한 권리는 그만큼 보장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줬는데 하나는 김 이사께서 이야기했던
정서의 보편화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만들 때, 작가나 제작사들의 어떤 역할보다 현재 한국에서는 방송사의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 째는 포맷을 수출하는 데에 어떻게 원활하게 갈 수 있는가. 먼저 김 이사께서 토론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죠.

발표자(김연성): 일단 보편화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는 남성을 겨냥하기보다는 여성 계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가 가진 큰 매력 중에 저도 그렇고, 해외 바이어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은 참 신기한 나라다, 경찰 드라마를 하면서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의학드라마를 하면서도 사랑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땐 남자, 여자 1번 주인공들만 사랑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 2번이 남자 1번에 대해 얽히는 이런 스토리 속에서 러브스토리를 잘 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편화로 가려고 하면 참 아쉬운게 한국 드라마는 항상 엔딩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해요. 그건 뭐냐하면, 작가님들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한국은 아쉽게도 시청률이라는 잣대의 기준에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고 있어요. 작가님이나 제작자나 방송사나.
뭐냐면 새드엔딩으로 가고 싶기도 한데 시청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왜 새드엔딩으로 가냐, 쟤를 왜 죽이느냐, 쟤하고 쟤는 이어줘야 하는데, 이런.
하다보니 결론을 딱 지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보편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굿닥터' 가 참 좋은 보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굿닥터' 의 첫 리메이크를 할 때에는 박재범 작가님이 쓰셨던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은 빠졌었어요. CBS에서 처음 진행할 때에 있어서. 그런데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이 ABC로 오면서 리메이크하는 작가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건 뭐냐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의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점이라는 건 뭐냐면 '굿닥터' 의 상황설정을 보면 아주 심플해요. 어떤 특이한 환자를 갖다놓고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의사가 이거를 해결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으키면 되는 상황들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즌제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주인공의 시점에서만 모든 이야기를 풀어내서는 안돼요. 그건 뭐냐면, 조연급,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의 개성들이 계속 뿜어져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주인공 위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스핀 오프를 열어가거나 시즌제를 열어감에 있어서 이 주인공이 아니면 스토리가 안 되는 이런 반감들이 있다보니 안 됐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플로어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김 이사님이 정서의 보편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우리 김연성 이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제기해주셨는데
혹시 한 두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김 이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분 있습니까? 손들고 이야기해주시면 마이크가 갈 겁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김 이사님에게 학자로써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굿닥터를 예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성공한 케이스이긴 한데, 저도 굉장히 보며 놀라게 되는데. 이런 것이 3년 6개월을 걸쳐 미국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까? 콘텐츠에 대한 경쟁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시간의 다툼이었습니까, 아니면 포맷에 대한 논의였습니까?

발표자(김연성): 지금 좌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우연찮게 로비 앞쪽에서 담배를 피면서 비키에 계신 분들은 만나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하시는 제작자나, 작가님이나 방송사나 이렇게 '굿닥터'의 성공이 일어나고 나면 장밋빛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나도 될 수 있구나', '저 시장에서 성공을 했었는데',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통상적으로 한 방송사에서 작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1000개 이상의 작품을 받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드라마 '굿닥터' 들어갔듯이 전 세계에 있는 1000개 이상의 작품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트레일러로 제작을 합니다. 그럼 벌써 바늘구멍을 뚫기가 그렇게 힘든거예요. 그렇게 트레일러를 제작하고서 정규편성을 하는 것은 5개 미만입니다.
한마디로 끊임없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노력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포맷이 부족했던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건 스크립트하고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작사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뭘 제일 듣고 싶어 하냐면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작가의 세계관을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작가님께서 '굿닥터'의 서번트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과연 가장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 죽음을 선택할 때까지 어떤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고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란 시장 자체는 단지 일회성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결국 시즌제로 드라마를 가기 위해서는 그가, 그 주인공이 왜 이런 환경들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하고 그러다보니 작가님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정토론 시간에 마정훈 피디가 했던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아쉽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미국에 있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제작사들과 이야기할 때 제일 아쉬운게 이 권리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작가한테 있느냐, 아님 방송사에 있느냐, 제작사에 있느냐,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가님의 소유예요. 그 뿌리는 작가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뿌리에 줄기를 하고 열매를 맺힌 사람들은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던 제작자와 방송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송사, 제작사, 작가가 포맷으로 이어졌을 때에 대한 수익정산에 대한 부분이 처음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완성본 수출을 할 때도 방송사하고 제작사하고 작가하고 수익배분에 대한 계약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님들은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기록된 기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로열티가 들어 가는거고, 제작사는 수출이 됐을 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받는다는 보장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포맷이나 리메이크가 됐을 때 규정들이 전혀 없어요. 그 규정들이 있어야지만, 최초 집필하시는 작가님부터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제작사, 방송하고 있는 방송사 모두가 이 작품을 통해서 더 많은 시장에 수출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김연성 이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 제작자분들, 작가분들, 특히 방송사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텔레비전 드라마는 하나의 총체적인 작품인데 기여한 이 세 섹터들 사이에 수익분배가 원활하게 되어있는가. 저희들이 아카데믹하게 논의할 때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

다. 사실, 창의적인 작품으로써의 기여를 하는 작가가 가장 우선적인 배분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 제작자라든가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걸 확산시키는 게 누구의 역할인가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자신들의 수익배분 원칙이 있고요, 이게 앞으로 현업, 그리고 학계, 실질적으로 방송계 모두 원활하게 논의가 돼서 특히, 첫 번째 섹션은 한국의 드라마 부분이니까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연성 이사님이 정말로 기조 같은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화두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오늘 세션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갈 징후가 보입니다. 김연성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마정훈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은 일본의 제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은 어떻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것을 글로벌화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발제는 후지TV 제작자이신 쿠보타 사토시께서 발표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NHK엔터프라이즈의 카타오카 히로시 제작자가 발표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발표는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발표는 정령의 수호자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인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들으시고 나서 우리가 지정토론, 그리고 여러분께 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후지TV 쿠보타 사토시께서 '일본의 콘텐츠 비즈니스 현황' 에 관련해서 20분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세션2-1 일본제작자: 후지TV 쿠보타 사토시-일본의 콘텐츠 비즈니스 현황>

발표자(쿠보타 사토시):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중국, 그리고 지금은 일본, 중국이 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인구가 좀 작고요,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콘텐츠 비즈니스를 하기에 일본 국내만으로도 충분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해외라고 한다면 별로 의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드라마 제작을 15년 정도 했었는데, 해외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해외팀에 합류를 해서 일본의 현황을 알고 좀 놀랐습니다.

방금 전 김 선생님께서 한국의 해외전략에 문제점에 대해 발표해주셨는데요. 일본 콘텐츠의 글로벌화를 한다면 한국 이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현재 상황입니다. 권리가 누가 가지고 있느냐하는 이야기가 방금 나왔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보다 방송국의 권력이 강합니다.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방송국의 힘이 세서 지금 여기 계시는 제작자분들이라든가,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한데요. 해외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권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도 결국에 주도권을 잡을 곳은 방송국입니다. TV 방송국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해외를 의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조금씩 해왔었는데요. 일본의 드라마, 특히 드라마의 해외진출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텐데요, 특히 첫 번째는 일본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작자의 가장 큰 꿈이라고 할까요? TV 방송국의 힘이 아주 셌던 시대에는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환경들이 정비되면서 높은 시청률이 나오는 드라마라는 것이 반드시 꼭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방송국이 시청률만을 생각해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거의 넌센스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현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방송국만이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권력이 분산이 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드라마의 현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콘텐츠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일본이 2014년 자료인데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지금 좀 더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17년 같은 경우는 더 벌어져 있고요. 일본의 콘텐츠는 계속해서 영화시장이라면 연 2천 억 정도가 계속해서, 약 20년 정도 시장의 규모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드라마라고 한다면 일본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보는, 한국이나 대만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총체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에 좀 뒤쳐져 있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글로벌화를 좀 더 의식해서 잘 하시지 않았을까합니다. 일본이 진짜 90년대, 2000년대부터 일본 드라마가 아주 아시아권에서 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해외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드라마가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드라마에 비해 인기가 없어져서 드디어 저희가 움직여서 해외에 나가고자 해서 이런 회의에 참석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숫자가 되어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지 텔레비전에서 5년 전부터 해외섹션에 와서 그 전까지는 일본 해외 비즈니스의 3대 축하면 프로그램 판매, 포맷 판매, 주변 권리 비즈니스 이 3가지가 3대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리메이크 포맷 판매 같은게 일본의 '아이언:철인 요리왕' 이 미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들어졌고요.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면 아주 거대한 부가 들어옵니다. 연간 수억 엔 정도, 콘텐츠로써 아주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이외에는 좀처럼 진출하기 힘들어서요, 아시아 시장에서 '굿닥터' 가 미국에서 방송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아시아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K-story 같은 경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2년 전부터 'J creation' 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후지TV외에도 일본 출판사라든가, 저작권자들이 모여서 J creation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저희 드라마입니다만, 이것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말씀은 못드리고요, 이 드라마가 '굿닥터' 에 이어서 내년 즈음에 미국에서 방영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이 아시아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아마도 역사가 한국보다는 길기 때문에 리메이크에 관해서는 한국보다도 판매 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본의 후지TV 앞으로의 향후 방송 비즈니스 전개를 말씀드리면, 우선 큰 축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 발표자께서 한국에서만 하면 아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드라마가 해외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드라마를 해외 사람들에게 많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편 한 편 다 팔아도 현지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아주 큰 중국 시장과 같은 큰 곳하고 협업을 해서 많은 작품을 팔아서 그 지역에서 전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중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포맷 리메이크는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요, 포맷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평판이 아주 좋은 작품이 '철인요리왕' 이라고 하는 작품이 아주 평판이 좋은데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 리메이크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6개 정도 포맷화되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것도 있고요,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드라마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리메이크에 있어서는 중국이 아주 큰 시장이어서요, 최근 3년 동안 중국에 20개 정도의 리메이크 건을 판매했습니다.
그 가운데 '데이트' 라던가, '프로포즈 대작전' 이라던가, '문제있는 레스토랑' 이라던가 실제로 방송이 됐었는데요, 작품의 결과로는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작방법이 어떤 것이 올바른지는 저도 제작자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할까요,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공동제작, 리메이크 권을 판매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리메이크 권을 판매할 때, 특히 일본의 작가 분들이 제작 프로듀서, 디렉터와 함께 같이 만들어온 생각, 철학 같은 것들 중 그 근본이 중요하고, 그 철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분이 어떤 생각으로 주인공이라던가,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풀어나갈지, 그런 부분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합니다만,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 만든다면 미국에서 인기를 끌어야 되고, 중국에서 만든다면 중국에서 히트를 시켜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서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리

메이크 권을 구입한다는 의식을 가지기만 하고, 그 원작에 대한 존경심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작품을 어떻게 전개할지는 저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한국에서 리메이크 한다면 한국 제작자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는 작가의 의도, 제작자의 의도, 연기할 때의 어려운 점 등을 당연히 전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한국에서 히트, 중국에서 히트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제작자를 믿어야만 하고 현지의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년 동안 30 작품을 팔았고요, 리메이크의 대표작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101번째 프로포즈' 라는 작품이 리메이크 되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101번째 프로포즈' 는 비교적 성공한 편입니다. '데이트' 라는 작품은 작가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향수병도 겪으면서 같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리메이크를 만들 때 일본 측의 아이디어를 동일하게 만드는 패턴이라던가, 중국 측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중일 양국 일본의 크리에이터 참가나 아니면 중국 크리에이터만으로 제작을 하든가 여러 가지 패턴을 작년에 시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은 되었지만, 좋은 실적을 내지는 못 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여름' 을 제가 프로듀스해서 중국 아이에이치와 공동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이것도 별로 큰 인기를 끌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 제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제작, 리메이크라는게 누구한테 권리가 있을지. 일본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작가님들의 권리가 아주 크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은 만들 때에는 TV 방송국의 역할이 크기도 하고 또, 해외 전개할 때에 TV방송국의 역할, 제작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고요. 일본에서는 분배율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담을 좀 하자면요, 미국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에는 작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작가가 아주 힘이 세지만 작가 겸 프로듀서를 겸한다고 할까요. 겸하지 못하면 돈도 출자를 하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배분도 많이 받고, '굿닥터' 를 봤을 때, KBS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른 작품을 미국에서 방송할 텐데요, 저 자신이 프로듀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본가라던가, 만화 원작이기 때문에 그 원작자 분도 함께 이그젝큐티브 프로듀서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굿닥터' 하고 저희 부분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권리자라고 한다면 원작자보다 TV방송국이 권리를 가질지, 각본자, 제작자 중 누가 가질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메이크가 됐을 경우, 그 나라의 권리자여야 합니다. 근본적인 권리자가 되는 것이 현지에서 흥행했을 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와 명성을 얻는다고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방송되게 되면 규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방송국만 돈을 크게 번다던가, 에이전트만 돈을 크게 번다던가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에게도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거대한 상대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싸워나갈 것입니다. 굿닥터의 사례는 저희에게 아주 도움이 많은 사례였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아시아에서 뭔가를 하자, 제가 실제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에서 공동제작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아시아 3개국, 아니면 아시아 다른 국가들을 포함해서 아시아가 좀 더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나아가자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생략했습니다.

정치적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은 특히 더 외부로 나가서 아시아 세계로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후지TV로 말씀드리면, 나인아틱, 일본에서 포켓몬GO라고 알고 계시죠. 그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관계자가 원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서 나이안틱의 주주가 되어서, 인그레스라고 하는 게임 알고 계시는지요? 포켓몬GO가 원래 구글맵을 개발한 팀이 만든 것이 인그레스인데요. 저희가 공동으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해외라고 하면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을 잡아서, 어떻게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이안틱과 손을 잡고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후지TV는 웰컴입니다. 누구와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와도 손을 잡고 싶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은 만화가 아주 강하기도 한데요. 이 아이디어를 가진 자가 어떻게 이익을 제대로 받고 명성도 얻어가면서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지 그것이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혼잡해져서 이야기가 왔다갔다 했는데요. 일본도 글로벌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같은 문제점을 한국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조인트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PPT나 이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많은 것들이 스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팜플렛 많이 봐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글로벌화인데 이거는 리메이크에 있어서의 권리 그 다음에 일본 제작사분이 일본의 문화에 있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글로벌화 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보다 많은 신경을 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메이크에 관련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후지 텔레비전은 여러분들의 모든 리메이크 작업을 웰컴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깊게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덧붙이는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두 번째 발제는 드라마 '정령의 수호자'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NHK 엔터프라이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카타오카 히로시 제작자님께서 발표하는데요. 그 전에 오치 아츠시 부장이라고 제작 프로듀서 분께서 먼저 이야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제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치 씨 환영합니다.

<세션2-2 일본제작자: NHK 엔터프라이즈 카타오카 히로시-국경은 넘되, 예산은 넘지 않게>

발표자(오치 아츠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NHK 엔터프라이즈의 드라마 부장을 맡고 있는 오치라고 합니다. 이 '정령의 수호자'는 저희 NHK 엔터프라이즈가 만든 건데요, 프로그램 소개를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령의 수호자'는 NHK 방송 90년을 기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원작은 국장의 안델스 앙을 받은 세계 각국에서 번역도 된 우에야시 나오코시의 판타지 소설이 원작입니다. 극본은 오오모리 스미오가 맡았고, 주연은 아야세 하루카가 맡았습니다. 22회로 방영이 되었고, 1회가 73분, 2회가 59분 방영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3월부터 방송이 시작되었고 시리즈 1이 1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정말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끝났고요, 드디어 11월부터 마지막 시즌 3, 9화 지금 방송예정입니다. 모두 다 4K 혹은 HDR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한국,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에서 방송이 되었고, 작년 10월 달이죠. 프랑스에서 개최가 된 국제 프로그램 견본시장 MIP에서 아시아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엄으로 상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죠. 2017년 국저 애민상에 시리즈 드라마 부분에 최정 노미네이트 작품으로도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해리포터라던가 반지의 제왕과 같은 아시아인다운 하트를 가진 그리고 TV 드라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무방한 빅 챌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도 등장을 하는 등 대단히 성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제작과 관련된 대단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시리즈 1과 3 맡은 카타오카 감독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아츠시, 5분을 쓰셨기 때문에 15분 정도로 단축해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죠.

발표자(카타오카 히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사셨거든요, 프로듀서도 맡고 계시고 저는 감독입니다. 감독의 말을 프로듀서가 도대체 몇 퍼센트 믿어주실지 각국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일단 포맷 판매에 있어서도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국경을 뛰어넘어서 팔리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정령의 수호자'가 어떤 드라마인지 시즌 1이 작년에 방송이 되었거든요. 그 트레일러를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네, 감사합니다. NHK 엔터프라이즈 모회사인 NHK는, 작년까지 저도 NHK에 있었습니다만, 이 대하 드라마, 대단히 유명합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인기가 있죠. 이 대하 드라마 콘텐츠를 NHK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약 50회 정도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3개의 시리즈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역사를 소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예산이 붙고 있고 또 시간도 들여가면서 하이 퀄리티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해외 국가 여러분들에게 수출을 하면서 선보일 기회는 많이 없었죠. 저도 시즌 두 개 정도를 연출을 했었는데, 일본 국내에서 시청률이 아무래도 20%, 30% 정도 기록을 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많은 다른 국가 여러분들이 안 봐주신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이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정령의 수호자'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작은 아동문학으로 또 다른 국가에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이죠. 인기가 있었던 소설이 원작입니다. 픽션이고, 판타지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가공의 국가들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공의 무대를 드라마로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로 일단 무대 공간을 설정을 했고요, 다양한 아시아 각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패치워크를 하나하나 짜나가는 것처럼 모았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PD분들, 극본가들, 작가들, 디자이너 분들을 총 동원해서 한국, 중국, 그리고 네팔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을 동시에 취재를 했고, 아시아 대륙을 돌았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전경이 많이 있는 나라죠. 그런데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그 국가들과 비교하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대륙의 웅장함이라든가 소수민족의 일상도 다를 것이고, 이렇게 다른 국가들의 시내와 같은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자 각국을 돌았습니다.

시나리오도 제작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각 국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아무래도 이 12권이 원작소설이기 때문에 심리묘사를 전부 다 일단 없앴습니다. 서머리 버전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스토리를 재구성했고, 드라마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속도감, 아무래도 긴장감, 이 두 부분은 세계 공통의 엔터테인먼트 베이스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조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죠. 예산 부분인데, 기획부터 사실 돈은 많이 들 것이라고 많은 분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획 자체를 밀어붙이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제가 설득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스타워즈 1편을 한번 보시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VFX를 최대한 안 쓸 테니까,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때마침 4K를 하고자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를 했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호

름을 타기 위해서 4K, HDR 대표적인 작품을 일단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방송을 할 것이다, 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작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작품으로써는 정말 파격적인 예산이 붙은 작품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았지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방송한 시즌1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일반적인 분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MBC, 지금 일본의 이름으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의 드라미아 스튜디오였던가요, 이쪽에서 촬영을 하는 등 또 많은 협조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한국 스텝 여러분들과 정말 즐거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볼 수가 있었고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 시즌1이 잘 마무리를 해서 MIPCOM의 오프닝 작품으로 선정이 되거나 국제 애미상을 받았다고 했었죠, 이렇게 수상을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1의 예산은 예전에 이미 오바가 된 상황이었고요,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 때에는 무대의 수를 어떻게 해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대의 수가 늘었나고요. 등장하는 국가 수도 시즌 1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시즌 1때에는 한 나라였는데 이게 3개국, 4개국으로 많이 늘어났고, 배 탐험 장면을 넣는다든가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갔죠. 또 시즌 3가 되면 큰 전투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나라가 물에 잠기게 돼서 멸망하는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기절하는 전개가 계속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물론 다 알고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작을 하다보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잘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현장에서는 조금 로케의 수를 줄여서 스튜디오 촬영을 늘렸습니다. 아무래도 대안으로써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고요. 아무래도 스케일적으로 봤을 때, 큰 작품이기 때문에 프론트 프로젝션이라는 기술을 쓰기도 하고, 바리라이트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조명 라이팅 체인지 시간을 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대비 효과를 올리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을 하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VFX도 프리 프로덕션 쪽으로 해서 대단히 예산이 더 이상 늘지 않게끔 주력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VFX 컷을 실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시즌 2의 트레일러가 있어서요, 중간에 제가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카타오카 히로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멈췄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2도 방영이 되었고 시즌 3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파이널 시즌은 이제 전투신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VFX의 제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신 고질라' 라는 영화를 감독하신 히구치 감독님에게 연출진 합류를 요청을 드려서요, 웅장한 전쟁신을 예산 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미니추어 기술을 정교하게 도입을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기술이더라고요. 보면서 감탄을 했고, 이렇게 전쟁신 하나하나를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예산 안에 어떻게든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즌 3, 다음 달이죠, 11월 25일부터 방영예정입니다. 솔직히 아직 1회도 완성이 안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작이 빠듯한데 이렇게 저희가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런 시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시즌 3 트레일러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카타오카 히로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방송 평판도 좋습니다. 녹화 시청률도, 지금 비디오 시청률까지 합치면 거의 탑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전에 하신 말씀들 조금 드리자면,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후회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들을 해주시는 주연, 조연들을 함께 참석시켜서 출연을 시키고 있는데 해외 분들도 사실 합류를 시켰으면 했습니다. 캐스팅 자체가 아무래도 각국 스타들을 출연을 못 시켰기 때문에 슈팅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없다라는 것, 물론 예산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캐스팅이 수월하진 않지만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시즌 1에서 안 되면, 시즌 2, 시즌 3에서 갑자기 해외스타들 캐스팅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실현이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등장하고 있는 스타들은 모든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아도 이상하지 않은 배우들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콘텐츠 파워로 생각을 했을 때 대단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에는 잘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저쪽으로 오셔서 한 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콘텐츠의 글로벌화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카타오카 히로시 제작자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회자로 진행을 하면서 주최 측이 조금 원망스러운데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하루에 여덟 세션으로 나눠서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사회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계속 체크하는 일인데, 시간을 여유있게 다음 번에 할 때에는 할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후지 텔레비전 제작자께서 발표해주셨고, NHK 엔터프라이즈에서 '정령의 수호자'라고 하는 케이스 스터디인데 제가 보는 느낌으로 보면 '반지의 제왕'이나 미국 드라마의 '왕좌의 게임' 같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에게 소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라를 지칭하지 않고 많은 나라들이 같이 섞여서 상당히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근본으로 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성공하길 바라고,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션은 지정된 토론자가 없고요, 플로어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할 수 있거나 자기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이 두 발제자에게 자유로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할까요? 예, 저 뒤에 계시는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할 때, 자기 소속 이야기해주시고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1: 예, 한국의 제작사 iHQ의 황기용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카타오카 히로시 상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목에도 예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제작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발표자(카타오카 히로시): 나중에 제가 조용히 옆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요. 그런데 일본의 대하드라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이 대하드라마의 예산보다는 한 50% 정도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다른 분 한번 또 모실까요?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마이크 가진 분들은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거 빨리 보완해서 주세요. 여기 맨 앞줄 왼쪽에 계십니다.

질문자2: 네, 들리시죠? 일본의 반 카즈히코 작가입니다. 쿠보타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메이크할 때 제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메일로만
그때, 메일 주고 받으면서 작가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신다고 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높은 시청률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저도 잘 공감을 하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기획 개발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속 드라마 같은 경우는 3개월 10회에서 11회를 만드는데 연 4번 정도 시즌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정령의 수호자' 같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드라마 제작이 일본에서는 힘들고요.그래서 최근에 들어보니까 제작비가 거기서 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작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좋은데요. 각본료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아주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해외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연속 드라마를 만들 때에 똑같이 하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쿠보타 사토시: 예, 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실제로 한국 분들, 중국 분들, 미국 분들 포함해서 함께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기획개발비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TV방송국이 주도함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져있고, 그 한정된 가격에서만 만들어야합니다. 일본에서만 그렇습니다, 제작자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제작회사 분들이 주도를 잡아서 한다면 좋은 기획을 만들어서, 각본을 개발해서, 캐스팅을 해서 어떻게 비싸게 TV방송국에 팔지, 모든 큰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해외 전개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겠지만, 방송국이 주도하게 되면 TV에서 방송을 해서 시청률이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외 분들 중국, 한국 다 포함해서 일본의 방송국이 예산도 아주 없고요, 그리고 편성부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지금의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업 섹션, 저희가 하고 있는 라이카라는 것을 잘 이용해서 반 선생님이 말씀하신 제작방식을 한다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회사를 설득을 해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4월부터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회사에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본가라든가 제작자분들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일본 제작사, 각본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콘텐츠가 좋아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해나가고 싶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감사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여덟 세션이 끝나게 되면 종합토론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시간에서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점심시간이 5분 정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일본, 중국 마치 삼국지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가 아주 재미있는데 하나는 만화를 원작으로 했던 드라마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 다음에 웹 드라마가 어떻게 성공하는가하는 논제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류링, 요우쿠 제작자께서 발표해주시고, 두 번째는 루싱, 동양삼상미디어 감독께서 발표해주시는데요. 이번에 발제는 먼저 영상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 발제자가 발제를 해주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화면 발표와 발제자 포함해서 20분이고요, 가끔 가다가 사회자를 안 보시는데, 사회자를 10분 정도 초과하시면 좀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자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영상 화면부터 볼까요?

<세션3-1 중국제작자: 요우쿠 류링-진혼가: 웹툰 원작드라마의 새로운 도전>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류링):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요우쿠에서 온 류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저에게 발표할 자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의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게 계신 여러분들과 교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8월에 저희들이 요우쿠를 통해서 정식으로 '진혼가'를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진행자께서 시간 엄수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혼가'와 관련해서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바로 이것은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

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웹 드라마라는 것이죠. 요우쿠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을 했었고, 다른 전통적인 유,무선 티비를 통해서 방영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난달에 '진혼가 '가 아시아 일부 국가로 퍼블리싱이 됐습니다. 일본도 포함이 됩니다. 일본에 애니메이션에서 드라마화한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이 '진혼가' 가 일본으로 판매됐다는 것은 저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진혼가'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혼가' 는 전체 길이가 480분 정도 됩니다. 각 회마다 20분 정도 되고요, 전체 각 회 당 시간이 짧습니다. 이 웹 드라마가 제작될 때, 좀 전에 일본과 한국의 관계자께서 예산 관련된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죠. 이 '진혼가'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혹은 수익배분 등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웹 드라마는 TV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웹 드라마는 사전에 광고를 유치해서 그 경비를 지출하기 어렵죠. 그래서 웹 드라마는 비용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웹 드라마는 저희 플랫폼에서 방영을 할 때, 매주 1회씩 방영을 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유,무료 시청을 결합했습니다. VIP회원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약 4회에서 6회 정도 먼저 관람할 수 있게
유료 관람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요건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일반 네티즌들이 돈을 내고 이런 드라마를 보려고 하지 않죠. 아시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웹 드라마가 이러한 유료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매력도를 높여야하겠죠.
'진혼가' 는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웹 드라마의 제작 모델에 있어서도 혁신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혼가' 의 전체 유료 수입, 혹은 광고 수입이 이미 BEP를 넘어섰습니다. '진혼가' 는 금년 8월 2일에 요우쿠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됐고요, 2016년 9월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 기획부터 전체 작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1년 반정도 걸렸죠. 18개월정도 걸렸습니다.
'진혼가' 는 동명 웹툰 원작을 드라마화한 것이죠. 이 웹툰은 중국의 웹툰 작가인 쉬천이라는 분이 제작한 것입니다. 매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저희들이 드라마화 할 웹툰을 선정을 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후보 작품들을 검토를 했었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출품된 작품을 거의 다 검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클릭 수,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 평가,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이 드라마화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들을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쉬천,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 완벽했고요. 그리고 도깨비 세상에 대해서 서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력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모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좋았고요. 그래서 클릭 수, 소재 등등을 살펴서 우리가 이것을 드라마화 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드라마화 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클릭 수를 살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에 이 웹툰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7년도까지 전체 클릭 수가 3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화 하는 데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전체 영화 산업 사슬을 연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혼가 '는 처음에 웹툰이었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된 이후에도 매우 높은 흥행기록을 세웠습니다.
요우쿠를 통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을 때, 전체 조회수가 3억 5천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요우쿠에서 자체 제작된 애니메이션에서 전체적으로 1위를 계속 차지해왔습니다.
드라마로 각색한 이후에 요우쿠를 통해서 방영한 이후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방영되고 2개월 정도 된 시점인데요, 이 시점이 됐을 때 전체 독점 방영 조회 수에 있어서 25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원작 팬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웹툰을 본 적이 없는 시청자들 모두 이 작품에 대해서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작 팬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모두 이 작품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웹툰 원작 드라마의 혁신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웹툰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나 어른들 모두 만화를 보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처럼 웹툰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중국에서는 혁신이자, 아주 큰 리스크가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웹툰을 드라마화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4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첫 째, 전체 스타일을 바꿨습니다. 많은 희극적인 요소, 코미디 요소를 추가를 했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마화 하면서 여러 가지 코미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대사에 있어서 코미디 요소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남녀 주인공의 일상 대화에 서로 티격태격하는 대사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아주 무시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도 또 서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대사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들의 신기한 세상들을 보여주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드라마화하면서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나중에 이를 하나의 판타지의 세계관으로 만들자고 결정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에서 도깨비 세상이 함께 있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사람들이 연기하는 사실극을 통해서 만화 속의 세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만화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무술 동작들을 구현하는 것도 어려웠죠. 실제 사람이 연기하는 데에 있어서 표정이나 무술 동작을 함에 있어서 만화 같은 그런 효과들을 가져다주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로 많은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또, 남녀 주인공에 있어서도 여러 웹툰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좋아하는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로맨스처럼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녀 주인공의 사랑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주인공을 마치 남사친, 여사친처럼 그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진혼가'를 각색하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거 한동안 저희들은 전통적인 영상물을 주로 봤습니다. 이러한 만화를 드라마화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었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작품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미국의 작품, 일본의 많은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작품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았죠. 저희 전체 스텝은 수백 편에 달하는 세계 각지의 애니메이션을 드라마화한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저희들이 웹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이기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웨이보, 티에바 등등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팬들, 혹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웹툰 작품이 어떤 드라마로 각색되기를 바라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웹 드라마를 제작하는 모델에 있어서 전통적인 드라마들과는 많이 다르죠. 네티즌들과 온라인에서 많은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작할 작품들이 초기에 많은 인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각색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상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작 작품들의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원작의 팬들이 제작될 드라마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기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리듬이 매우 빠르죠. 그리고 무술 장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사람이 연기를 해서 제대로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은 자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그 어떤 드라마도 완전히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웹툰을 드라마화하는 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CG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주 비쌌죠. 그래서 저희들이 CG를 다 활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무술영화의 제작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컴퓨터의 CG와 실제 연기자가 무술동작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화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 드라마의 길이가 500분이 안되지만 우리가 편집하는 시간은 200분 정도는 CG를 편집하는 데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웹 드라마의 발전 추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드라마들은 웹 소설 등을 개작한 것이 많습니다. 웹 소설은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웹 소설 같은 경우에는 IP를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격이 매우 비싸졌죠. 우리가 웹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웹 소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웹툰이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혼가'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요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주요 시청자 층은 90년대,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청년들이죠. 바로 이들이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의 가장 중요한 시청자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방영을 하면서 유, 무료 시청 방식을 결합했다고 말씀드렸죠. 매일 이 웹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점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싫어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드라마의 제작 그리고 다음 시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드라마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유명한 웹툰 작품과 인기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필요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아주 비싸게 받는 스타급 배우들 외에 타이완의 한 배우를 최종적으로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웹툰의 코스프레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표정과 동작들을 아주 잘 할 수 있더군요.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의 드라마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차원인 웹툰을 3차원의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웹툰의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의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일본의, 미국의 작품들을 많이 참조했고요. 그로부터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또, 전체 줄거리를 각색하는 데에 있어서, 원작의 세계관은 충실히 지켰습니다. 저희들은 이 작품이 당시 원작의 팬들 뿐만 아니라 이 웹툰을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청자들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면서 웹 드라마를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각색과정을 통해서 많은 세계관이 지금 현재 중국의 주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제작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주요 스텝의 평균 연령은 28세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주요 시청자 군이 젊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스텝들도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낮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혼가'라는 이 작품은 바로 웹툰의 드라마화에 관련해서 중국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전체 중국,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소재의 드라마를 볼 때에도 이러한 작품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들은 웹 드라마에 있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웹툰을 드라마화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모험이라고 할 수 있었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작품이 청년들의 문화를 풍부히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층들이 많은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요우쿠의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텐데 여전히 시간의 문제가 있고요.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웹툰에서 히트쳤던 미생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희 학자들은 잘 듣지 못했고, 성공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의 드라마가 다른 장르로부터 온 것을 성공시킬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엔 오전 세션의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루싱 씨가 '무증지죄', 이건 또 웹 드라마를 어떻게 드라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죠.

<세션3-2 중국제작자: 동양삼상미디어 루싱- 웹드라마: '무증지죄 (无证之罪)' >

발표자(루싱): 감사합니다. 저희 동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시간관계 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작품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으로 선정되기는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투자자들도 계시고요, 저희 업계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중국 웹 드라마 제작되는 데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 드라마는 방송국에서 방영되지는 않을 겁니다. 재작년부터 중국의 웹 드라마의 시장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투자규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 드라마가 발전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하는가 하고, 이 작품에 어떠한 콘텐츠를 추가해서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보다 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와 포맷도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전통 무용도 있고요, 한국에도 상당히 유명한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전통과 현대를 잘 융합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공연을 했더라고요. 어제 저희가 봤는데,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범죄 스릴러극은 성공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시그널'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성공한 작품인데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부분 플러스 범죄 스릴러. 그리고 외국에 있는 작품 또한 똑같이 범죄 플러스 로맨스까지, 이런 요소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와 플랫폼을 융합한 성공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제작자들은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캐릭터에 영감을 불어넣었고요, 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무증지죄'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초기에 벌써 한국, 그리고 미국에 관련된 유료 콘텐츠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대다수의 드라마는 다 무료입니다. 특히 방송국에서는 50회, 60회 정도를 편성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회 정도 방영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웹 드라마를 한다면 제가 고려했던 것은 어떻게 지상파 드라마와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관중들이 충분히 돈을 내고 우리의 드라마를 볼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했을 때, 일본, 한국의 많은 드라마를 참고했고요. 특히, 이 제작을 할 때,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1회, 2회를 할애해서 이 사건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또 해결하는 그런 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작 초기에 저희 업계에 있는 대 선배님을 모셔서 많은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리고 아주 젊은 제작자로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웹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지상파 드라마든 시청률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야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드라마는 상당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고요, 평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기획했을 때의 목표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콘텐츠의 융합, 그리고 다양한 문화 요소를 융합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발표하신 분들도 어떻게 아시아의 콘텐츠를 세계화시키고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인데요. 아시아 국가들은 나라마다 그 가치관도 다르고요, 문화 전통도 다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우리의 콘텐츠들이 세계 다른 나라 시청자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의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 든다면, 일본만의 정서만을 고집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보편적인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을 했을 때에도, 주인공의 세계관을 어떻게 모든 시청자들이, 중국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시청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언어도 다릅니다. 우리가 살

고 있는 삶도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드라마가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진다면 그 어떤 나라의 시청자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제작했을 당시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끝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루싱 제작자님 덕분에 시간을 아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죠. 중국의 제작자분들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 사례에 드는 어떤 어려움, 그리고 방금 루싱 감독님께서는 웹 드라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드라마화 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저희 오전 세션의 가장 큰 화두였던 문화의 융합화, 제가 좀 추가하면 보편적 감정의 일반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전히 중국 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중국 제작자 분들이 발표한 것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너 분 정도 짧게 질문하시고 길게 대답하는 양식을 취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에 분 있습니다. 맨 앞줄에 두 번째 줄. 자기 소속 발표하시고 어떤 분한테 질문하실지.

질문자1: 예, 저는 중국에서 온 극작가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두 분의 발표자께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편의 작품, 특히 '무증지죄'는 중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클릭 수가 아주 높습니다. 전체 작품의 질, 혹은 배우들의 연기 또한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이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됨으로써 아시아 여러 다른 국가들의 동료들부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웹 드라마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작 수준, 그리고 스토리 등에 있어서 저희들의 수준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루싱 감독은 추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웹 드라마 같은데, 더 보조설명 해주셨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면 더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없어요?

발표자(루싱): 네, 괜찮습니다. 거의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독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의 후속작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분들 일년 동안에 또 다시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실 게 있으면 양보하지 마시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사회자로서 각각 두 분한테 한 가지씩 질문하겠는데요. '진혼가' 같은 경우는 만화를 원작으로 만들 때 어려움 같은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만화에서 작가들이 실사를 할 때, 만화에서 표현한 그대로 배우들이 표현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화에서 히트친 것을 실제 배우들이 연기하고 했을 때, 만화의 근본정신을 만화에서 그대로 가져가는지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무증지죄'는 잘 봤는데, 이런 웹 드라마들이 사실 한국에서 많이 좋은 주제가 있으면 드라마화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드라마화할 때, 그대로 웹 내용을 그대로 베끼느냐 아니면 새로운 드라마로 전개시키느냐하는 각색의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감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류링 제작자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발표자(류링): 예, 감사합니다. 배우의 연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작자 출신이기 때문에 배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문가들께서 경험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웃음소리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과장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웃음소리가 있죠. 연령대 별로, 아주 귀여운 웃음소리,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괴이한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혼가'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하면서 전체 드라마에서 한 수십 가지 다양한 웃음소리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즉, 연기 방식을 통해서 너무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웹툰을 드라마화하는 데에 있어서 배우들이 캐릭터를 소화함에 있어서 먼저 원작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본인이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또,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정을 합니다. 웃음소리만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웃음소리를 연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과장되지 않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드라마 제작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겠죠.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제작을 한데다가
또, 외국의 작품들을 참조하긴 했지만 그러한 스타일이 중국의 시청자들에게 반드시 부합한다고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청자들 같은 경우, 너무 과장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들을 저희들이 융합을 해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도깨비 세상을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줌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서, 실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도깨비 세상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도깨비 세상이 진짜 세상에 있을 수 있다는 이러한 착각을 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작품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호러물이 아닌가하는 오해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도깨비 세상은 이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있는 도깨비 세상, 거기에서 희노애락이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웹툰과는 다른 것이었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부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젊은 네티즌들이 이러한 판타지 작품에 대해 가지는 기대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발표자(루싱):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제대로 듣지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더레이터(백선기): 웹 드라마 만드실 때, 각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르의 융합화, 또 중국화 문제인데. 사실 장르의 융합화랑 중국화 문제는 서로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중국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는데, 또 중국의 방문객들한테 소거하려면 또 중국적인 정신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어긋나게 맞물릴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발표자(루싱): 예, 알겠습니다. 이런 융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1+1이 꼭 2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제작했을 때 공예미술품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가 격식에 따라서 소설 원작이 있습니다. 전체 이 소설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형적인 스릴러, 범죄 수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작소설을 기반으로 저희가 중국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변두리 도시이고요, 다른 중국 지역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동북이라는 이 지역을 그 드라마가 촬영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목포를 본다, 약간 건달들이 많고, 어두운 세상의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황해'를 봤을 때, 이런 지역 설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얼빈 동북을 설정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르의 융합이라든가 많이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도 할 겁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발제자 가운데 세 분이 지금 두 시간 반동안 그냥 계셨는데, 혹시 일본에서 오신 제작자 분들, 우리 김연성 이사, 혹시 발언을 조금 추가할 것 있으면 한 1분 정도씩만 제가 기회를 주겠습니다. 없어

도 괜찮고요. 어느 분부터 발언하시겠습니까? 없으세요?

일본 발표자1: 네, 저희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는 편 수로 봤을 때 많습니다. 그런데 제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일본만의 기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테마 자체를 소중히 하고,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옮긴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방식이 일본 국내에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서로 경쟁하듯이
절차탁마하는 분위기가 일본 국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은 원작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드라마를 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쪽에서 많이 불러주시기 때문에요.
그게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원작이 그만큼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드라마화하는 그런 작업자체가 일본 국내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발표자2: 예, 방금 IP라고 할까요, 좋은 원작을 찾거나 만들거나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해야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화 원작으로 방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이 재현할지 아니면 바꿔나갈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좋은 원작을 열심히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작만 좋다면 국경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함께 열심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발표자: 작가님들은 좋은 글들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국에 있는 제작사, 방송사들은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서 더 큰 글로벌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오늘 오전에 장장 두 시간 삼십분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화두에 관련해서 제작자 분들이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아카데믹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저희 아카데믹한 논의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에 아주 깊게 오는 아주 좋은 세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 방금 전에 카타오카 히로시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원작만 좋으면 사실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옵니다. 우리 모두 제작자, 작가, 그 다음 방송사, 세 중요한 영역들이 콜라보레이션을 잘 해서 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뻗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네, 좌장님, 패널 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 내내 한중일 삼국의 제작자 관점에서의 드라마 시장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드라마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원재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오전 세션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같은 층에 위치한 사파이어 룸에서 마련된 점심식사를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1시 40분부터 다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식사 시간 후에 오후에는 특별 세션과 한중일 작가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 세션에서 발표를 하실 발표자 분들께서는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그러니까 1시 30분까지 이곳으로 다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로비에 계신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으로 입장하셔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각 언어의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공동주관사인 인천영상위원회의 인천 로케이션과 지원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표자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영상위: 안녕하세요, 저는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공동주관사인 인천영상위원회의 전략기획팀장 이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써 현장의 중심인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창작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한 인천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짧게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제가 PT를 발표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떠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로케이션이죠. 뭐니 뭐니 해도 연출의 목적과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바에 가장 부합하는 로케이션이 지원정책이나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 될 텐데요. 저희는 이제부터 인천이 가지고 있는 로케이션 자원에 대한 홍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PPT를 넘기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잠깐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항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무역항의 모습과 대동소이할텐데요. 지금 보시는 인천포트의 모습은 컨테이너가 있고, 열심히 물류를 나르는 본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인천항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의 장면이 탄생할까요? 영화 '신세계'에서는 물류의 중심인 인천항을 보시다시피 차갑고 거칠고 냉철한 그리고 심경이 복잡한 남성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상포구입니다. 모든 사진작가가 사랑하는 야경과 선셋이 아름다운 포구인데요. 이 포구는 또한,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네, 영화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에서는 일상적인 두 주인공이 이야기를 나누는 보통 삶속에 묻어있는 평범한 공간이자, 시나리오 속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장소로 북상포구를 선택했습니다. 네, 송도국제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옥과 마천루의 빌딩이 매우 조화로운, 전경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때문에 365일 카메라가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촬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송도가 표현되었을까요? 네, 2030년에 미래의 도시로 설정이 되어서 드라마 '써클'에서 매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어가는 하루가 이상하게도 매일 반복되는 영화 '하루'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 그리고 왕복 12차선 대로를 통제하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네, 드라마 '도깨비' 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송도의 모습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요. 이런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천년의 사랑을 이룬 두 연인의 마지막 여행지이자, 또한, 천연덕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는 저승사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대형 버스 전복 사고를 대형 액션신을 촬영할 수 있는 곳 역시 송도입니다.

신도시의 매력과 못지않게 인천 원도심의 매력은 비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8,90년대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원도심의 매력은 인천을 쫓아갈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옛 재현 장면들을 대부분 인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따뜻한 옛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를 사랑합니다와 같은 따뜻한 드라마 장르, 그리고 가족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 가화만사성 ', 뿐만 아니라 영화 '무뢰한' 처럼 바닥의 인생, 거친 인생을 사는 매우 강렬한 장르까지 섭렵할 수 있는 로케이션이 인천의 원도심입니다. 네, 그리고 CNN이 선정한 가장 아름다운 섬에 선정된 인천의 목섬입니다. 이 목섬에서는 어떠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네, '푸른 바다의 전설' 은 인어가 살던, 인어가 저멀리 섬에서 걸어나오는 인어의 고향으로 그려졌습니다. 또한, 고려 역사의 성지이자 논과 밭이 넓게 펼쳐진 강화도는요, 고려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 그리고 김구 선생님이 잠시 머물던 사택이었죠, 김구 고택에서는 최근에 종영한 tvN드라마 '명불허전' 의 주요 공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창작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양한 로케이션이 집약되어있는 곳이 인천인데요. 이러한 로케이션의 집약성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여기 계시는 창작자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의 지원정책을 짧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의 의미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생략하고요. 저희는 2018년도, 인천에서 7회 차 이상

촬영한 작품부터 인센티브될 예정이라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차를 많이 촬영할수록 장소 대여비, 숙박비, 세트재료비 등 지원항목이 많아지면서 지원한도 역시 높아집니다. 지원항목에 인천소비액 5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최대 지원액은 20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지출한 소비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작품의 기획 단계부터 인천과 전략적으로 함께 접근하는 지원 프로그램 역시 있습니다. 이는 인천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 스토리를 제작할 경우, 대중에게 얼마만큼 소거될 것인가, 얼마만큼 노출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드라마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년 예상 총 7억원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 모든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인천영상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전에 로케이션을 스카웃팅하시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콘티를 그리시는 이 모든 일련의 프리 프로덕션 단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체류하시는 모든 비용들을 지원하는데요, 숙박비, 교통비, 그리고 인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 그 모두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일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천은 기획 및 준비 단계부터 촬영단계까지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매우 단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내는 외부에 마련된 부스에서 저희 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멋진 작품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들이 저희 인천뿐만이 아닌데요. 이어진 한국영상위원회의 소개도 기꺼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네,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한국영상위원회의 소개와 한국의 촬영지원 프로그램 안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영상위원회 담당자분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영상위원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장 서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영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인천영상위원회 로케이션과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한국영상위원회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전체를 커버하는 전국에 있는 12개 영상위원회의 연합체이고요.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 12개 영상위원회의 지원정책을 다 소개해드려야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원 정책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영상위원회에서는 해외에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다큐멘터리, 그리고 온라인 베이스로 하는 영상물들이 한국에서 촬영을 원할 경우에 사전에, 촬영 전에 로케이션 스카웃팅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촬영지를 찾고자 할 때,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프로듀서, 로케이션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촬영지를 찾기 위해서 5일에서 6일정도 로케이션 스카웃팅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2인에 한해서 항공권과 숙박권 그리고 로케이션 코디네이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영상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울영상위원회, 그리고 아까 인천영상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산이나 제주, 기타 등등의 지역 영상위원회에서 이런 스카웃팅 투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영상위원회 해외사업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저희가 해외영상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로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4개국, 동남아 4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로케이션 팸투어를 진행했었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일본 쪽의 일본 프로듀서 분들과 미술감독 분들을 초청해서 진행을 했었고, 2015년도의 경우에는 미국의 로케이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팸투어를 통해서 다녀가셨던 관계자 분들이 이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드라마는 아니고 영화 '헐리우드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촬영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영상위원회들이 운영하는 지원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인천영상위원회는 아까 소개를 해 드렸고요. 서울영상위원회도 있는데, 서울영상위원회에서도 서울에서 사용한 제작비의 최대

25%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스카웃팅 투어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영상위원회에서도 대전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부산에서 15일 이상 촬영을 했을 때, 해외 영상물에 2000만원 이내의 현물을 지원하는, 숙박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주에서도 있고, 마찬가지로 제주영상위원회에서도 제주 사용 제작비용의 최대 25%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원프로그램에는 다들 미니멈 조건들이 있는데요. 보통 그 지역에서 4일내지 5일, 6일, 7일 이상을 촬영해야한다는 그런 조건을 맞추시면 이 지원 프로그램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National Location Incentive 사업이고, 이거는 전국 차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한국에서 최대 3일 이상 촬영할 경우, 한국에서 사용한 비용의 2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요. 10일 이상 촬영할 경우, 한국에서 사용한 비용의 최대 25%를 환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 해외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해외 드라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탱크2'라는 드라마가 서울에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올해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봄이 왔다'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베트남 '오늘도 청춘2'를 한국에서 촬영했고, 이건 미국 넷플릭스가 제작하는 드라마인데요, '센스 8' 시즌 1, 2를 모두 한국에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드라마인 '필취여인'이 2015년도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미국 웹에서 방영된 '드라마월드'라는 작품이 한국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들 이외에도 많은 해외, 아시아 쪽 드라마들이 한국 전역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인천영상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밖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네, 매우 많은 지원혜택이 있으니 여러분들 꼭 쉬는 시간에 직접 나가셔서 부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시티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미래전략부 오한범 소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오한범): 네, 저는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신설,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 컨퍼런스를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개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로 알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그룹은요,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 세계 서로 다양한 부분의 특징들을 하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 업계와 이미 익숙합니다. 저희가 많은 드라마를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작을 했고요, 촬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있는 '변혁의 사랑'도 여기서 촬영을 했고요. 또 많은 드라마 쇼케이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드라마 하나도 여기서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일본 드라마와도 같이 협업을 했고요, 중국의 후난TV와도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이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폴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가 이런 드라마 촬영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닝맨'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파티피플' 에피소드 하나도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요. K-POP 유명한 가수, 그리고 박진영씨,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인물인데요, 이 분이 호스트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드라마, 또 여러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쟁프로그램, 차세대 빅뱅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경쟁 프로그램이 여기서 촬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YG 양현석씨가 앉아있는 사진도 보셨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는요, 저희가 드라마 촬영, 그리고 여러 프로덕션을 굉장히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촬영과 콘텐츠들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펼쳐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한류 움직임이 많이 펼쳐져 나가는 데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류스타 분들이 여기서 결혼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스튜디오 세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편의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촬영했던 드라마는요, 여기서 쇼케이스도 했는데 '크리미널 마인드'는 여

기서 2개월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30만 평방 미터 정도의 스튜디오 세트고요. 저희 모든 파라다이스 그룹의 직원들이 촬영과 드라마 콘텐츠 제작에 정말 성심을 다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이 더 좋은 협력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5개 카지노를 보유를 하고 있고, 두 곳에 럭셔리 호텔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가 퍼포밍 아트, 공연예술학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많은 드라마라든가, 여러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 엔터테인먼트 필드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라다이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드라마 업계에 모든 지원을 제공해드릴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분 더 초대를 해서요, 이 컨퍼런스를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제공하고 개최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엘리자베스 천 씨를 무대로 모셔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라다이스 시티(엘리자베스 천):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파라다이스 시티와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시티가 많은 글로벌 문화에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개최 장소로 선정된 데에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파라다이스 그룹, 저희가 계속해서 드라마 업계에서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과 인천영상위원회 측에 정말 훌륭한 컨퍼런스를 저희와 개최해주신 데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저희 파라다이스 시티에서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네, 이렇게 해서 파라다이스 시티의 발표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제작자분들과 작가분들께서 파라다이스 시티를 보셨던 만큼 다음번에 혹시라도 로케이션을 오시게 되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바로 다음 오후 제 4세션, 특별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후 제 4 세션에도 아침 세션에서 좌장을 맡아주셨던 백선기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선기 교수님을 다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 4세션의 발표를 맡아주실 발표자분들과 패널 분들께서도 무대로 올라오셔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4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도 또 점심 먹고 나서 지금 두 개의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는 특별세션이고 커피 브레이크 한 다음에, 어쩌면 하이라이트이죠,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두 개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특별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최 측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비키라고 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텔레비전 드라마 현황, 그 다음에 발전 방안 이 두 가지의 아주 흥미로운 안건이 특별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먼저 말씀드릴 것은 행사가 15분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팜플렛에 있는 스케줄이 15분씩 뒤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회의가 6시 반까지인데 그럴 수는 없고요. 15분 정도 연착이 되었기 때문에 발제자들 준비를 해오신 것들 전부 듣고 15분정도 순연되서 저희가 학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세션의 가장 흥미로운 비키에 관련해서 발제자 두 분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코트니 맥라클란, 그리고 같이 발표하실 분이 문경민 이사. 그래서 비키 코리아하고 비키 본사 관련해서 두 분이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표하실까요? 오전에 보셨지만 발제 시간을 엄격히 지켜주십시오. 자,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션4: 특별초청세션 미국 Rakuten Viki 코트니 맥카틀란>

발표자(문경민):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티비 라쿠텐 비키의 한국오피스에서 콘텐츠 파트너쉽을 담당하고 있는 문경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행사에 처음으로 초청을 해주셔서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자리에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파트로 나눠 진행하고요. 제가 비키와 저희 자매회사인 숨피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국본사에서 오신 코트니 씨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오리지널 프로덕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드 부분, 그리고 마케팅 앤 프로모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라쿠텐 비키와 숨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비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드라마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vod 플랫폼입니다. 다른 동영상 글로벌 플랫폼과의 차별점은 비키에서는 비키 유저들이 전 세계의 200여개 언어로 직접 자막을 제작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이름을 비키라고 한 메인 이유는 비디오 플러스 유저들의 자발적 참여를 뜻하는 위키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비키라는 의미가 유저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영상이라는 뜻입니다. 숨피는 K-POP을 포함한 한국 콘텐츠 관련 뉴스, 그 다음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해외한류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되었고요, 2015년에 비키 패밀리로 조인하게 되면서 비키 그룹의 프로모션 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글로벌 이벤트들을 팬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비키는 2007년에 한국인 유학생 부부를 포함한 세 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에 일본 최대의 e-커머스 그룹이자 유럽과 일본 지역의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라쿠텐 TV를 운영하고 있는 라쿠텐 그룹의 멤버가 되면서 현재 이름인 라쿠텐 비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프로그램으로써 스마트 TV, 태블릿, 모바일 폰 등 언제 어디서나 팬들이 직접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요.

비키의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번 생은 처음이라', '왕은 사랑한다' 와 같은 최신 한국 드라마부터 '태양의 후예', '푸른 바다의 전설' 같은 최신 히트작까지 저희가 한국 드라마가 60-70% 메인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 그리고 일본, 대만 드라마들이 그 뒤를 이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의 모든 콘텐츠들은 아시아 콘텐츠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이 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영화,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나 한류와 연계된 각종 버라이어티 쇼, K-POP 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들이 직접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직접 달고 있고, 200여 개의 언어로 지금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 비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2012년에 제작된 우리 한류 드라마를 모티브로 한 '드라마월드', 그리고 워킹데드 제작사인 스카이바운드와 지금 공동으로 제작될 예정인 한국 드라마 '5 year'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쿠텐 비키에서도 한국 드라마 공동제작이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키 유저들의 뷰어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North America, Latin America, South America를 포함해서 약 61% 정도가 미주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유럽과 오세아니아, 중동지역이고요. 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저희 메인 콘텐츠인 한국 콘텐츠가 아시아 지역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뷰어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익숙한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들과 방송사들과 저희가 직접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POP 한류 드라마 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숨피' 입니다. '숨피' 는 1998년 미국에 사는 수잔 강이라는 한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부터 시작이 된거고요.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월드와이드 해외에서 가장 큰 한류 팬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어워즈인 숨피 어워즈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국 K-POP이나 드라마 부문에 수상작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아주 큰 행사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버전까지 확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스페인어를 서비스하면서 남미 지역과 유럽지역에서 점차 팬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비키 패밀리가

되면서 저희가 공동으로 프로모션과 마케팅, 글로벌 프로젝트들을 비키와 숨피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키의 유저 분포도를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가 가장 많고요, K-POP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에서 가장 뷰어가 많고요. 다음으로 North America나 South America도 아시아 못지않은 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스페인어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남미라든지 유럽 지역에도 유저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숨피 파트너쉽은 K-POP과 연계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많은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쿠텐 비키와 숨피가 함께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 달에 4천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요, 1년에 2만 5천 건 이상의 한류와 관련된 기사들이 저희 숨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피와 비키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한국 드라마나 K-POP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 하고 있고요,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키와 숨피가 함께 해서 더욱 더 강력한 한류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키와 숨피의 유저 분포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0% 이상이 여성이고요, 약 60% 이상의 저희 유저들이 34세 미만입니다. 그만큼 젊은 유저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아시아계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60% 이상이 비 아시아계 유저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이런 순서대로 유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말을 종합하면 단순히 비키가 한국 드라마만 보는 사이트가 아니고, 한국과 관련된,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광고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런 젊은 유저들을 계속 저희 비키의 팬으로 확보하는 순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류를 발전시키고 확대해나가는 중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트렌드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형태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라쿠텐 비키와 숨피가 합쳐졌을 때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아시아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아 콘텐츠나 한국 관련 뉴스들을 저희 매체라든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저희 사이트에서 조직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련 이슈들을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으로 비키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비키와 숨피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 코트니 씨께서 오리지널 프로덕트와 마케팅, 그리고 크리에이트 부분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비키의 영업부장인 코트니 맥라클란이 계속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미 20분을 파트너께서 사용하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자(코트니 맥라클란): 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코트니 맥라클란입니다. 저는 비키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고 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키와 같은 경우는 OTT 플랫폼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팬 베이스의 한국, 대만, 중국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언어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리지널 창작물들을 다양한 글로벌 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팬들이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있어서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 있어서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드라마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은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여기 주제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창작물과 같은 경우, 저희가 새롭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키 내부에서 제작을 한 것인데요, 웹 드라마로 '드라마 월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웹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팬들과 같은 경우, '드라마 월드' 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드라마 월드' 를 제시하고, 어떠한 부분들

을 팬들이 좋아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글로벌한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런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드라마 월드' 의 주인공인 '클레어' 라고 중간에 있는 여자아이가 되겠는데요, 클레어와 같은 경우도 한국 드라마의 아주 큰 팬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세계 속에 빠져들어 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월드' 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이 글로벌한 팬들에게 어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비키 오리지널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팬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국 드라마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국제 드라마 어워즈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외국 드라마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고무가 되어서요, 저희 비키와 같은 경우 이런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함께 혼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5 years'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워킹데드의 제작자가 곧 최초 한국 드라마인 '5 years' 라고 하는 드라마 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희 비키와 파트너쉽으로 이러한 제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한국 팬과 글로벌 팬들에게 조금 더 잘 어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팬 층을 조금 더 잘 파악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영어에 있어서의 각본들을 만들고, 좀 더 많은 영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니까 조금 관심있게 '5 years' 에 대한 제작도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에 있어서의 느낌과 글로벌한 느낌들이 함께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연기자들이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의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면에서 한국적인 측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더 많은 공동제작이라든가 오리지널 제작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5 years' 같은 경우 2018년 출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한국 팬들 그리고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작품들을 제작할 것입니다. 트레일러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트레일러를 잠깐 보셨습니다. 상당히 한국 드라마와 관련된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어서의 드라마를 사랑하는 팬들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화된 오리지널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저희 비키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드' 라는 프로그램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콘텐츠를 사랑하는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 20개 에피소드들을 보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자 하는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들을 위해서 '크리에이티드' 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크리에이티드' 를 통해서 에피소드를 통해 살펴봤던 아시아 드라마와 관련된 문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송혜교와 같은 경우, 상당히 인기 있는 연기배우가 되겠는데요. 송혜교의 모습을 보고 '아, 정말로 아름답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화장을 할 것인가하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팬들은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드'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화장기법이라든가 뷰티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360도, 다양한 전방위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에이티드'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뷰티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보게 되면 먹게 되는 음식들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팬들에게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드'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소, 여행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뷰티 트렌드와 관련된 정보, 그 외에 스타와 소통하는 리얼리티 쇼와 관련된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에 대해서 팬들은 정말 사랑하고 이것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것은 좀 짧게 제작이 되기는 하는데요,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리얼리티 쇼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하게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시간이 할애된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드'에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와 한국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뷰티, K-POP, 문화, 음식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DIY와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팬들과 같은 경우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것은요, K-POP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BTS와 같은 경우 미국 뉴스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졌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팬들의 파워 이런 것들을 잘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BT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였습니다. 비키와 같은 경우는 K-POP을 전 세계로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내놓는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엔터테이너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 협력사를 두고 있는데요, JYP와도 협력한 사례들이 있고요. 이러한 협력들을 통해서 K-POP에 있어서의 문화들을 조금 더 다양한 측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짧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UP10TION, PLEASE!'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니 브로스와 함께 공동 협력을 해서 K-POP과 관련된 뮤직 비디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웹 시리즈를 함께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 굉장히 잘 어필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UP10TION, PLEAS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 이름이 UP10TION입니다. 이 업텐션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단독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이 'UP10TION, PLEAS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어떤 지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미션을 수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팬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가 되겠고요. 좀 더 글로벌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콘텐츠에 있어서의 확산을 전 세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POP과 관련된 또 다른 성공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UP10TION, PLEASE!'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의 K-POP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외 배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저희가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류열풍을 공부할 때, 초창기 97년부터 한류열풍이 일어나게 된 게 VCR, 그 다음에 CD 이런 걸 많이 보급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카피라이트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요즘에는 비키나 숨피 같이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서 이것이 아주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특히, 한국의 것, 아시안 콘텐츠가 인터내셔널 팬들에게 어떻게 잘 보급되느냐하는 주제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말을 생략하고, 여기에는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고, 플로어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는 MNC Pictures의 필리아디 쿠스마라.

토론자(필리아디 쿠스마라):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면서 글로벌 파트너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콘텐츠 제작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는 스타퓨전이라는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와 관련해서 어떻게 협력의 구도를 가져가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MNC Pictures와 같은 경우도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스타피쉬보다 규모는 더 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는 2100시간 정도 방영을 연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자(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저는 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라고 합니다. 콘텐츠 관련해서 비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요, 그것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제작사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대만 이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의 중국과 대만 쪽에 있어서의 발전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개 더, 일본 제작물에 대해서도 새롭게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저희가 주력을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정해두고요, 그것을 제작할 수 제작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제작물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 이런 곳에서도 여러 제작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가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글로벌 팬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인가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그리고 어떠한 장르를 좋아하는가, 이러한 팬 정보에 기반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선정을 하고요.
제작사들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있어서의 드라마들을 더 여러 지역과 함께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파트너,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외의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포맷과 같은 경우는, K-드라마 포맷 정도를 가져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나름의 버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는 그 나름의 버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K-드라마 포맷이 되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좌장으로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비키와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러니까 아시아 콘텐츠만을 타겟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또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같은 경우는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뭐죠?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선별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국가 같은 경우, 제작사라든가 그 외에도 관련된 여러 주체들, 청중까지 포함해서요, 각각에 있어서의 선호는 다 다를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나요?

발표자(코트니 맥라클란): 비키와 같은 경우는 아시아 문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키에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틈새 플랫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알고 싶다, 아시아에 대한 문화를 느끼고 싶다고 한다면 비키가 바로 그 답이 될 것이죠.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백만 개의 다른 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의 폭을 크게 가지고 갈 수 있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문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을 타겟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아시안 콘텐츠가 이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아시안 콘텐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학자로써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고요. 일단 그렇게 선택된 게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된다고 하는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아마 여기 제작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가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명의 질문을 받고요, 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관심있는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통역이 다 가능하니까 한국말로 질문을 해도 통역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더 할까요? 질문이 있는건가요?

질문자(남상현): 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 있는 남상현이라고 합니다. 그 비키 발표 너무 좋게 잘 들었고요, 사실 흥미로운 점이 비키에서 팬들이 참여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자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좀 흥

미로운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점은 비키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초기에는 한국콘텐츠 중심으로 플랫폼이 발전해왔는데 이제는 아시아 전 국가들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콘텐츠들, 동남아시아 콘텐츠들도 늘어날텐데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도 팬들이 자막을 만들어내는 시스템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도 사실은 한국 콘텐츠를 중심으로 아니면 한국의 소재를 중심으로 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아시아 국가들과의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계획이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문경민): 먼저 질문하신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막 제작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5천 명 가량 자막 제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면 한 드라마를 이야기합니다. 그 한 드라마를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채널을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분리라고 합니다. 번역을 해야할 구간을 분리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한국어를 듣고 영어나 중국어나 다른 랭귀지로 번역을 하는 자막 캡셔너라고 그럽니다, 자막 제작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전문가 분이 보시면서 수정이라든지 감수를 하십니다. 단계별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말씀하신 한국 드라마는 원체 지금 인기가 많은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대만, 일본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회사에 와서 깜짝 놀랐던게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재능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 쪽의 참여도 지금 한국 프로그램 못지않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오리지널 콘텐츠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프로그램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콘텐츠들도 지금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메인 포인트로 봤던 미주나 유럽 지역에서 사실은 한국 드라마나 아시아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자기들 문화와는 다른 유니크한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아까 '드라마 월드' 보셨지만 그게 한국 드라마를 포커스로 한 '드라마 월드' 시즌1이었고요. 만약에 시즌3, 4가 나온다면 이게 꼭 굳이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중국 드라마 그다음에 일본 드라마, 이렇게 장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발굴하고 있고요. '5 years'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단순히 한국 드라마로만 제작되는게 아니라 똑같은 배경의, 똑같은 스토리의 또 다른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스토리들을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이쪽에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손을 크게 들고 참여해주시죠.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남상현 박사께서 질문하신 부분 조금 더 추가하면 지금 한국 드라마가 대단히 인기가 있는데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점점 더 포션이 늘어가는 쪽이 어디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비키나 숨피는 플랫폼으로 시작했는데 한국에도 문제가 많은게 네이버가 플랫폼으로 시작됐다가 뉴스 이런 아이템을 선택할 때 관여함으로써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플랫폼이 실제로 오리지널리티를 건드릴 수 있는 문제, 이게 국제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개의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인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주 흥미롭게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대만, 이와 같은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드라마가 관심을 많이 얻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다음 질문을 했던 것은, 지금 비키와 같은 경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에 더해서 오리지널 드라마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서로 상반되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들을 하는 업무였는데, 지금은 콘텐츠 자체를 제작하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코트니 맥라클란): 전체적인 아시아 드라마와 관련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트렌드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 망가라든가, 웹툰에 기반한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망가라든가 애니메이션 기반에 있어서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고 생각해서요, 일본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해당 창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각각의 콘텐츠를,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 제작하게 되는 오리지널 제품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 드라마나 다양한 콘텐츠에 있어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발표자(문경민): 합법적인 구매를 해서 트는 플랫폼인데 오리지널 프로덕트 부분이 서로 영역을 침범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플랫폼간의 경쟁이다보니 저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가져야만이 저희가 IP오너로써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순하게 저희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과 비용,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제작자분들과 저희 플랫폼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가장 적절하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OTT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권역 이외에는 또 다른 파트너들과 쉐어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공유경제를 누려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비키와 숨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다음엔 또 아주 흥미로운 아시안 지역인데, 인도네시아 MNC Pictures 관련해서 타이탄 헤르마완 전무이사가 인도네시아 관련한 드라마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세션5: 특별초청세션 인도네시아 MNC Pictures 티탄 헤르마완>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티탄 헤르마완이고요. 인도네시아 MNC Pictures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와도 함께 여기 참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드라마 시장 그리고 제작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회사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발표영상 재생>

네, 두 번째 보여드렸던 드라마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데요. 저희 MNC Pictures 같은 경우에는 MNC 그룹의 산하 소속이고요. 2007년 5월 23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드라마라든가, 연극, 장편 영화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목표로 하는 방영시간은 2100시간이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자 해서 일부 슬라이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투-에어 무료 방송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장 지배적인데요. 전체 인구대비해서 96.47%의 인구가 이 프리-투-에어, 무료방송의 제공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인터넷보다는 프리-투-에어를 많이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산업자체도 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TV방송사들, 무료 TV 방송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런 방송사들이 있는데요. TV1과 TV2가 있는데 TV1은 이제 TV 드라마를 방영하는 방송사고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저희 3개 드라마 방송사고요. 인도네시아 대부분에서 보면은요, 다른 국가의 시청 패턴과 비슷할 수 있겠는데 프라임 타임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고요.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가 저희 프라임 타임이고요. 한 11개월 동안은 이렇게 비슷한 시청패턴을 보이는데요. 나머지

한 달은 어떨까요? 저희가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이 또 다른 프라임 타임이 있는데요. 새벽 2시 반이 저희의 프라임 타임입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이 슬라이드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는 결말을 보통 드라마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들이 결말이 없어요. 드라마의 성과가 굉장히 좋으면 보통 그런데요. 이것이 저희가 제작하고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의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DT사례를 보면 이것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드라마입니다. 전체 매주 방영되는 시간인데요, 이 슬라이드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주에 더 많이 제작해서 방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굉장히 장수 드라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체 1위 장수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총 2300 여 회 방영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그리고 많이 방영이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 시리즈 드라마 같은 경우, 전체 방영 드라마 중에서 23%고요.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이 드라마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프리-투-에어 TV, 무료방송과 관련해서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냐면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드라마인데요, 2015년에 청소년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보였는데요. 2015, 2016년에도 청소년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이었고, 2017년에는 가족 드라마가 최고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코미디 장르도 인기가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의 코미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난 3년 동안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미디 드라마가 3년 연속으로 굉장히 일관성 있게 제작이 된 드라마 장르였고요. 그 저희 3, 4분기에도 이 코미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고.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인도네시아 업계가 제작사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보통 제작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독점계약을 맺습니다. 특히 TV방송국들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NC Picutres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독점계약을 맺어서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하고요. 이것은 다른 제작사, 다른 TV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제작사들이 이렇게 TV방송국들과 독점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이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발표가 저희 인도네시아의 드라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하고요. 지정토론자가 있습니다. 라쿠텐 비키에 있는 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토론자(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각각 나라들이 다 제작 스타일이 다르지요. 때때로는 2000편 이상의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고, 한국은 16-20편의 드라마가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웹-프렌들리한 한국의 상황이 특이점이기도 하고요. 웹 기반의 드라마 방영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사용을 선호하시나요?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프리-투-에어가 굉장히 지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웹 드라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웹 드라마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웹 기반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제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두 달쯤 전에 저희도 웹 드라마 시리즈 제작을 시작을 했는데요. 또한 작년에도 다른 웹 서비스를 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향후 5년 동안에 저희 인프라를 고려를 할 때, 더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기반을 생각을 하면요. 인도네시아는 한 7만 여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고요, 혹시 말씀 더 추가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또 다른 토론할만한 점이 있으신가요?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아시아 전역에서 제작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들을 이 컨퍼런스에서 조금 더 찾을 수 있고자 바라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MNC Pictures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내 드라마 배급을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는지. MNC Pictures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일까요?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MNC Pictures는요, MNC 그룹의 소속이기 때문에 MNC 그룹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비즈니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간 2100시간 정도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저희는 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글로벌 진출하는 것은 향후 2, 3년 정도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더레이터(백선기): 글로벌 진출을 말씀하셨는데, MNC Pictures는 아시아 시장을 더 목표로 하시나요, 아니면 미국 시장, 아니면 유럽 시장, 어떤 시장을 더 주안점을 두고 계시나요?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저희는 아시아 시장부터 먼저 진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인도네시아 MNC Pictures 관련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파워를 잘 인식을 못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요즘에 이쪽에 두 국가를 대단히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발표자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분들 손 드시고, 자기소개 하시고 중요한 것 잠깐씩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눈엔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브레이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발표를 하시면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코미디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장르가 2015년부터 2016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액션드라마가 인기 있는 2위 드라마더니, 가족드라마가 또 2위를 했어요.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데에 인도네시아에 이유가 있을까요?

발표자(티탄 헤르마완): 제 동료 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2017년을 보시면 코미디가 가장 인기 많은 장르였었죠. 왜냐하면 2017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장르의 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매 5년마다 주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요, 지난 3년 동안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조금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코미디가 1위 장르이다가 또 다른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들이 액션이나 코미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코미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코미디를 좀 중점적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인기가 오래 있는지는 스토리 자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가족 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편들이 어떻게 시청을 하고 아내들이 어떻게 시청을 하는지, 아내들은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이 코미디랑 결합이 돼서, 그런 코미디가 일상생활을 잘 포착하기 때문에 코미디가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저희가 15분 정도 지체됐기 때문에 5분정도 시간이 더 있을 수 있는데, MNC Pictures에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고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계시네요.

질문자: 네, 와카바야시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쿠텐 비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유럽에 비하면 아시아의 제너레이션과 좀 낫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이유인지 생각하십니까? 라쿠텐은 일본의 회사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글로벌하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콘텐츠가 비키 안에서 좀 더 더 많이 포함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시아 콘텐츠의 프로듀서라

든가 아니면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건가, 아니면 단순히 아시아의 방송사업자라든가 프로듀서, 작가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아르테아가 에스테파니아): 이것은 구매의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시아 콘텐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비키가 처음에 스타트업 기업일 때, 가능한 많은 콘텐츠들을 가능한 많이 구매를 했었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요, 한국 콘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 콘텐츠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 굉장히 재능있는 인력들, 그리고 여러 연기자들, 아니면 패션이나 메이크업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젊은, 어린 관객층에 더 호소를 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중국이라든가 타이완, 대만 이런 제작물들이 더 많은 인기를 점점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 콘텐츠가 다시 인기가 많아지는 현상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추세를 굉장히 이끌고 있는데요. 한국 콘텐츠들도 충분히 인기가 많고요. 중국, 그리고 대만 이쪽 연기자들 이런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 일본의 탤런트들이 많이 해외로 가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일본의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이 향후 2년 동안 변화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한 답변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 가지 더 말씀해드리고 싶은데요, 유럽의 뷰어십이 미국보다 더 높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더 많이 발전을 했고요, 더 많이 비즈니스를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어려움도 조금 있지만 목표는 유럽시장이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콘텐츠들이 유럽에서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질의응답이 충분히 끝났고, 우리 발제자들이 충분히 발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정했던 시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한 5분 정도 지체됐고, 다음에 세 번째 세션을 위해서 휴식을 좀 취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MC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별 세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자(이인나):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연결된 세상을 살고 있는 시청자들이다 보니까 로컬한 콘텐츠를 어떻게 글로벌하게 풀어낼지 그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뒤에서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외부로 나가시면 로비에 저희가 커피와 다과를 준비해놓았습니다. 휴식 즐기시고요, 잠시 후 4시부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작가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세션의 발표를 맡으신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는 4시 10분 전까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사회자(이인나):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비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으로 입장하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함께 자리를 지켜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작가세션 앞두고 있는데요. 아주 쟁쟁한 작가분들께서 준비를 해 주고 계십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순서대로 총 3개의 작가세션 발표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백선기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활약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대위의 발표자 분들께서, 모두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4세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작가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다시 한번 좌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여러분들 커피 브레이크 즐기셨습니까? 오늘 오전부터 그 다음 특별세션까지 거치면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피곤하셨을텐데, 어찌 보면 오늘 세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하시는 작가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작자분들도 중요하고, 플랫폼도 중요하고, 드라마를 만드는 인더스도 중요한데 사실 그 모든 것의 기원이 작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오전 세션과는 달리 이번에는 중국, 일본, 한국 작가 순서로 발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분은 중국작가, 드라마 '국민 대생활', '드라마의 기본은 스토리, 감정, 인물이다'.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감성의 보편화, 아마 이것과 많이 연결될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의 루치 작가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20분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션6 중국작가: 상하이관일문화미디어 루치 - 드라마 '국민대생활' : 드라마의 기본은 스토리, 감정, 인물이다>

발표자(루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온 극작가 루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드라마 극작가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왕리핑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로 <경계를 넘는 드라마: 장르, 국경, 플랫폼>입니다. 중국에서 바로 이런 주제와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던가, 중국과 또 외국 회사 간의 공동 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 드라마, 스릴러물, 직업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왕리핑 선생님의 지휘 하에 새로운 작품을 창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국민대생활' 입니다. '국민대생활' 이 바로 그 새로운 시도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생활' 에서는 남녀주인공인 왕슈왕과 루루가 태국에서 우연히 알게 된 다음에 놀랄만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7일만에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양가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왕슈왕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경의 생활을 버리고 상하이에서 도자기 가게를 오픈합니다. 그런데 루루의 부모님은 두 사람이 안 어울리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극중에 여성 주인공은 성공 추구형 여성작가이고요, 남자 주인공은 전원생활을 추구하는 도자기 장인입니다. 두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의 갈등이 전체 드라마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랑을 이룹니다.

이 작품은 중국과 태국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새로운 시도고요, 이러한 제작 외에도 저희 TV드라마는 세계 각국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왕리핑 선생님의 '생활계시록'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방영되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TV드라마라는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생활습관, 전통습성, 그리고 지금의 가치관 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TV드라마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문화가 번영했고요. 시진핑 주석께서도 문화 관련된 좌담회에서 문화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창의와 혁신을 방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재 혁신을 일으키고, 그리고 창작능력을 강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의와 혁신은 바로 그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음수사원, 즉, 물을 마시며 원천을 생각하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TV드라마로서 바로 이러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인물과 스토리, 그리고 드라마 전체 정서를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리핑 선생님은 최신 작품인 '국민대생활' 을 통해서 바로 인물을 잘 드러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주인공 루루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이 유명 극작가입니다. 중국에서 여성 극작가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극작가들이 직접 겪은 그러한 경험들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또, 극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배우와 연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작자 마음에 내 작품이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그려내는 인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래야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혁신을 해 나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드라마가 재밌어지려면, 바로 국민들의 현실을 반영해줄 수 있어야합니다. '국민대생활'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남자

주인공, 왕슈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꿈은 산에 가서 나무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주인공, 극작가의 경우에는 매우 극적적이고 성공추구형입니다. 바로 이러한 설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바로 경제적인 고도성장, 번영을 겪은 이후에 사람들의 물질 생활이 크게 개선되었고, 사람들의 생각도 물질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에서 지금은 마음의 평화, 더욱더 단순하게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10년 전에 많은 청년들이 주로 논의했던 이슈는 바로 '어떻게 중국의 tiaowen city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였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트렌드를 포착을 해서 인물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제 스토리는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 주인공,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영혼의 평화를 하는 중시하는 남자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의 스토리는 간단한 애정 이야기,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리핑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스토리의 기복, 우여곡절 등을 통해서 드라마적인 재미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의 삶의 애환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대생활' 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간의 사랑, 남녀간의 애정, 우정, 사제간의 정, 동료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토리 중에서 세 명의 여성 절친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정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저희들 작품의 새로운 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세 명의 여성 절친 간에 우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한 미스테리한 그런 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세 명이 어렸을 때 친구였고, 그 중에 한명은 일찍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남은 두 명 사이가 벌어졌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똑같은 남자를 좋아하면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 선생님께서는 늘 저한테 작품을 쓸 때 열정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품 속의 인물로 하여금 살아있는 인물로서 그려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드라마 작품 속의 악역이 아무리 나쁜 역할이더라도 결국에는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애환이나 고충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작품에서 희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무리 많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간의 포용심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물을 영혼으로 하고 스토리를 핵심으로 해서 그리고 정서를 추진력으로 해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 많은 우수 TV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르 융합이 전 세계적인 발전 추세입니다. 플랫폼의 다양화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도 이와 관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감정, 그리고 스토리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화를 개발하는 데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는 아주 평범한 작은 인물도 결국에는 중국의 전통 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대생활' 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미 방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방문량은 넷플릭스가 16억 회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회당 최고 시청률이 1.335%에 달했습니다. 주요 시청자는 19-27세 정도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주 시청자라는 것이죠. 이 작품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애정을 그리는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왕슈왕, 루루, 춘리치우 같은 이러한 인물들은 도시에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느끼는 갈등, 그리고 이들이 현재 노력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작가로써 창작의 원칙은 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어야 하겠지만,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량함, 그 희망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작하는 환경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자고, 시청자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루치 작가님, 발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더레이터로써 좀 인상 깊은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좋은 인물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 다음에 주어진 현실을 드라마에서 잘 녹여내는 것. 아마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같습니다. 이 발표에 관련해서 지정토론이 있습니다. 베이징영상예술학회 장롄성 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장롄성):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극작가협회 편집위원회의 상무 부위원장이자 베이징영상협회의 부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의 그리고 한중일,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과 TV 드라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만드신 작품들이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극작가이신 루치씨께서 왕리핑 선생님의 거작이자 신작인 '국민대생활' 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봤습니다. 평소 아주 바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주로 목표로 하는 시청자가 연령대가 낮기는 했지만,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도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정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처우 웨이웨이 선생님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런샤오펑, 장싱쿤 등 경험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저의 시청소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TV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대생활' 은 중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의 지금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생활' 이라는 이 작품은 왕리핑 선생님께서 젊은 극작가들을 팀으로 꾸려서, 특히 우수한 극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주제는 그냥 보면 낭만적인 로맨스 드라마 같습니다. 둘 째,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계층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소구력이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 속의 인물들이 지금 현대 생활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셋 째, 여기에서 사랑과 경제적인 문제간의 관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고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방영해서 클릭수가 16억에 달했고요. 그리고 회당 최고시청률이 1.33% 등에 달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5%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바로 이 드라마가 중국의 많은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한중일 간의, 아시아 각 국 간의 드라마 관련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상호 작품을 방영하기도 했고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는 올해로 12회를 맞이했습니다. 1회부터 시작해서 저희 중국의 대표단이 참석해왔고요.

그리고 여러 각 국의 대표들과 우호를 증진해 왔습니다.

저는 세계 각 국이, 특히 아시아 각 국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각 국의 스토리, 아시아의 스토리를 잘 개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도 우리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리핑 선생님의 이 TV 드라마는 바로 중국의 문화산업, 아시아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셔서 아시아 각 국이 교류하고 상호 벤치마킹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토론 감사드리고요, 토론에서 발제자가 한 이야기 부분에 질의보다는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론자께서 코멘트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보여주시죠. 논의할 게 있으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자(루치): 예, 지금은 특별히 보충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로운 작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러 발표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잘 반영해서 장르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며, 또한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작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제가 모더레이터로써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중국학생들이 많이 있고, 중국학생들이 영화 또는 드라마 분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작가께서는 이 드라마의 콘텐츠가 현재 중국에 있는 청년들의 감성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가장 큰 고민으로 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표자(루치):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시죠?

모더레이터(백선기): 그냥 보면 사랑하는 청년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토론자께서 극찬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왕리핑 선생이 대표적인 작가로써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루치): 지금 현재 중국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은 바로 자기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0년대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랐는데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7,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중국이 이미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6,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뇌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서적, 감정적인 것은 모든 연령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플로어에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발표도 잘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석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우리 루치 작가님께 질문 좀 하시죠. 손을 크게 들고.

질문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있는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려놓은 이 드라마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고요, 영상도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로맨스에 대한 부분과 현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갈등을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사랑과 금전적인 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먼저 선택이 되실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콘텐츠의 가장 큰 부분이 저는 그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한국, 일본, 중국 여러 나라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표적인 소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것들이 북미나 유럽, 다른 문화권에서 와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발표자(루치): 사랑과 물질은 둘 다 추구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 드라마의 마지막을 보면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것이, 여주인공은 원래 굉장히 성공 추구적인 인물입니다. 현실적인 보답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남자주인공은 내면의 평화를 더욱 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서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이나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충안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

각합니다. 물질을 추구한다면, 아마 인생의 많은 즐거움을 놓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을 추구한다면, 아마 그게 신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물질간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이 필요하죠.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굉장히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가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루치 선생은 오늘은 '대국민생활' 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소개시켜 줬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작가로써의 작가 정신, 본디 다루고자 하는 주제,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작가로써의 어떤 기대, 특히 중국사회에서의. 이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지향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발표자(루치): 예, 저는 현실주의적인 소재를 좋아합니다. 리얼리즘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전에 트레일러를 통해서 저희 드라마에는 사람의 정, 그리고 코미디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고,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 간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면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에서 우리가 희망과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을 아마 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통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국민대생활' 이라고 하는 것을 트레일러로 좀 봤는데, 중국 분들에게는 환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도 같은 정서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지. 방금 토론자께서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국제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바로 아시아 지역 전역에 소통되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우리 루치 선생이 지향하는 바가 그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먼저 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향하는건지, 아니면 중국과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쓰시고 싶은건지.

발표자(루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름다움, 사랑, 희망, 꿈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머적인 요소, 유머러스함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가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인기를 끌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시아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이상으로 중국 작가분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갈까요? 일본 작가 분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일본판과 한국판,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일본방송작가협회 오자키 마사야 작가분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분 정도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영의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세션7 일본작가: 일본방송작가협회 오자키 마사야 - 드라마 '결혼 못하는 남자' : 일본판, 한국판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네, 일본에서 온 작가 오자키 마사야입니다. 지금 발표시간 20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이 2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발표는 일단, 발표라기보다는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제 말은 최대한 짧게 정리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결혼 못하는 남자' 일본판과 한국판인데요. 그 장면 장면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 드라마는요, 일본판은 2006년에 제작이 되었고 제가 각본을 썼습니다. 큰 호평을 받았고, 그리고 3년 후 쯤인가요, 한국 쪽에서 리메이크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리메이크판을 제작을

하게 될 때, 리메이크판 각본을 체크를 하냐고 한국 측에서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다 맡기겠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일본판을 한국 쪽에서 리메이크 하실 때, 그 국가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맡겨야한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제 2회의 끝 부분인데 일본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판은 제 2회에 마지막 부분, 제 3회 첫 부분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3화 첫 부분까지 제가 연결을 해서 영상을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일본판 제 2화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한국판 제 2회 마지막 부분과 3회 첫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계속해서 한국어판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비교해보시고 전반의 집안에서 이뤄지는 부분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후반부에 여성이 화를 내서 집을 나가는 부분부터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본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남자' 라는 오리지널 판 자체가 일본 드라마 중에서도 아주 담담하게 감정기복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메이크할 때에는 좀 더 기복이라고 할까요, 드라마틱한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이 감정이 더 격하다고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면이 일본인하고 한국인하고의 차이인가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드라마에서도 일본 여성이 심하게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집안의 장면이 거의 동일해서 반올림해서 마흔 가까운 여성이 녹슬었다고 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그 여성의 마음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똑같다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놀랍고 재밌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걸 리메이크할 때, 인간의 감정이 동일하다는 것이, 드라마는 만국공통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소견으로는 그 부분의 차이도 굉장히 큰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리메이크된 것을 분석한다면 그 차이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만화가게에 가서 푸는 것 같고 우리는 좀 더 율동적인 디스코텍가서 푸는 것 같은데
40대가 러스티하다고 해서 감정이 똑같다고 하시는 부분하고 저는 학자로서는 맨 뒷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기도 지정토론이 있습니다. 일본 대학, 닛뽄 유니버시티에 있는 나카마치 아야코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일본대학에서 온 나카마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연구자라고 하는 입장이라서요, 차이점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일단 오자키 선생님께 질문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이점은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신선한 느낌입니다. 일단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실마리 몇 가지를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본의 드라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드라마의 제작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문화차이, 표현의 차이,특징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특수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자키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팜플렛 있으시죠. 구두발표 외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12부작으로 제작된 '결혼 못하는 남자' 가 16부작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게 큰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몇 부작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 드라마는 3개월 별로, 이미 아시죠? 그래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4, 7월 새로운 드라마들이 수십 편, 조금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수의 드라마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소

재의 드라마가 이렇게 제작되는 환경이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의 연속드라마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소재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아가야하고, 오자키 선생님의 작품 또한 타임리한 그런 소재가 시기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작 수가 조금 적다라는 것은 스토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작가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또 한꺼번에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회인지 이 숫자 자체가 적으면 풍요롭게 스토리를 키울 수 없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현의 특징으로 들어가 보자면 코미디 드라마는 일본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 '결혼 못하는 남자'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애라고 하는 소재, 코미디 소재가, 그리고 지금도 앉아계시는 분들 많이 웃어주셨죠. 그래서 코미디의 웃음 포인트에 문화적인 요소가 조금 있지 않을까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웃음이 생기는 포인트, 뭔가 차이가 생겼을 때, 이렇게 조용한 회의장에 누군가가 눈앞에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이 공간에 포인트가 생겨서 웃음이 발생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즉, 일상이 침범이 됐다는 부분에서 웃음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단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을 때 그 장소를 굳이 일본인은 이거를 친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넘어졌을 때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죠. 이 수습한다는 것은 장면을 뭔가 없애고자 하려고 하고, 그런 요소로써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남자'는 얼핏 봤을 때는 조금 특이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런 특이한 부분을 저 사람 이상하다고 웃으면서 어딘가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 웃음 포인트가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적인 차이에서 또 똑같이 웃음 요소가 한국판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진 않겠지만 미묘하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일본도 느끼고는 있지만, 느끼는 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미디의 요소를 오자키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드라마의 길이에 대해서 몇 부작이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드라마의 길이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한 3개월 정도, 한 10회, 길어야 12회 정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이라든가 중국은 더 크게 편성을 하시죠. 이건 어떻게 보면 TV 방송사의 사정도 있습니다. 작가는 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 친숙한가입니다. 11부작, 12부작으로 만들면 뇌 회로가 거기에 딱 맞춰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한국에서 16부작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이것에 친숙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드라마로 적합한지, 이것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가의 편성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음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보내는 데에 있어서 사소한 웃음.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화난 여성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더 화를 키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느 나라에서건 일상생활에서 한번쯤은 경험하셨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뢰를 밟는다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지뢰를 밟아버려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일상생활 많이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웃음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재밌다고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의 이러한 요소, 요소들을 계속해서 넣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웃기다고 생각해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번쯤은 경험을 해봤고, 나도 한번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예, 그럼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이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노하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각본을 쓸 때, 취재를 할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취재를 하셨습니까?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결혼 못하는 남자'는 사실 이 남자주인공이 저랑 거리가 비슷해서요, 이 남자주인공에 대해서 취재를 할 필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랑 비슷했습니다. 다만,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여성분들을 좌담회 같은 걸 열어서 독신 여성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고 에피소드를 이 드라마 속에 녹여서 풀어나갔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이 드라마에서 방 안에 나왔던 나츠미라고 하는 30대 여성과 미츠루라는 20대 여성 두 명이 나오는 데요. 저는 여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20대 여성이 30대 여성에 대해서 아주 실례되는 말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대 되도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 예, 있습니다. 아무 나쁜 듯은 없지만 가볍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주 실례가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취재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지요?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각본가들은 대부분 취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이 작품 속에서 기본적으로 리메이크 할 경우에는 그 국가에 맡기겠다고 방금 발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몇 회를 더 늘릴 경우에 도중에 이야기를 더 늘리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16부작 같으면 이야기를 늘리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 하는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저로써 한국에서 만들 경우에 이 국가의 여성을 취재해서 드라마를 더 늘리라는 식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앞으로 리메이크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전적으로 맡기실 건지.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저는 작가로서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리메이크가 아니라 공동제작 작품이 있으신가요?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예, 있습니다.

토론자(나카마치 아야코): 일본 작가의 눈으로 현대를 살펴보시고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 아주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결혼 못하는 남자'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살려진 드라마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선생님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부분, 그래서 작가 자신의 생각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서 더욱 더 재미있고 공감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거의 질문이 아니라 청문회 같은, 아주 송곳 같은 질문을 잘 해주셔서 재미가 아주 배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코멘트로 아주 훈훈하게 됐는데 우리 재미있는 드라마, '결혼 못 하는 남자',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작가 선생님께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손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질문해주실 분들.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네, 질문이 있는데요. 여성 캐릭터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 주연 캐릭터에 있어서 한국, 중국, 일본 드라마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예,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만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한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중국으로 리메이크 됐을 때 어떻게 할까. 선생님이 직접 써주셨거든요. 그러면 방금 질문했던 한국 여성, 중국 여성, 일본 여성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하는 점은 분명히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발표자(오자키 마사야): 아마도 취재를 하면서 상세한 취재를 한 번 해보면, 세세한 부분에서 이런 게 다르구나하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부모의 간섭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 부모는 그렇게 간섭을 안하냐하면 그렇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한국처럼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한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쪽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 자식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뭐 계속 말씀하고 싶으신게 있는 것 같은데.

질문자: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밌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안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느 나라의 여성분들도 강한 여성분들이시죠. 그런데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분들은 고민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동에 옮기기 전에 고민을 한다, 이게 드라마의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행동이 더 빠르다는 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성분들도,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등장하는 여성분들입니다. 오해없으시길 바라겠고요. 행동적인 여성이 아무래도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런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끝으로 한분만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본 작가분의 발표, 일본 작가분의 세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수고했음을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감사했고, 토론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작가 세션입니다. '드라마 '*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재범 작가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션8 한국작가: 한국방송작가협회 박재범 - 드라마 '굿닥터'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될 수 있었던 이유>

발표자(박재범):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굿닥터' 작가 박재범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시아 각국의 유명 작가님들, 프로듀서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모시고 발표하게 되서 올 들어 최고의 영광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굿닥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집필해야겠다는 그런 결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제가 아시아 각국 한중일 드라마 모두 다 보는데요, 특히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아시아 여러 드라마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일단, 한국의 '굿닥터'를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미국 '굿닥터'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굿닥터'에 있어서는 낯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국 '굿닥터' 화면을 좀 보시고, 뒤에 이어지는 화면, 미국 '굿닥터' 하이라이트 화면인데, 그건 아까 섹션 1에서 김연성 이사님이 하실 때 보셨던 화면인데, 또 비교를 위해서 중복되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의 '굿닥터'는 2013년도 여름에서 가을까지 20부작으로 방영되었던 드라마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원, 문채원, 주상욱씨가 맡았습니다. 그럼 일단 한굿 '굿닥터' 화면 보시고, 이어서 미국 '굿닥터' 하이라이트 화면 보시겠습니다.

<발표영상 재생>

발표자(박재범):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은 극명한 대비가 되도록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인지 4-5분 사이에 느낄 수 있게 편집을 해봤고, 아마 좀 느낌적으로 다르신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굿닥터'를 보니 촌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제가 지금 봐도.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촬영기술이나 기법들이나 또 편집기술들 그런 것들에 차이가 있다보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원작자로서 지금 리메이크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페이퍼에 나온 부분들은 긴 부분이 많아서 시간관계상 제가 축약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갖고 계신 페이퍼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몇 년 들어서 드라마, 예능, 교양 전부분에 리메이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로 국한시켜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들, 아까 섹션에도 나왔지만 '신의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쪽의 드라마 '마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수출이 돼서 리메이크 되고 방영을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도 리메이크 제작 편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따지고 보면 목적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겠죠. 뭔가 흥행성을 보장받은 작품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정 팬층이나 상업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우리의 것을 관심있어 하는 것은 아마도 새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명한 서로간의 이해 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또 다른 아시아 국가나 유럽들, 그런 것들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굿닥터'는 지금 5회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를 작성한 기준은 2회까지 한 상태에서 작성을 했었고요, 거기에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지금 5부까지 방영이 된 '굿닥터'는 계속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고, 약간의 등락폭은 있지만은 굉장히 잘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제작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작적인 배경은 섹션 1에서 김연성 이사님께서 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제작기간이 3년 이상 걸린것들, 우여곡절들, 그런것들은 아까 다 말씀을 해주셨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한국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검증된 시스템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광고주들의 나라이다 보니 또 그들이 보는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서 메이킹 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자들이 미학적인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바라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굿닥터' 같은 경우, 다른 미드들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어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 프리미어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광고주들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2,300명이 극장에 들어차있다면 다 광고주들이 오세요. 그리고 프리미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내리는 계산은 산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파일럿이 방영이 되느냐, 나아가서 이 시리즈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가 바로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훌륭해도 광고주들의 기본적인 표를 받지 못하면 파일럿을 상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이야 뭐 상업물이 가장 점철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것 또한 불합리한 시스템이라고는 저희가 폄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들만의 드라마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섹션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굿닥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중에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은 다르게 보면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드라마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반, 2년 사이, 3년 정도입니다. 특별히 '굿닥터'가 오래 걸렸다기 보다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에 대한 기획기간, 집필기간, 또 그것을 광고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 기간들이 우리나라보다 긴 관계로 지금 국내 일반 드라마보다는 좀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 대신 이제 저희 말대로 엎어지면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투자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균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페이퍼를 참고해주시고요, 시청자 수나, 반응의 양상 등을 참고해주시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굿닥터'가 리메이크 결정이 되고 첫 방영 직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위 관계자 분도 그렇고, 주위 작가님들, 기자님들한테 받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아마도 여러분께 그 질문도 다 통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까?', '굿닥터가 왜일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 제작자인 대니얼 대 킴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굿닥터'를 포함해서, 한국 드라마는 감정이 깊고 강렬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영어로 말했는데 제가 까먹었고, 번역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깊고 강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그런 주인공을 다뤘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환자가 의사인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찾아보았는데, 역시 환자가 의사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에도 없었구나.' 새삼 느끼게 된 부분이 있었고, 아무튼 대니얼 대 킴이 파악한 것은, 강렬한 감정, 그 다음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특이한 캐릭터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도 축약해서 표현을 하자면, 특이한 주인공 설정이나 휴머니즘 이렇게 포함될 수 있겠죠, 공감할 수 있는 휴머니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냥 휴머니즘, 특이함,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면 설정만 특이하게 되면 서로 간에 다 통용이 되는거야?' 아니면 '작위적인 휴머니즘을 애써서 만들어 놓고 보여주면 그것도 세계적인건가?' 사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휴머니즘은 영원한 테마입니다. 전 세계가 통용할 수 잇고,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휴머니즘이고, 또, 우리도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통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드릴까 해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거에 대한 세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과연 이 특이함과 휴머니즘을 제가 어떻게 전략을 구상을 하고 기획을 했는지 조금 더 찬찬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앞에 기획의 시작, 그리고 모험 부분은 여담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기획을 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꾀하는 것이 차별이겠죠, 차별점. 다른 것과 구별되는 무언가, 내가 무엇을 주어서 관객들을 보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저는 의학드라마를 다른 작가들보다 많이 써봤습니다. 시리즈물도 써봤었고, 그래서 역시 이번 화두도 어떻게 하면 다른 의학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이한 의학드라마라고 시작할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님들이 처음에 하는 약간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의학드라마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의 조직, 어떤 진료과, 특이한 진료과가 없나, 특이한 수술법이 없을까, 특이한 사연을 가진 환자가 없을까, 뭔가 병원을 싸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아니면 또 기계적인 설정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의학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의학드라마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한발, 두발, 세발 좀 더 사람에게 들어가는 의학드라마를 해야겠다. 굉장히 말은 쉽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에서 두 세 발자국 더 들어가서 뭔가 다른 내면을 들여다보고, 뭔가 다른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이 작가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오랜 구상과 생각 중에 탄생한 것이 바로 자폐성향을 가진 청년의 의사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자폐의사라고 한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의료행위의 주체임과 동시에 객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인공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임과 동시에 환자라는 것이죠. 이런 설정 같은 경우, 한 이유를 들자면, 보통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저보다 안 아파서 몰라요, 제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픈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팔이 찢어지거나 삐어서 갔을 때, 의사한테 가장 하는 말이 그거죠.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파요.' 라고 의사선생님이 말하면 '저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이런 간단한 명제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너도 한번 아파봐', 의사한테. 너가 아팠을 때 환자와의 소통, 치료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의사를 어떤 병의 주체로 만든거죠. 자폐아라는 주체로 만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축약을 드리면 주인공 박시후는 의사인 동시에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굿닥터'에는 잘 언급이 안 됐는데, 한국 '굿닥터'에는 약간 인격발달장애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아이 정도의 그런 감성수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이러니라는 사실에서 인간의 치료의 본질, 사랑, 그리고 진정에 대한 의사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의사들 있죠, 마초적이고 히어로적인 의사. 그런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런 활약상들에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초적인 의사를 그리게 된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세 발자국 더 들어가서 환자이자 의사인 내면을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되고, 저는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초적인 의사, 영웅적인 의사라고 그렸다면, 한 인간으로써의 성장 대신에 성공적인 의료행위에만 제가 집중을 해서 훨씬 더
우리말로 따지면 작위적이고, 너무 재밌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드라마가 탄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점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받은 오해가 그런 자폐의사를 설정한게 그냥 특이하려고만 그런 것이냐, 우리나라말로 튀어보려고 그런 것이냐, 눈에 띄게 하려는 그런것이냐, 설정만 있는 드라마가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받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항변을 항상 드리고 싶었어요. 과연 재미만을 위한 설정은 아니라는 것. 제 포인트는 어떤 의사,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능력을 가진 의사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나, 우리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에 관한 설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로도 바라보고, 우리가 연민을 가진 인간으로도 바라보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설정만 존재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좀더 인간의, 낯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했고, 그 자체를 메시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 이웃에 어떤 장애인이 살건, 어떤 사회적 약자가 살건 그들을 들여다보기는커녕 사실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의 감성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메디컬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메디컬 드라마가 새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을 넘어서 한 인간의 상처와 고통이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자폐 환자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아이들이 새롭게 진단을 받아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명의 병이라고도 하죠, 자폐증은요. 사실은 예전보다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이 문명 자체가 순기능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정 핵심이 아닌 설정을 더 나아가서 분명히 제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 더 들어가고 우리가 관심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 갖기, 이것들을 좀 더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굿닥터'는 의료행위보다 의사 간의, 사람 대 사람, 의사와 의사간의 그런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심장병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돼서 2주정도 입원을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술 10시간을 받고 다른 주사 맞고, 뭐하고, 뭐하고 2,3시간 하면 2주, 21일이죠. 21일 중에서 하루 정도만 직접적 의료행위를 받고 나머지 20시간은 전부 소통입니다. 의사와 환자간의 소통, 의사와 의사간의 소통, 그리고 통칭 가족 간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요. 이게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어떤 치료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의학드라마라고 하면 다이나믹한 수술실, 아니면 특이한 치료법, 거기서 진하게 전해지는 어떤 희열 그런 것들을 되게 의학드라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드라마는 액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극적인 설정들이 주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소통이 줄 수 있는 치료법, 소통에 의한 치료법, 그리고 소통에 의한 화해, 그 화해들이라는 것이 인간 대 인간의 화해라기보다 우리가 직접 처해있는 환자, 의사간의 화해들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극적인 의학드라마는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별점은 이것은 우리가 자폐 의사를 바라볼 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과연 자폐라는 질병,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의학드라마는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질병의 치료를 이야기하고, 질병의 예방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질병에 처해있다면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아무도 아프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내 가족 내 친구가 아플 수 있고, 또 극단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치료 외에 과연 내가 그 환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존을 해 나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런 것들이 포인트여서, 자폐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맞닥뜨려서 우정과 사랑과 다른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로 감싸주고 커버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첨부를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굿닥터'가 미국판 제작이 되고나서 이게 한류에 대한 한 포인트, 표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살짝 부정적입니다. 한류는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산업적인 산물이고 결과적인 제품의 산물이지, 기획이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굿닥터'를 기획할 때 꿈에도 이게 바다를 건너가서 미국에서 상영이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기획할 때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인간에 접근해 보자. 흔한 말대로 한 발짝 더 휴머니즘이라는 것에 대한 환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고, 그것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좋게 봐준 것입니다. 저는 냉정히 말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산다, 내지는 리메이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 나라의 감정을 살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너희 것들이 특이해서 신기해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오리엔탈 이모션, 아까 대니얼 대 킴이 표현한 뭔가 짙고 강렬한 감정, 너희의 감정을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저는. 오늘도 많은 외국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너희들이 가장 잘 다루고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한 두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감정의 기술들, 또 감정 그 자체를 산다는 것들. 사실 그 작업을 원론적으로 하는 것이 한류를 기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심은 누구나 알아준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원론적인 말이긴 하겠지만, 사실 그 말만큼 중요한게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류를 기획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한류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기획하고 그 감정을 체계화해서 잘 펼쳐놓는 것이 외국이나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나 가장 좋은 작품을 선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주시고 저도 숙제로 안고 풀어가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굿닥터'의 작가 분의 발표를 들어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 저는 '굿닥터'를 한 2개월 전부터 전혀 이전의 작품이 리메이크 된거라고 생각을 못하고요. 채널을 돌리다가 이거 이런 의학프로그램이 있네, 저는 그레이 아나토미를 대단히 많이 봤고, 또 그런 것들 우리도 언젠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굿닥터'가 아메리칸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회, 2회, 3회 지금 5회까지 했는데 매번 기다리게 되는데, 한미동시개봉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니까, 어제부터 참석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거라고 굉장히 놀랐고 작가분한테 대단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기회를 5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조금 갈 텐데요. 여기도 지정토론자 분이 계십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정형수 작가분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정토론 하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토론자(정형수): 네, 지정토론을 하게 된 정형수입니다. 계속되는 진지한 자세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조금 가볍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플로어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대변해서 비수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전에 약속한 것 없습니다. 저 미국에 팔아서 돈 좀 만졌습니까?

발표자(박재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다른 작품에 관한 질문이 10개라면, 얼마냐는 질문을 100개를 받

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아직 0원입니다. 물론, 계약조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작가나 우리 제작자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정산. 항상 기간이 지나야하는 정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즌 1이 끝나야 정산이 끝날 것 같고, 그때가 되야 제가 정말 얼마나 받는지, 정확한 금액은 아마도 시즌 1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토론자(정형수): 어쨌든 꽤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발표자(박재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토론자(정형수): 여기가 지금 프라임타임에서 방송을 해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두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미국에서 활동하라는 제안은 받지 못했습니까?

발표자(박재범): 건너가는 건 언어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이템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론자(정형수): 그랬을 법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는 또 미국 시스템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 회의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받았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리메이크를 맡길 때, 오자키 선생님께서는 전권을 다 맡기셨는데, 그 나라에 맞게. 이번에도 우리 박재범 작가님은 조건없이 그냥 맡겼습니까?

발표자(박재범): 지난 번 처음 리메이크 작업이 CBS에서 될 때는 감 놔라 대추 놔라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뭔가 들려오는 시놉시스는 제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산되고 다음에 기획될 때, 데이비드 쇼어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일단 데이비드 쇼어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하나고, 제가 예전에 '신의 퀴즈'라는 시리즈물을 하는데 그 시리즈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고, 멀리 있지만 되게 스승처럼 생각하던 작가였기 때문에 이 분은 저보다 이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으로 갔습니다.

토론자(정형수): 지금까지 방영된 것 다 봤습니까? 아무리 존경하는 작가가 리메이크 했더라도 기분 나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박재범): 깔 건 까야죠, 아무리 스승이라도. 비판한다기 보다도 확실히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회당 60분이고 미국같은 경우는 40분이다 보니, 극본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게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노애락의 감정들이 굉장히 짧고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것들을 보여주게 만들어서 저는 좀 더 길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야지 좀 더 감정이 전달될 듯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매체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적게 그려지는 것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특히 5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좀 더 울고 나가지', '옆 한 번 더 돌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건 뭐 감정에 대한 문화차이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정형수): 사실 우리나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드라마들이 아메리카나 유럽에 진출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의 영향력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마치 느낌이 마이너리그에서 뛰던 운동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서 한방 날린듯한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좋으면서도 약간 미묘하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것에 간택을 받았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기분은 없었습니까?

발표자(박재범): 아, 그건 좀 말씀하신 데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미국가서 기분좋은 거냐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없지 않아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 가서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그들이 장기인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를 잘하는 나라에 박찬호 선수, 추신수 선수가 가서 잘할 때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들이 장기라고 여겼던 메디컬 드라마, 그들의 장기라고 여겼던 휴면 메디컬을 우리도 효과적으로 잘 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기분에 그런거지
미국 갔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중국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서유기나, 삼국지같은 드라마를 써서 그들이 역 리메이크를 했다면 저는 똑같이 기뻐했을 겁니다.
무협드라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최고이고 그 수준 또한 높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중국이 잘하는 무협드라마를 통해서 리메이크가 되었어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본의 추리드라마들 아니면 기업물을 제가 집필을 해서 역 리메이크가 되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해냈다는 약간의 뿌듯함, 으쓱함 이런 것들입니다.

토론자(정형수): 좋은 말씀을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휴머니즘에 한발 더 깊이 다가가고 싶었다던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시지만, 한류라는 것이 어떤 결과의 산물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좋은 드라마, 재미와 감동이 있는 드라마는 세계 어디에도 통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왕좌의 게임' 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팔려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 그 자체를 해서, 예를 들자면,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도 투자하고 만드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무국적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무국적 드라마에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정치, 그리고 폭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섹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요소를 가지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무국적 드라마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기획되는 어떤 글로벌 상품과 본인이 말씀하시는 휴머니즘, 좋은 의미와 재미를 가진 드라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발표자(박재범): 그거는 기획 주체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는 아이디어 자체, 감정 자체로써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슬프게 하는 반면에, 미국은 철저히 세 가지로 밀고 나가고 있죠. 자본, 인력, 기획력. 이 세 개가 충분히 담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블록버스터 드라마들이고 사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도 부족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고급인력도 아직 부족한 편이고 갖고 있는 건 기획력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말씀하신 요소들을 가진 큰 드라마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고,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브레인, 우리의 기획력, 우리의 감정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그나마 하나 있는 무기로 밀고 나가야되지 않겠나, 사실 그 부분에서 저도 '굿닥터' 를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토론자(정형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박수 좀 쳐주세요. 우리 정형수 작가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고,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플로어에서는 아마 이 현상이, 특히 한국 쪽에서는 좀 고부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관심이 있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들고 질문하시면, 네, 저기. 자기소속 발표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해주십시오.

질문자: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 4학년 정지은입니다. 작가님 발표 정말 감명깊게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상이라는 매체가 주는 가장 강력한 펀치는 매체를 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주려고 하는 감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경험시켜 줄 수 있느냐가 매체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영상이라는 매체는 가장 산업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에서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감정을 기획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프리-프로덕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미국이나 혹은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식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로 하여금 가장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적극성이라든가, 기간,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발표자(박재범):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양상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또 한 국가에서도 어떤 드라마, 어떤 시기,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프리-프로덕션의 양상도 굉장히 다르고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드라마 현실은 우리나라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급박하게 들어가는 작품도 많고, 또 기획이 많다보니 이걸 상여하는 주체들이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고. 저는 프리-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서양의 방식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방식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시간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 프리-프로덕션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은 곧 돈입니다. 어떤 작가가 6개월을 구상하는 것, 1년을 구상하는 것. 단순히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액수가 다르겠죠. 하다못해 6개월을 고민하면 1년 밥값이 더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획기간은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줄이는게 효율적인 비용을 산출되게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드라마 편수도 많고, 또 빨리빨리 트렌드에 따라서 많은 것을 내놔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사, 제작사에서도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기획되는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쪽대본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줄거리가 바뀌어 버린다든지, 처음부터 기획이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개선이 되어야하고 지금은 사실 여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과열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새로운 걸 내놔야되는 것. 그리고 편성이라는 것은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드라마가 막 쏟아져 나오거나 의학드라마 쏟아져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빨리 기획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 다 법정드라마하고 있는데 혼자 홈드라마를 할 순 없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시장에서 같은 물품들을 모아놔야지 잘 팔리는 것처럼 독특하게 다른 기획을 했을 때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하게 법정물이 많으면 비슷하게 형사물이나 추리물을 하든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비중이나 기간들이 지금 조금 열악한 편이고, 제가 제작자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한 두 분만 좀 더 모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네, 저기 뒤에 있습니다.

질문자: 제 이름은 리사 에스피노사입니다. 한시네마에서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왔고요. 초기에 발표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캐릭터에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굿닥터' 한국 버전, 미국버전 모두 다 보게 되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공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으로 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이러한 캐릭터로 인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발표자(박재범): 모든 국가의 드라마들은 캐릭터 중심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드라마들은 모두 독특하다기 보다도 강한 캐릭터, 일반적인 성격을 그려도 그 캐릭터가 얼마나 힘을 갖고 주위의 인물들과 반응을 해 나가느냐의 싸움이고. 저는 말씀하신 주인공 중심주의가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인공 중심주의의 드라마들이 약간은 변이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돋보이는 드라마들이 우선시 됐고 조연들은 약간 거기에 양념을 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내지는 미국 드라마의 특징이었다면,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요새 드라마들은 강한 주인공은 있지만 화학반응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연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능적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에피소드를 양산하고, 또 다른 사건들을 양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서있는 하나의 구조물 정도였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에피소드 내지는 메인스토리에 가담이 되어서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주인공 중심주의가 맞긴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주변인들에 관한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건 미국드라마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시면 예전과 조연들의 플레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양상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캐릭터의 특이함과 특성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만큼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적으로 조연들도 똑같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공 중심주의 자체가 쟁점이라기보다, 주인공 중심주의가 더 강해지면서 변하고 있는 플롯이나 조연들의 역할들 그런 것들은 좀 더 주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기회가 없으시면 사실 우리 박재범 작가님한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건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세 번째 큰 세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토론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세팅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 자리에 계시고 총평하겠습니다. 제가 원할 때에는 총평하시는 분들도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한테 전달된 총평리스트에는 모두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에 2분, 일본에 2분, 중국에 2분입니다. 주최 측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서 총평을 하신다고 하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듣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세 번째 세션에 참석하신 분들도 좀 피곤해서 자리를 좀 교대하는 게 어떨까. 빨리 주최 측에서 견해를 주세요. 그냥 할까요? 좀 계세요. 한 30분만 더 계세요.

그러면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할 6분의 존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째 분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곽영진 이사장님이십니다.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시죠.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곽영진):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교류재단의 곽영진 이사장입니다. 오늘 아침 9시반, 10시부터 지금까지 정말 진지하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현장의 이야기, 또 감독님들의 이야기, 작가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었고, 너무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제가 경계를 넘어서, 장르와 국경과 플랫폼을 넘어선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서로 제작 환경과 문화와 언어는 다르지만 제작하시는 방식들을 다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들은 많은 이런 트렌드라든가, 흐름들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경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서 많은 장르간의, 우리는 one source-multi use라는 말을 많이 해왔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드라마로, 또 만화가 드라마로, 영화가 다시 만화와 게임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또 국경도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이 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체 연결망들이 새로운 작품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게 해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느낀 것은 경계도 허물어졌지만 그 본질은 결국은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작품, 시청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이야기를 포함한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또 그런 작품들이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맞는, 또 생각과 형식에 맞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또 박수를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또 다른 언어권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과정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자님, 발표, 토론하는 분들이 너무나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명 깊은 컨퍼런스가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곽영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총평을 해주실 분은 지담 제작사의 조한숙 본부장이십니다. 조한숙 본부장님.

지담 본부장(조한숙): 예, 안녕하세요. 드라마 제작사 지담의 조한숙 본부장입니다. 12회를 맞이하는 컨퍼런스를 매회 참석할 때마다 생각하는건 자주 뵐 수 없는 아시아 각국의 여러 제작자, 작가님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도 역시나 경계를 넘나드는 이 드라마의 주제에 맞게 아침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고, 또 다양한 우리나라의 제작상황과는 다르게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제작 상황, 이런 말씀 그리고 작가님들의 작품말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유익하고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굉장히 많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매 해 매 해 계속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좋은 작가님들도 뵙고, 제작자님들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측 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AIE의 고바야키와 아키노리 회장님이신데, 11차 아시안 텔레비전 드라마 컨퍼런스, 작년에 열린 것을 주최하신 분입니다. 예, 아키노리 회장님.

AIE 회장 (고바야키와 아키노리):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주제는 정보의 글로벌화라는 말이 등장한 지금에 딱 맞는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만큼 다뤄진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까지, 또 철학적인 사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게 해주신 컨퍼런스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파간다를 제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본질 부분, 일단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표현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것을 쭉 들으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저희 인간이 요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환경을 바꿔가거나, 혹은 사람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희의 일상에 변화라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가 저희들에게 보다 더 인간적인 욕망을 더욱 더 발동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에서 변화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그러한 시도 자체가 아무래도 환경이라고 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해답을 준 것 같다는 그러한 소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하지 않는 표현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변화하는 세계 자체도 상호간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풍요로움이죠. 평화와 평화로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생활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표현활동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보장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을 저희는 실현을 하고 지속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 안에 지금부터 저희가 뭘 전개해 나가야할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힌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컨퍼런스의 본질적인 추구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주제로서 선정을 하고 항상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혹은 풍요로움을 영원히 저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라든가, 혹은 산업과 같은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컨텐츠에 이른바, 집약된 이 사업에서 연구를 하면서도 이 컨텐츠의 매매도 있을 수 있겠고, 소개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다른 분야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동지개체로 계속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를 저희가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작가협회, 반 카즈히코 작가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반 카즈히코: 예, 반 카즈히코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피곤하실 텐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4,5년 전에 참석했을 때와 달라진 점은요, 국가라던가, 문화의 차이점 외에도 콘텐츠의 차이, 미디어의 차이점, 미디어가 좀 다양해진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작가로서, 제작자로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겠다하는 부분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오전에 있었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오해를 풀고 싶은데요, 원작을 찾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드라마를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저희 작가로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가의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작가를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돈도 별로 안 되고, 좀 질려서 코믹 만화 쪽으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싶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맨 마지막에 작가세션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오리지널 작품들이죠. 굿닥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작품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중국 분이 말씀하셨던, 스토리와 감성, 인물, 그런 부분, 한국 분이 말씀하셨던 기획력이 중요하다라던가, 정말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제작자 분들께서도 작가와 함께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텝 분들,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본 작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수줍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자!

모더레이터(백선기): 이미 여러분들이 참여한 것이 같이 가자는 뜻을 실현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언급이 되신 분인데요, 이분 이야기 정말 듣고 싶었는데, 상하이 관일 문화미디어의 왕리핑 작가입니다.

왕리핑: 네, 여러 전문가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쪽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이번 회의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주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번 회의에 참가한 인원 수가 사상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총 11개 국가에서 약 250명 정도가 참석하셨죠. 작가들, 제작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 관련된 주제도 많습니다. 제작자, 그리고 작가, 그리고 플랫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티비 드라마의 작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리메이크 권의 판매, 그리고 웹드라마 관련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셋 째, 전체 오늘의 세미나가 1일, 하루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라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주제를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효율적으로 전체 스케줄을 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6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1회부터 지금까지 12회 동안 모두 참석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있으신가요? 예, 장 선생님, 장 선생님 베이징에서 오셨죠, 저희와 함께 참석하신 중국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매년 제가 바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한국, 일본에서 오신 작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서로 힘내자!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가의 예술적인 생명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작품을 창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고요. 이것은 아시아 TV 드라마 컨퍼런스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내년에 만납시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아주 감동적인 스피치였습니다. 그럼 끝으로 동양삼상의 루싱 감독께서 총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루싱: 감사합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선배님들과 만나게 되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작가는 전체 드라마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써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

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가 선생님들께 정말,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작가님들 덕분에 좋은 작품을 시청할 수 있고요, 오늘 '굿닥터'가 아주 성공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사례로 설명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상당히 성공을 했죠. 저에게 있어서는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왜 이런 리메이크를 통해서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혹은 한중일 삼국 내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까 약간 반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지 돌아가서 생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좋은 경험을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모더레이터(백선기): 여러분들 오늘 장장 길게 7시간동안 세션에 참가하셨고요, 아까 왕리핑 작가께서 이야기한대로 하루에 구성한 걸로는 최고의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작가분들, 플랫폼, 그리고 제작사,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참석하면서 사회를 봤는데, 학계가 한 명도 없다는게 조금 아쉬워서 혹시 내년에 기획을 할 때에는 학계에서 한 두 분, 아시아에서 유명한 학자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조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카데믹하게 참가해서 오늘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저의 학생들하고 사실 매달 1-2편의 드라마는 늘 분석합니다. 그게 석사논문이고, 박사논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작자나, 작가분들, 플랫폼의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추상적으로 분석해왔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오늘 전체적인 컨퍼런스를 총평을 한다면, 5가지 정도인데, 역시 가장 중요한게 창의적인 작품을 쓰는 작가가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 정서가 대단히 많이 요구가 되겠구나. 아까 토론하신 분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할리우드에 있는 텔레비전 무비나 영화들이 지향하는게 보통 폭력, 섹스, 그 다음에 투쟁입니다. conflict인데, 사실 아시아 존에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상당히 휴먼적 정서가 보편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문화적 융합이 앞으로 경계를 넘었을 때, 아시아 지역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도 작가, 제작자, 플랫폼, 그리고 방송사 역시 대단히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청중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최 측 감사합니다.

사회자(이인나):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서 시선을 받으며 앉아 계셨던 발표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 12회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장하실 텐데요, 저희가 7시부터 저녁식사 시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저녁 7시까지 오늘 점심식사 장소였던 사파이어 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팸투어를 떠나게 됩니다. 팸투어는 10시 정각에 저희 컨퍼런스 전용 체크인 데스크 앞쪽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10시 정각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분들께서는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체크인을 모두 마치시고 10시 정각까지 저희 컨퍼런스 전용 체크인 카운터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통역 수신기는 나가시는 길에 저희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꼭 반납해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